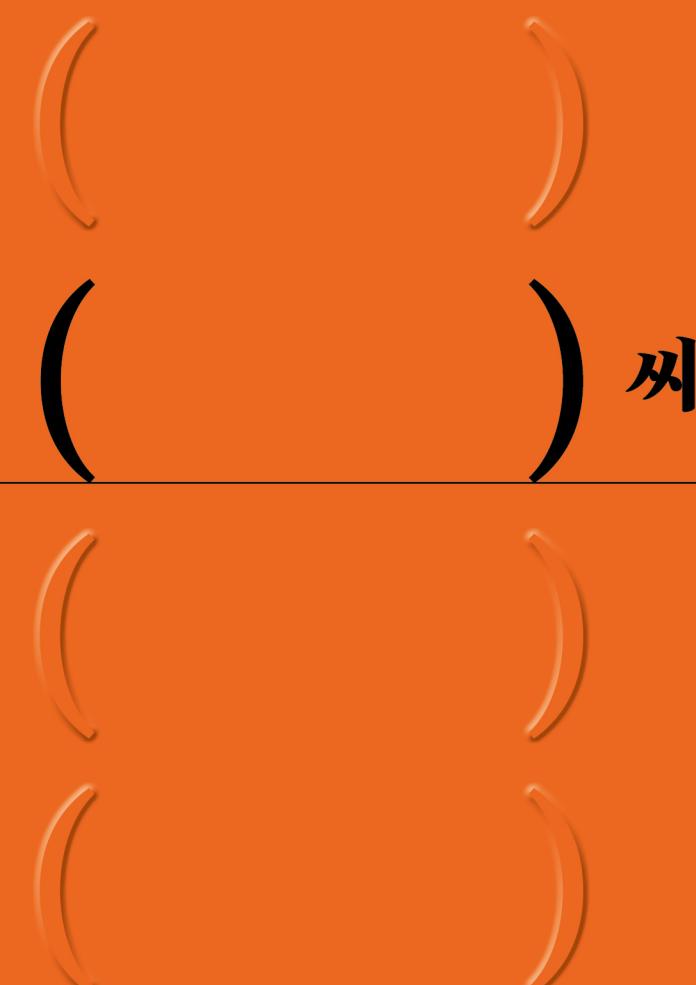


2019

2019 활동 보고서

희망,

씨



#시민연구 #시민참여 #시민후원

www.makehope.org
facebook.com/hopeinstitute
hope@makehope.org

Tel. 02-3210-0909
Fax. 02-3210-0126

*
희망
제작소
The Hope Institute

*
희망제작소
The Hope Institute

희망제작소는 우리 사회의 크고 작은
의제들에 대해 정책적 대안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민간독립연구소입니다.
시민의 아이디어를 사회혁신으로
연결하고, 주민과 함께 지역자원을
찾아 지역의 힘을 키웁니다. 우리 시대
공공리더와 시민리더를 성장시키고,
지속가능한 시민안전사회를
모색합니다.

‘2019 희망씨’는
2019 희망제작소 연례보고서의 일부로
제작된 인터뷰집입니다.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희망제작소의 연구 및 활동에 함께 한
시민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모든 시민이

연구자입니다

희망제작소는 정부나 기업의 출연금 없이
설립된 민간독립연구소입니다.
시민의 아이디어 제안과 후원, 활동 참여로
열린 연구와 실천을 지향하는
싱크앤팩크 Think & Do Tank로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변화의 원동력을
만들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모든 시민이 자신의 일상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대안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는 시대를 열고자 합니다.

세대와 나이를 불문하고 누구나 참여하는
강연과 워크숍을 열며, 1인 연구자와
사회혁신가를 성장시키고,
지원하는 시민참여형 연구소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여는 말

안녕하십니까.

희망제작소를 응원하고, 지지해주신 많은 분과 함께 이뤄 온 노력과 성과를 나눌 수 있어 감사한 마음이 큅니다.

올해 희망제작소의 연례보고서에서는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열기 위해 노력한 과정과 결실을 시민의 목소리로 담아냈습니다.

시민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인지, 시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다시금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홀로 가는 길은 외롭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참여와 후원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는 길을 비춰주시길 바랍니다.

희망제작소 이사장
정지강 드림

<p>(시민이 연구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012 뉴스에 오른 그 기업들이 궁금해 - 정혜정, 조효진, 주영진 씨 022 가치지향적 소비를 향한 디딤돌 028 폐미시국 광장의 사람들이 궁금해 - 박재승, 장소정 씨 038 필연(必然)의 운동: 90년대생의 폐미니즘운동 042 탈북청소년의 내일이 궁금해 - 김명애, 백성희, 정란 씨 052 탈북청소년이 남한에 '잘' 적응하려면 056 시민연구자를 지원한 2019 온갖문제연구 궁금한 김에 연구 <p>(시민이 참여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060 "그냥 뭔가 얻는 게 있어요." - 김다빈, 김진호, 이선영 씨 069 지역과 청소년이 함께 성장하는 내-일상상프로젝트 070 "누구나 쉽게 문화예술을 즐겼으면" - 홍진욱 씨 076 더 많은 시민, 더 열린 참여, 서울시 시민참여예산학교 078 "농사를 짓고, 청년을 만나고, 어르신과 함께하고" - 이정원 씨 086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상주시 청년 기본계획 수립 088 "공동체 회복은 세밀한 아픔을 풀어주는 데서부터" - 이영하 씨 096 "누구나 소외되지 않도록, 누구나 안전하도록" - 호성엄마 정부자 씨 102 피해자와 시민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안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p>(시민이 함께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6 "카페, 놀이터, 상담, 리빙랩, 뭐하는 곳이냐고요?" - 김윤정 씨 114 "나를 깨우쳐 타인을 이롭게 하고 싶어요." - 정영창 씨 120 "오늘의 삶으로 내일을 기대합니다." - 이경란 씨 126 "작은 실천, 나만의 방식으로 변화를 만들어요." - 이경하 씨 134 희망제작소 후원회원을 만났습니다 137 이런 후원회원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145 희망제작소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46 희망제작소를 후원하는 방법 <p>(2019 시민의 희망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0 2019 시민희망조사 결과 및 전망 <p>(희망제작소가 함께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8 2019년 사업 성과 160 2019년 사업 현황 162 2019년 연구와 사업 171 2019년 살림살이 175 희망제작소 연구원 집담회 186 희망제작소와 함께 하는 법 188 닫는 말 190 희망의 별
---	--

올해의 희망씨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일상 속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을 찾으며,

우리 사회의 변화를
만드는 사람.



(시민이 연구합니다)

궁금증에서 탐구로, 탐구에서 기록으로!
<2019 온갖문제연구-궁금한 김에 연구>에 참여한
시민연구자 세 팀의 여성을 전합니다.

희망, (정혜정, 조효진, 주영진) 씨

시민연구자 정혜정, 조효진, 주영진(만점팀)
고등학교를 함께 다닌 혜정, 효진, 영진 씨는 시민연구자로 뭉쳤다.
연구를 매개로 무언가 작당할 수 있어 즐겁다는 이들은
현명한 소비자를 위한 기업행동을 분석하고 있다.

뉴스에 오른
그 기업들이 궁금해

[인터뷰]

‘궁금한 김에 연구’를 해보니 어때요.



혜정 시민연구자로서 저희의 위치를 어디쯤 둬야 할지 고민했어요. 여러 입장 을 골고루 보려고 하니까 소비자, 기업, 언론 입장까지 고려해야 하더라 고요. 막상 연구를 시작하니 무게 중심을 어디에 둘지 가장 고민스러웠 어요. 연구하기 전, 떠올린 그림을 더 촘촘하게 그리는 작업이 필요하다 는 걸 연구를 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영진 사회학 쪽을 공부했지만, 뭔가 연구하려면 전문성이 있거나 학위가 있어 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직접 정보를 모으고 갈피를 잡으면서 우리 선에 서 할 수 있는 일임을 알게 되었어요. 지금의 연구가 제게 의미 있는 활동 이 되고 있음을 발견하는 중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연구를 시도하고 있나요.

효진 연구하면서 제일 많이 만나는 사람이 현재 연구를 함께 하는 구성원인데요. 자주 만나면서 서로 생각을 나누고, 배우고, 아이디어를 내고 있어요.

일화가 있다면요.

효진 한 친구가 ‘국민 재판’이라는 아이디어를 냈어요. 사람에게 기업 활동을 보여주고 판결하게끔 하는 거요. 마치 블라인드 테스트처럼 A기업의 이슈, B기업의 이슈를 시민에게 보여주고, 시민들이 직접 어떤 기업인지 맞 혀보고, 개선사항을 이야기해보는 거죠. 이 과정에서 시민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과 자신의 소비 지향점을 알 수 있어요.

서로 아이디어를 나누는 과정에 초점을 맞췄네요.

효진 친구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또 하나의 워크숍, 프로젝트 아이디어 가 나오거든요. 쏟아진 아이디어들은 이번 연구를 일단 끝내고 나서 생 각해보자고 얘기했지만…(웃음) 결론적으로 구성원끼리 터놓고 말할 수 있어 정말 좋아요.

“일정 기간,
다양한 매체와 이해관계자를 분석해야
선한 기업을 발견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연구한 내용을 살짝 알려주신다면요.

혜정 어떤 기업은 사건이 터졌는데 사건을 제대로 수습하기보다 오히려 외적으로 구호 물품이나 물자를 보내는 방식의 보여주기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연구 조사를 할수록 대중에게 보이는 이미지와 실제 이미지가 다른 기업을 발견 중입니다.

영진 저는 기업 기사를 분석할 때 좀 더 섬세하게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포털사이트에서 게재되는 대부분의 기업 기사는 부정보단 긍정이 많아요. 긍정 기사의 경우 실제로 선한 영향력을 가진 기업일 수도 있지만, 이미지 쇄신용으로도 활용하기 때문에 실제 진정성을 파악하기 어렵죠.

효진 한편으로 이슈 중심에 선 한 기업의 행위를 분석했는데요. 2017년도 생 산평가 부문에서는 D등급을 받았지만, 친환경적인 부품을 사용하거나 플라스틱 소재를 빼거나, 다른 나라에 기술적 지원을 하는 등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2년간 지속적으로요. 부정적인 이슈의 중심에 섰지만, 이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나름대로 벌인 셈이죠.

“많은 고민 지점을 발견할수록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일 자체를
즐겨야 해요.”



평소 관심사를 연구로 이어가기 어렵지 않나요.



효진 인터뷰 일정을 잡았는데 못했던 적이 있죠. 우리에겐 이 주제가 정말 중요한데 상대는 문제로 인식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사람을 만나는 일 자체가 꽤 어려운 지점이었어요.

혜정 그래서 문제에 공감할 수 있도록 기업의 에피소드를 정리한 설명자료를 만들었어요. 선행 자료가 많이 없어 어려웠지만, 인터뷰를 위해선 공감이 있어야 했거든요.

영진 저는 기자들에게 연락하는 게 만만치 않았어요. 저희 연구에 관심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전화나 메일을 통해 연락을 시도하니까 무응답일 때도 많고요. 소속 매체의 성향을 고려하면 기자 개인의 가치관을 드러내는 일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연구 진행할 때 난관에 봉착한 일이 있나요.

혜정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요. 10개 기업을 분석하는데도 기사가 몇만 개씩 돼요. 많은 양의 기사에서 긍정요소와 부정요소를 어떻게 판단할까 고민하다가 분석 프로그램 개발자를 섭외했어요. 저희가 긍정·부정 요인을 일차적으로 선별했고, 이러한 표본을 프로그램에 돌려보는 거죠. 개발자분이 정확도가 70%만 되고 성공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효진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고, 프로그램도 활용하고 있는데요. 막상 연구보고서에서 결과가 한두 장으로 나올까 봐 걱정이에요. (웃음)

연구 끝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효진 ‘언제까지 이렇게 살까’, ‘궁금증에서 언제쯤 해방될까’ 고민한 적이 있어요. 이번 연구를 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살아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혜정 2018년에 불매운동기업 리스트를 담은 독립출판물 표지 작업에 참여했었는데요. 그때 불매라는 게 사람들의 개인적 관심에서 끝나고 수면 위로 드러내기는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진행할수록 관심의 크기가 느껴지

고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소중해졌어요. 연구가 끝날 때쯤엔 네트워크의 소중함을 더 느끼게 될 것 같아요.

영진 자기 효능감이요. 대학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며 무엇을 해야 하나 했어요. 이번에 연구하면서 평소 관심사를 나누고 결과를 향해 갈수록 ‘내가 뭔가 만들어 낼 수 있구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다양한 팀원과 다양한 이야기를 하면서 좋은 자극을 받고 있는데 결과가 나올 때쯤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기대 중이에요.

“자기의 자리를
자신의 가치관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게
시민 연구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맺은 관계가 느슨한 연대로 이어질까요.

영진 관심 분야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연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어떤 단체의 뉴스레터 구독 자체가 약한 참여처럼 보이지만 저는 오히려 중요하다고 봐요. 강한 연대는 큰 힘을 갖지만, 피로감을 주기도 하거든요. 작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느슨한 연대를 쌓아가는 걸 지지하게 돼요.

효진 연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지 않을까요. 우리가 살아갈 때 ‘섬’처럼 존재할 수 없으니까요. 그동안 거리가 멀게 느껴진 정보가 점차 가깝게 느껴질 때 느슨한 연대가 더 가능해지지 않을까요. 더더욱 정보를 가깝게 만드는 일을 하고 싶어요.

시민은 왜 연구를 해야 할까요.

혜정 제가 만약 소속이 있었다면 다양한 주제를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봤어요. 시민으로서 연구했기 때문에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시민연구자로서 진짜 연구하는 거죠.

영진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어요. 공부하거나 일할 땐 수동적인 기분이 들고, 막상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때 뭘 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만 남더라고요. 내가 속한 사회에서 내가 관심 있는 주제를 연구할 때 비로소 ‘주체’라는 느낌을 들어요.

효진 자기의 자리를 자신의 가치관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게 연구인 것 같아요. 온갖문제연구 워크숍인 ‘온갖연구실험실’에 참여했을 때,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방법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나의 자리와 나의 가치관을 알 수 있게 만든다는 점에서 자신만의 연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연구란? 온갖문제연구란? 희망제작소란?

영진 연구란 새로운 기회. 평소였으면 못 만났을 사람들, 못했을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니까. 온갖문제연구는 ‘물주’(웃음), 연구할 수 있게끔 물자를 지원해주고 물을 주는 곳이니까요.

혜정 연구는 힘든 줄 알았지만 힘든 것(웃음). 선례를 만든다는 점에서 힘듦을 느끼지만, 하고 싶은 힘듦을 느끼게 하는 것. 온갖문제연구는 계획서만 보고 우릴 믿고 지원한 곳. 희망제작소는 희망!

효진 연구란 취미. 하면 할수록 잘하고 재미를 느끼는 것. 온갖문제연구란 비밀 언덕. 좋은 분들의 연대와 감정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곳. 희망제작소는 룰모델. 재밌는 것만 연구하고 싶었는데, 그걸 먼저 하는 곳이 희망제작소!



보고서 읽기

가치지향적 소비를 향한 디딤돌

- 시민연구자 조효진

‘가치지향적 소비를 위한 기업행동’
이력평가라는 주제로 희망제작소의
시민연구 지원사업 <2019 온갖문제연구-
궁금한 김에 연구>를 신청해 선정됐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지향적 소비는 각자의
관심사에 따라 대안을 찾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소비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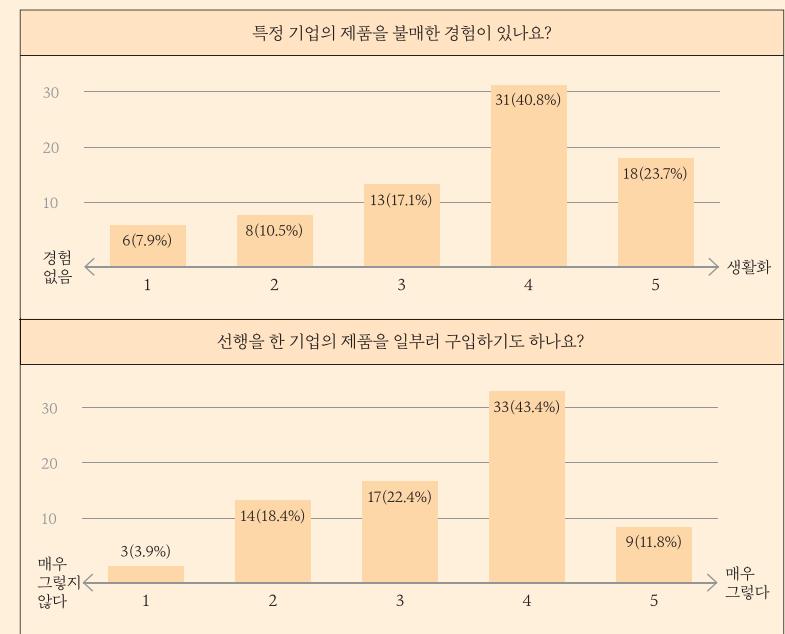
제품을 구매할 때 품질, 서비스, 가격만을
보는 게 아니라 기업이 만드는 사회적 가치를
함께 고려한다. 천진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좋은 기업은 흥하고 나쁜 기업은 힘을
쓰지 못하도록, 시민들이 기업을 관찰하고
견제하는 것이다.

우리는 가치지향적 소비로 나아가는 길에 있는 걸림돌 몇 개를 치워두려 한다. 희망제작소의 시민연구 지원 프로젝트 덕분에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가치지향적 소비에 대한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고 있다. 그러면서 ‘어라, 걸림돌이 돌멩이가 아니라 바위였네?’라고 생각한 날도 있었지만, 새롭게 배운 점도 많다.

가치지향적 소비, 이미 하고 계시네요!

총 76명의 시민에게 가치지향적 소비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 특정 기업의 제품을 불매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다수 시민은 불매한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불매를 생활화하고 있다는 답변도 23.7%에 달했다.

선행한 기업의 제품을 일부러 구매하기도 하느냐는 질문에는, 55.2%의 시민들이 긍정적 답변을, 그중에서도 11.8%는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두 질문을 통해 대다수의 시민분이 가치지향적 소비를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가치지향적 소비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 결과> 시민들은 불매 또는 구매에 있어 기업이 미치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고 있다. 사진제공 ⓒ 만점

걸림돌 발견, 정보 과잉에 의한 정보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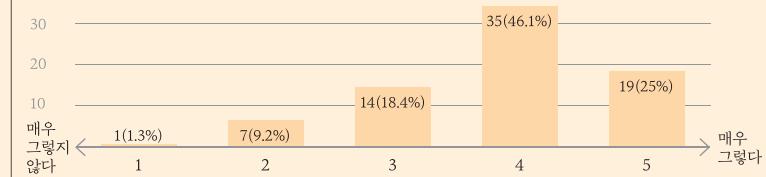
이미 시민들은 가치지향적 소비를 실천하고 있다. 그런데 ‘가치지향적 소비의 판단기준이 될, 기업의 행동에 대한 정보가 적절히 제공되고 있는 걸까’. 궁금했다.

시민들은 기업의 사회공헌, 갑질 등 행위에 대한 정보를 주로 신문 및 인터넷 뉴스를 통해 접한다(52.6%의 시민응답)고 밝혔다. 그러나 신문과 뉴스에서 접하는 정보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은 네 가지로 요약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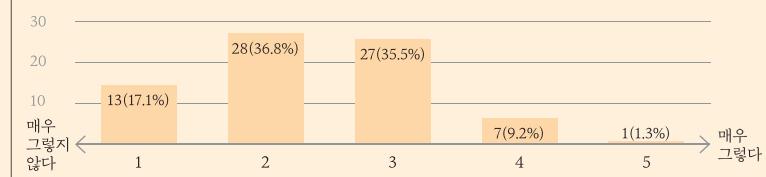
하나, 신문과 뉴스는 기업의 사건, 사고 등을 취재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준다(약한 긍정). 둘, 그렇기에 기업과 제품에 대한 많은 양의 정보를 생산해내는 매체라고 생각한다(강한 긍정). 셋, 그러나 무조건 기사 내용을 수용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신문과 뉴스는 기업의 광고를 받아 홍보 매체의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강한 부정). 넷, 그리고 뉴스와 신문으로는 사건의 원인, 후속대응, 결과 등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기 어렵다(약한 부정).

결국 ‘정보 과잉에 의한 정보 부족’이다. 기업에 대한 정보는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을 만큼 넘쳐난다. 하지만 믿을 수 있고, 전체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정리된 정보는 부족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쏟아지는 정보들은 유의미한 정보를 찾는 데 들여야 할 시간을 늘릴 뿐이다.

신문과 뉴스는 기업의 광고를 받아 홍보매체의 성격을 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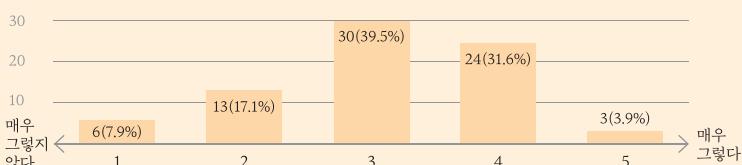
신문과 뉴스는 사건의 원인, 후속 대응, 결과 등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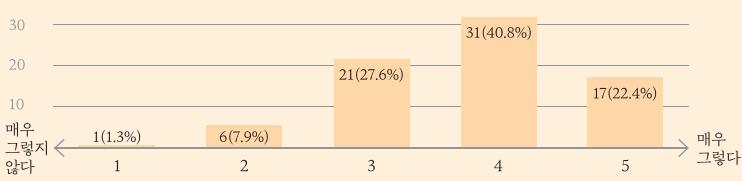
<가치지향적 소비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 결과> 신문과 뉴스 등 언론자료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들을 담고 있다. 사진제공 © 만점

* [분석 방법] : 언론 자료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5점 척도로 질문에 동의하는 정도를 물었다. 평균 3점을 기준으로 3점 이상일 경우 긍정 인식, 3점 이하일 경우 부정 인식으로 해석했다. 또한 긍정 및 부정의 강도를 측정하기 위해 “(긍정응답자-부정응답자)/전체응답자”를 지표로 사용했다. 해당 값이 -1부터 -0.5 사이의 값일 때 강한 부정, -0.5부터 0 사이의 값일 때 약한 부정, 0부터 0.5 사이의 값일 때 약한 긍정, 0.5부터 1 사이의 값일 때 강한 긍정으로 판별할 수 있다.

신문과 뉴스는 기업의 사건, 사고 등을 취재하려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준다.



신문과 뉴스는 기업과 제품에 대한 많은 양의 정보를 생산해낸다.



포털사이트에 기업명을 검색하면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정보들이 나열되지만, 그 속에서 소비자들이 기업에 관해 가치판단을 하기는 어렵다. 즉, 기업의 행동을 종합하고, 정보를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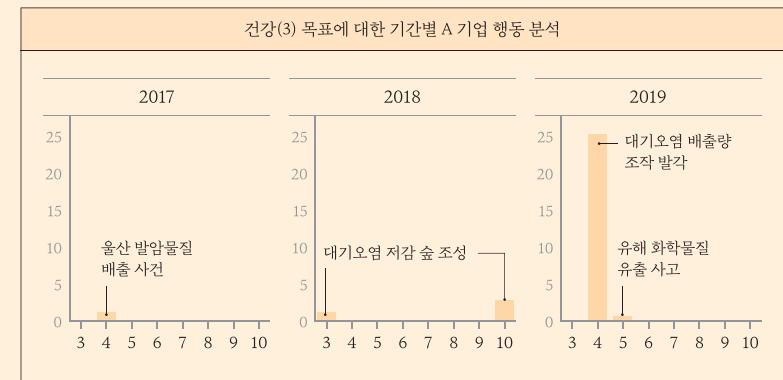
기업의 행동을 조사하고 정리해보자

우리는 건강, 일자리, 환경오염, 인권·정의 등 17개 기준으로 기업별 행동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언론에서 보도된 기업의 행동을 긍정과 부정으로 구분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래프를 그렸다.

기업은 청년 및 저소득 아동에 대한 교육 지원, 주거 지원, 에너지 효율 증대 및 친환경에너지 개발 등의 긍정 행동을 했다. 그러나 빌암물질 배출 및 대기오염 등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을 악화시켰고, 연속된 산업재해로 안전한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했다. 또 각종 뇌물, 비리 사건으로 인권·정의 부문에서도 부정행위가 다수 드러났다.



긍정과 부정 행동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 세부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도 살펴봤다. A 기업은 2017년 발암물질 배출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그 이후 2018년부터는 대기오염 저감 숲 조성하며 긍정 행동을 지속하는 듯했다. 그러나 2019년, 그동안 대기오염 배출량을 조작한 사실이 밝혀지며, 부정 행동을 나타내는 기사가 급증했다.



<기업행동 분석> 건강(3) 목표의 7번째 세부목표 “유해 화학물질, 대기, 물, 토양오염으로 인한 사망과 질병을 줄인다.”에 대한 A 기업의 행동을 기간별로 분석했다. 사진제공 ⓒ 만점

조금 더 나아가서

수많은 언론자료는 기업의 행동을 담고 있었고, 하나씩 되뇌어 보니 얼마 지나지 않은 사건·사고들이 기억 속에서 희미해지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시민연구 과정에서, 기업의 잘잘못을 알리고 점수를 매기는 등 가치지향적 소비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도 보았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해 언론자료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세부적인 사건들 까지 자료로 정리한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이성진 정책실장님, 그리고 영국의 4만여 개의 기업을 평가해 점수를 매기고 가치지향적 소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Ethical consumer’가 인상 깊었다.

가치지향적 소비에 관한 시민연구는 함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과정 그 자체로 우리에게 의미가 있었다. 생각만큼 수월하진 않았지만, 걸림돌이 어디에 얼마나 많은지, 또 어떻게 빼면 좋을지 고민하고 시도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조금 더 나아가자면, 언젠가는 우리의 과정과 연구 결과가 같은 관심을 가진 분들에게 가닿아 작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희망, (박재승, 장소정) 씨

시민연구자 박재승, 장소정(분노와노랑의 질주, 분노팀)
재승, 소정 씨는 인터뷰 내내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깊게 고민하고,
단어 하나하나를 소중히 골랐습니다. ‘페미시국’ 광장에 우리는 언제 모이고,
흩어지는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페미시국 광장의 사람들이
궁금해

[인터뷰]



장소정(위), 박재승(아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소정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요. 이것저것 공부할 것도 많지만 대학이나 대학공동체 내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을 함께 하다 보니 정신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도 공부한 걸 바탕으로 연구에 적용도 해보고 흥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재승 폐미니즘 운동이 일어났고, 여전히 대중 안에서 이어지고 있잖아요. 기존의 운동과 비슷한 것도 많은데 다른 지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경험에서 발견한 지점을 제가 학교에서 배우는 사회운동론과 어떻게 접목해야 할지 고민하며 보내고 있어요.

‘궁금한 김에 연구’를 해보니 어때요.

재승 대학원 들어가서 한 첫 연구가 ‘궁금한 김에 연구’네요. 신청했을 때보다 진행하는 지금이 더 좋아요. 신청했을 땐 한번 해보자는 마음만 들었는데 지금은 유의미한 연구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볍지 않은 마음이지만 그래서 더 좋은 것 같고요.

소정 자료수집이 간단할 것 같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기대했던 것보다 운동에 관한 정리된 자료가 적었고, 해당 집회를 하나하나 아카이빙하는 게 굉장히 품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도 계속 자료를 추가하고 뽑아내면서 정리하는 보람이 있고요. 무엇보다 좋은 선생님과 함께 연구하고 있다 보니 연구 질문이 그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함께 연구하는 사람과
숙성된 질문을 만드는 과정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어려운 점도 있나요.

재승 음. 뭐가 어려울까요. 현장 중심 연구이다 보니 이론이랑 접목할 때요. 주최측 질문지를 설계하는 데 이론적 검토를 얼마나 해야 할까, 운동의 과정을 이론적으로 연결할 수 있을까, 내부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건 아닐까 등을 고민하는 것 같아요. 또 운동의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 주최측과 참여자 구분이 어렵기도 한데요. 주최측이자 활동가로서 온 사람은 어떻게 봐야 할지, 순수 참여자라는 말을 써야 하는지도 고민합니다. 근데 크게 걱정하진 않아요. 경계 지점을 발견했으니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소정 누구를 연구할 것인가. 이 연구가 왜 필요한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연구인가 끊임없이 생각해요. 늘 명확하지 않고 모호한 데다가 때론 불안하기도 해요. 심리적인 불안감이 제가 볼 수 있는 것들을 좁히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하는 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도 연구하면서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재승 어떤 시위는 가는데 어떤 시위는 가지 않는 것. 그 동기를 발견하고 나에게 닿는 시위가 무엇인지 그려보는 사람이 많으면 좋겠는데요. 이 지점을 소정 님과 함께 연구하고 회의하는 게 좋아요. 전 회의를 길게 하고, 아이디어를 심층시켜 나가는 걸 좋아하는데, 다른 분들은 힘들어하거든요.

소정 저도 공감해요. 아, 그리고 페이스북 자료정리 작업을 하던 중 일일이 Ctrl+C, V로 복사해 붙여넣는 작업이 너무 눈이 아프고 힘든 거예요. 거의 저와 의자가 하나가 되어 훌러내리기 일보 직전까지 이르렀는데 그렇게 버티고 버텨서 모든 데이터를 쳤답니다. 그리고 모든 결괏값이 그래프로 딱 정리됐는데 제가 예상한 지점과 흡사하게 똑 떨어지는 결과를 보고 소름..(웃음)

“페미니즘의 경우
일상 의제와 가까이 닿아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광장에 모이고 흩어지는 배경을 연구하고 있는데
알게 된 점이 있나요.

재승 원인 분석은 진행 중인데요. 페미니즘의 경우 일상 의제와 면밀히 닿아 있는 게 아닐까 추측합니다. 나의 정체성, 일상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참여자가 모이는 것을 보면서 페미니즘이 저변에 깔린 일상 정치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소정 이론적 검토를 하면서 ‘긴장-붕괴 이론’을 발견했는데요. 사회의 긴장과 사회적 붕괴가 존재할 때 사회운동이라는 형태로 발발한다는 것으로 사회운동을 문제라고 보는 이론적 입장인데요. 최근엔 이론이 후퇴하고 ‘사회운동의 사회’가 조명받고 있어요.

자세히 설명해주신다면요.

재승 이론으로만 배운 내용이 실현되는 지점을 찾았는데요. 페이스북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된 운동단체와 개인들이 이 네트워크를 보여줬어요. 광장의 사람들은 단 하나의 문제에 대해 단 한 번만 모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페미시국 광장의 의제들은 다른 단체들에서도, 다른 시점에도 문제제기가 됐어요.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테이블 위로 올리는 이유는 이 내용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관계를 찾아가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저희가 빙산의 일각만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후속 연구가 이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연구란 항해, 항해 중
마주하는 깊은 공백은
사유할 기회가 됩니다.”

“연구란 세계관, 나와 너의
세계를 설명할 수 있는
언어가 생기는 것”

재승 페미시국 광장의 주최 단체 중에 지인이 있고, 저도 시위에 참여했기에 연구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관계망이 없었다면 이 연구는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 세대를 ‘영영 페미니스트’라고 하는데 함께 맷은 커뮤니티에서 암묵적인 믿음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고, 그러므로 사람들을 만나 인터뷰할 때 촘촘하게 설계하고, 관계에 대한 조심스러운 마음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인터뷰 질문지 설계가 어렵진 않았나요.

재승 다행히도 재밌었습니다!

소정 전 너무 어려웠어요. 정말정말 어려웠어요. 모조리 물어보고 싶은데 시 간적 한계가 있고 굉장히 많은 답을 끌어내야 하기도하고.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흘러간 게 있나요.

소정 명칭만 다를 뿐 시민사회에서 작동하는 움직임은 굉장히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사건에 대한 일회성 운동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자료를 찾다 보니 수많은 운동이 연결되는 점은 어디인지, 어디가 다른 것인지 명확하지 않았어요. 초반엔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게 페미시 국광장이 전부라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가시적으로 이름을 내걸었던 것은 페미시국 광장이 거의 유일했지만, 전부는 아니라서 날카롭게 분석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연구가 끝나면 어떨 것 같아요.

재승 단언일 수도 있는데, 페미니즘 운동이 기존 운동과 어떤 점이, 어떤 형태로 다른지 연구한 논문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걸 알고, 연구를 시도해본 것만으로도 성취감을 얻을 것 같아요.

소정 인터뷰가 끝났을 때 제 모습이 사실 제일 궁금해요. 언제나 인터뷰를 끝

낼 때마다 ‘아. 이걸 질문할걸, 이걸 추가했으면 다른 답이 나왔을 텐데’ 하는 후회에 가끔 이불킥을 날리는데…그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고 나면 제가 얼마나 성장해 있을지 궁금해요.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의 언어를 빌리지 않고
사고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연구 아닐까요?”)

시민은 왜 연구를 해야할까요.

재승 언어를 갖게 되니까요. 언어는 여성일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돈이 없을 수록 많이 갖지 못하는 자원인듯해요. 내가 바라보는 세상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별로 없는 거죠. 언어를 만들어내는 작업이 학문연구이지만, 학문에만 머물려 있으면 안 된다고 봐요.

소정 살면서 겪는 문제가 많잖아요. 그 문제의 대부분은 다른 문제와 엮여있거나 나의 또 다른 경험, 혹은 다른 관계와도 연결돼요. 수학 문제처럼 딱 떨어지는 공식이 아니니까요. 하나하나 뜯어내는 게 불가능한 문제들에 대해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찾아가는 과정이 조금 더 명확하게 문제를 뜯어보는 시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을 배우면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시민들이 삶 자체를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연구란? 온갖문제연구란?

재승 연구란 세계관의 확장. 나의 세계를 너의 세계를 또는 나와 너의 세계를 설명할 수 있는 언어가 생기는 것, 온갖문제연구는 제약 없는 250만 원. 정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연구비는 진짜 연구를 할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소정 연구란 항해. 바다에 둉 등 떠 있는데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니 일단 내가 있는 곳부터 알아야 하죠. 그다음 어디로 가야 할지가 보이고, 가끔 날씨가 궂으면 나아가기는커녕 외딴곳으로 밀려가기도 하고요. 흐름을 잘 타면 손쉽게 도착지에 다다를 수도 있죠. 항해 중 마주하는 깊은 공백은 제가 고민하고 사유할 기회가 돼요. 항해가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무모하게 끼어 들어가기엔 감수해야 할 게 너무 많아요. 배를 몰기 전에 이 항해의 끝을 책임질 식량조차 없이 출발하기엔 너무 두려운 거죠. 지금은 지원금 250만 원 덕분에 항해를 벼틸 수 있겠다. 위안을 얻으며 연구하고 있어요.



보고서 읽기

필연(必然)의 운동: 90년대생의 페미니즘운동

- 시민연구자 장소정

“조선일보 폐간하라”라는 문구가 흔들리지 않던
조선일보 건물을 뒤덮었고 나의 SNS엔
친구와 함께, 동료와 함께 붉은 머리끈을
동여매고 나선 인증사진이 피드를 가득 채웠다.
7월 12일부터 9월 28일까지 두 달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어진 페미시국광장이 보여준
모습들이었다.

1997년생인 나에게 거리로 뛰어나가 목소리를
외친다는 건 필연인지도 모른다. 2014년엔
나와 동갑인 친구들이 가라앉는 와중에도
수능영어기출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외치는
어른들 틈에 진절머리가 났다.

행동할 용기는 없고 숨은 탁탁 막혀와서 친구들의 손을
부여잡고 매일같이 어떤 감정인지 모르는 수많은 감정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2016년 그 감정이
분노이고, 공포이고, 두려움이었다는 걸 찾아가면서
대학교에 입학해 1년을 보냈다.

그러던 중에도 강남역에서 누군가 살해당했으며 고등학생
때 미처 말하지 못한 성폭력 사건이 공유됐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호소하던 주변인은 생사의 길목에 섰다.
그 모든 시간을 거쳐 2016년 말에는 먹먹한 마음을
풀어내기라도 하듯 광화문에, 시청에 우리는 모여들었다.

2016년 촛불집회는 정권을 교체해내는 쾌거를 이뤘지만,
우리의 분노와 먹먹한 응어리는 여전히 남아 사라지지
않았다. 2018년 미투운동은 언어화되지 못한 수많은
성폭력 사건들을 수면 위로 떠올렸지만 동시에 문제
해결이 절대 쉽지 않다는 절망을 느끼기도 했다. 풀어지지
않는 응어리진 마음들은 모이고 모여 다시 우리를 시위
현장으로 이끌었고 우리는 광장에서, 길거리에서, 학교
동아리에서 그렇게 다시 만났다.

누군가는 사회운동의 사회라고 말한다. 사회운동이 사회
내에 하나의 영역(sector)으로 자리 잡아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창구가 될 수 있다고 전한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의 목소리가 과연 사회에서 하나의 영역을 구성할
만큼 견고한가’라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답할 것 같다.

사회운동이 일상이 된 사회에서조차 일반 시민이 남성으로
상정된 이상 여성의 목소리는 배제되거나 타자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운동의 불씨가 없었다는 것은 아니다.
한국 사회에서 성폭력에 대한 고발과 남성권력카르텔에
대한 문제 제기는 폐미시국광장 한참 전부터 이뤄졌다.
폐미시국광장 이전에도 오랜 기간 고발의 역사가 있었고,
저항의 역사가 있었으니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다.

성폭력 문제는 친한 몇몇 사이에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기도 했고, 피해자들은 용기를 내어 언론을 향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역사가 뿌리 깊은
남성 중심의 권력을 뽑아내기에는 그 권력의 뿌리가
너무나 견고했다.

사회학자 래вин 코넬은 안토니오 그람시가 재정립한
헤게모니 개념을 빌려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제안했는데
이 권력의 뿌리를 이해하기에 적합한 개념이다.
헤게모니는 개인이 벗어나고자 해서 쉽게 벗어날 수 없고
벗어나기 위해서는 저항이나 협상을 통해 대가를 치러야
한다. ‘헤ge모니적 남성성’은 이들이 쉽게 벗어날 수 없도록
사회 전반적으로 성별 역할 및 지위에 관여하고 기존의
가부장제와 남성중심적 권력 체계를 유지한다.

1990년대생에게 이 헤게모니는 일생에 거쳐 강력하게
작동했다. 그러나 2014년, 2016년, 2018년에 걸쳐
헤게모니가 ‘평화롭게’ 굴러가기 위해 탄압과 폭력이
전제한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화했다는 게 90년대생의
특징이다.

앞서 언급했던 무수히 많은 사건과 90년대생보다 앞서
길거리에서 사회운동을 이끌었던 사람들의 역사는
작거나마 90년대생에 저항의 썩을 틔웠다. 학교에 다니며
문제가 무엇인지 고민한 또래는 동아리를 만들거나 주변
지인들에게 이야기를 털어놓으면서 연대를 이끌어나갔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전진했다.

그렇게 사회운동을 체화한 세대에게 열 개의 제는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90년대생 여성으로 살아오면서 느꼈던
응어리를 토해내는 광장이었다. 응어리와 공명하는
지점을 명확하게 포착하고 그 문제의식을 기준의 집단과
공유·연대하면서 사회운동은 일상이 됐다.

과연 어떤 삶을 살아온 것일까. 공유된 토대 위에서 개인이
각자 쌓아 올렸던 경험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무엇에
공명해 이들은 시위에 참여했는지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감정과 경험을 어떻게 체득했는가에
따라 폐미시국광장의 원동력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응어리져있는 우리의 감정들, 우리의 경험을
펴내고자 한다.

희망, (김명애, 백성희, 정란) 씨

시민연구자 김명애, 백성희, 정란(김명애팀)
명애, 성희, 란 씨는 유쾌한 에너지를 뿜어냅니다.
원래 명애 씨 혼자 연구를 시작했다가 두 명의 연구자가 합류해
탈북 청소년이 남한에 잘 적응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탈북 청소년의 내일이
궁금해

[인터뷰]



김명애

어떻게 지내셨어요.

명애 바쁘지만, 의미 있는 바쁨이었습니다. 중국에도 다녀오고, 강연도 하고, 탈북 청소년과 만나기도 했고요.

란 저도 함께 다니며 바쁘게 지냈고, 대학원 진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희 저도 본업인 간호학 강의도 하고, 작은 모임에도 참여했어요.

‘궁금한 김에 연구’ 해보니 어때요.

명애 막상 해보니 시민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연구를 기대하는 것 같았고, 이런 점이 제겐 신선하고 유쾌하게 다가왔어요. 연구라는 게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즐겁게 느끼도록 만든 희망제작소에 감동했어요. 평소 궁금한 주제였지만 실제로 연구해보니 어려운 점이 있네요. 우리가 하는 연구 대상자가 탈북 청소년이고 그중에서도 잘 적용한 청소년이기 때문에 긍정적 요소를 찾는 게 쉽진 않거든요. 조금 어렵지만 한 단계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희 희망제작소를 만나면서 연구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연구를 할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또 다른 연구자도 만나고 신선한 연구 방법과 다양한 접근 방식을 배우는 것 같아요. 어떤 누군가에겐 도움이 되는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고 믿으며, 또 그것만으로 가치가 충분하다고 믿으며 연구를 하고 있어요.

연구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나요.

성희 제가 평소에 쉽게 만날 수 있는 대상자가 아니라서 접근이 어려웠어요. 탈북학교 청소년이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은 상황이고, 한꿈학교 교장 선생님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거든요. 남한에 적응한 사례를 모두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한 요소를 찾아 청소년에게 적용해보고 싶습니다.

“연구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 맷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탈북 청소년들이 자신의 언어로
솔직하게 말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 명애 맞아요. 탈북 청소년들은 신뢰 있는 사람이 함께 있을 때 이야기를 꺼내곤 해요. 한꿈학교 선생님을 인터뷰하는 것도 맥락이 있죠. 처음 라포(rapport: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기는 상호신뢰 관계를 말하는 심리학 용어)를 형성할 때까지 선생님과 청소년을 만나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연구에서 관계 맷는 건 생각한 만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 성희 저도 모르게 갖고 있던 선입견이나 편협한 사고로 인해 청소년들이 마음을 닫아버리게 않도록 사전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조사하며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실제 만난 탈북 청소년이 겪는
차별의 경험은 어떤가요.

- 명애 말투, 옷 입는 스타일까지 다양한 차별을 겪고 있죠. 아르바이트해도 어디 사람인지 물고, 북한에서 왔다고 하면 차별의 시선을 던지고요.

차별의 경험이 쌓이는 거네요.

- 명애 그렇죠. 이러한 경험이 쌓일수록 말하는 걸 피해요. 우리가 평소 대화할 때 외래어나 의미가 다른 단어를 쓰니까 알아듣기 어려울 수 있는데 다시 질문하지 않는 청소년도 있어요. 또 차별을 받을까 봐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사회에 차별의 분위기가 만연한 것 같아요. 차별받는 사람보다 차별하는 사람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연구란
내가 평생 해야 할
사명”

“연구란 이론에 그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씨앗”



“연구란
호기심이요!”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생긴 일화가 있었나요.

한 북한 청소년을 만나 일상을 나눈 적이 있거든요. 휴대전화 사용법, 지하철 이용법 등을 알려주기도 했고요. 서로 사용하는 단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간단한 건데도 막상 알려주려고 하니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무언가를 교환한 게 떠오르네요.

명애 한꿈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제게 전년 이야기가 있어요. ‘북한 아이들은 진실하게 말하는 걸 어려워하고, 사람을 잘 믿지 않는다’고요. 학교를 잘 다니다가 갑자기 안 나오기도 하고요. 제가 수업하면서 만난 탈북 청소년 세 명을 집에 초대한 적이 있었는데 막상 그날 나타나지 않기도 했고요. 진실하게 말하지 못하고, 사람을 잘 못 믿는다고 하셨지만 어떤 이유로 북한 청소년이 망설이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어요.

(“탈북 청소년은
남한에서 힘들게 살 거라는 프레임 자체를
경계해야 해요.”)

탈북 청소년이 남한에 잘 정착한 사례를 찾아
다른 누군가 활용할 수 있도록 돋고 싶다고 하셨죠.

명애 2019년 8월에 탈북 모자 사망 사건을 기점으로 이대로 둘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한에서 탈북자라고 하면 불쌍하다는 시선을 던지고, 힘들게 살 거라는 프레임을 바로 덧씌워버려요. 실제 힘들게 사는 사례가 있지만, 그러한 프레임 자체는 경계해야 한다고 봐요.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탈북 청소년에게 프레임을 벗어나 긍정적인 요소를 알려주고 싶어요.

한 저도 동의해요. 희망제작소에서 열린 온갖문제연구 워크숍인 ‘온갖연구 실험실’에서 만났던 누군가의 말이 떠오르는데요. ‘저는 차별 받지 않았



백성희(위), 정란(아래)

어도 차별의 현장을 보고, 들었다면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해요'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저 역시 탈북 청소년이 겪은 차별을 받거나 몸소 겪은 건 아니지만 개선해야 한다고 봐요. 이를 위해서 누군가 시작해야 하는데 그 누군가가 타인이 아니로부터였으면 좋겠어요.

성희 남한에 정착해서 겪는 부적응과 관련된 연구는 많이 나와 있거든요. 오히려 잘 정착한 긍정적인 사례를 찾아서 정착을 돋는 효과적인 프로그램 까지 만들고 싶어요.

“바람직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지나쳤던 현상을 더 깊게 바라보게 만드는 연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시민은 왜 연구를 해야 할까요.

명애 연구자의 마음으로 사물을 보는 것과 그냥 지나가는 마음으로 보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연구자가 되면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 옳지 않다를 고민하게 돼요. 희망제작소의 ‘궁금한 김에 연구’에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 연구를 고차원적으로 하면, 사실 읽기도 쓰기도 싫잖아요. (웃음) 연구라는 게 알아들을 수 없게 쓰고, 볼 수 없는 숫자로 쓰는 게 아니라 걸 희망제작소가 보여준 것 같아요. 이렇게 연구를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더 공부하고 싶어서 석·박사를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연결될 것 같아요.

란 ‘온갖연구실험실’에서 나왔던 예시 연구 주제를 보면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의견을 낼 수 있겠구나’ 하고요. 연구를 거창하게만 배웠는데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느꼈고요. 이런 연구라면 정말 누구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희 시민은 사회 구성원이자 사회가 바람직하길 바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시민이 사는 사회가 평등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점에서 바람직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지나쳤던 현상을 더 깊게 바라보게 만드는

연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연구란, 온갖문제연구란, 희망제작소란.

명애 연구란 내가 평생 해야 할 사명. 연구자로 살고 싶어요. 교수도 그만둘 수 있고, 직함은 사라질 수 있지만 ‘연구자’는 영원할 것 같아요. 어디서든 연구하고 싶고 평생 연구자로 살고 싶습니다.

란 연구란 호기심이요.

성희 연구란 도움의 시작, 이론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의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애 온갖문제연구는 가장 신선한 충격, 그리고 따뜻함. 연구가 차갑게 느껴질 때가 많았는데, 온갖문제연구를 하면서 연구가 긍정적이고 따뜻하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희망제작소는 삶의 일부. 오장칠부. ‘뉴스레터’를 보면서 이런 곳이 있구나’ 하고 보기만 했어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곳’이라고 보았고요. 이렇게 제대로 ‘상관있는 곳’이 될 줄 몰랐어요. 이제는 제 삶의 일부, 오장칠부 같이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성희 ‘온갖문제연구’는 이웃. 뉴스에 나오진 않지만, 옆집에서 들리는 이야기 같습니다. ‘희망제작소’는 꼭 필요한 곳. 옆집의 문제에 희망을 만들어 주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란 ‘희망제작소’는 “푹”, “푹” 연구하는 게 즐거워서 “푹” 소리가 나고 연구하는 게 재밌어서 “푹” 빠지게 한곳!



보고서 읽기

탈북청소년이 남한에 '잘' 적응하려면

- 시민연구자 정란

이번 연구를 진행하며 공동체 의식에 관해 생각했다. 공동체란 소속감과 안정을 대표하는 사회적 구성에 기본 관념이다. 이와 관련해 인간의 기본욕구 중 소속과 안정의 욕구에 대한 결핍은 상위욕구를 향하는 열정마저 사그라들게 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제3국을 통해 남한으로 넘어오려는 욕구는 생존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들이 남한에 정착하는데 필요한 두 번째 욕구는 소속과 안정감이다. 그렇기에 하나원에서 사회화를 위한 교육 교육을 받고, 세상에 나오게 되었을 때 얼마나 큰 벽참과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을지 탈북청소년과의 대화에서 알 수 있었다. 간접적으로 겪은 경험담으로는 그들의 감정을 고스란히 글로 읊겨쓸 수 없을 듯하다. 그간 탈북이라는 단어에서 느껴지는 거리감은 청소년기 탈북민과 교류하면서 나에게도 그들을 향한 선입견이 있었음을 깨닫게 했다.

또 그들은 유학생과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가깝고도 먼 북한 땅에서 다른 문화와 교육을 받았기에 사상과 가치관이 우리와는 완전히 다를 것 같았는데 실제 만난 탈북청소년은 새로운 문화를 동경하고 또 받아들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한국문화에 하루빨리 적응하고 싶지만, 방법을 몰라 헤매는 여느 유학생들과 다르지 않았다. 그래서 어쭙잖은 나의 설부른 통찰력과 무분별한 조언은 그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행에 신중함을 기하고, 젊은 연구자의 장점으로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과 관련해 정보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했다.

그러나 이것 또한 나의 자만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난 왜 그들이 우물 안 개구리와 같다는 여기며 정보를 주어야 하는 대상으로 느꼈을까. 정작 우물 속에 있던 사람은 연구자 나 자신이었음을 알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든다.

탈북청소년은 나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하고 확고한 자아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에 그들과 만난 모임에서, 그리고 나눈 대화에서 자아 성찰을 하며 발전을 꾀했고, 그들에게 소속의 안정감을 주려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하고 접근하기로 했다.

탈북청소년이기에 최신 추세에 민감하고 빠르게 흡수할 수 있을 거라고 본 것은 나만의 착각이었다. 처지를 바꿔 생각하면 나 역시 외국에 나가서 그곳의 경향과 유행을 따라가기엔 분명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강점을 찾아주는 것으로 방향성을 잡았다.

빨갛게 머리를 물들인 남자 탈북청소년은 탈북한 지
갓 1년이 지났을 때였다. 북한식 말투와 억양이 강해
나서서 말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듯 보였다. 그래서 그가
관심을 가질만한 정보를 공유하며 자연스럽게 대화의
폭을 넓혀나가다 보니 교우관계에 문제가 있어 한국에 온
이후 학교를 여러 번 옮길 수밖에 없던 사연을 자연스럽게
털어놓았다.

이를 통해 탈북청소년과 정감 어린 교감을 했고,
탈북청소년이 아닌 평범하게 청소년기를 겪고 있는
고등학생의 멘토가 되어 편안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대화를 통해 “우리”, “함께”라는 소속감을 심을 수 있었다.
또 다른 친구는 같은 여성이라는 성별을 앞세워 진학과
결혼, 육아에 대해 소탈하게 이야기를 나눴고, 미래에
대한 생각과 가치관을 공유하며 연대감을 가질 수 있었다.
이외에 꿈과 관련해 현재의 불안함과 이를 해소하는
방법을 나눴고, 탈북이 약점이 아닌 강점이 될 수 있다며
힘을 북돋웠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 거창하게 생각했던 연구과제는
생각 외로 단순한 문제로 다가왔다. 소속감과 안정은
협회나 단체를 통해서만 충족되는 게 아니라는 걸
새롭게 발견했다. 개인적으로 연구라는 거창한 단어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막연함이 있었다. 나의 관심과
호기심에서 시작된 문제점이지만 풀어내기엔 너무 큰
과제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과제를 수행하면서 위대한 발명은 대부분
호기심이 계기가 되어 시작되었음을 다시 깨달았다.
그러한 호기심으로 연구를 시작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무척 감사함을 느낀다. 연구주제가 포괄적이지만 대상자를
선정함에는 어려움이 큰 연구다. 탈북이라는 특성상
가명을 사용하는 사람도 많고, 특히 청소년기를 겪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 어려움이 커다.
이번 연구로 즉각적인 변화를 도모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건 그들의 삶에 있어서 소속과 안정은 다음 욕구와
자아 성찰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 자부한다.

‘2019 온갓문제연구-궁금한 김에 연구’를 통해 시민 연구자를 지원했습니다.

나와 나를 둘러싼 사건과 사회 이슈에 대해 궁금한 마음으로만 그칠 때가 많습니다. 궁금증에서 탐구로, 탐구에서 기록으로 과정을 거칠 때에 연구가 시작되는 것인데 말이죠. 희망제작소는 연구의 장벽을 낮추고 모든 시민이 연구자가 되는 시대를 꿈꾸고 있습니다. 연구라는 단어가 주는 어려움으로 여전히 불가능하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시도하고 싶습니다. 궁금한 주제가 있는 분에게 연구 비용을, 연구가 낯선 분에게 과정을 지원한다면 정말, ‘모든 시민이 연구자가 되는 시대’가 올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9 온갓문제연구-궁금한 김에 연구>는 궁금증이 탐구로, 탐구가 연구로 이어지는 모든 연구의 시작을 지원한다는 콘셉트를 내세우며 출발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재개한 ‘온갓문제연구’는 궁금한 주제를 연구하고 싶은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연구비 최대 250만 원 3개 팀 또는 개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 함께 한 시민연구자들은 남자 청소년 성교육, 청년 라이프스타일 설계, 반려동물 방재 프로젝트를 연구했습니다.

<2019 온갓문제연구-궁금한 김에 연구>에서는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끝까지 다양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지점을 만들고자 시도했습니다. 선정과정은 시민연구자 간 그룹 인터뷰를 거쳐 최종 시민연구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프로젝트에 선정된 시민연구자에게는 연구비를 지원하지만, 프로젝트에 아쉽게 선정되지 않았던 분들과 연구가 낯선 시민분들을 초대해 연구 방법론을 배우고 나누는 열린 워크숍 ‘온갓연구실험실’을 열었습니다. 전 과정에서 시민연구자들은 일방적으로 평가받기보다 서로 연구 주제와 내용을 나누도록 구성했습니다.

시민연구자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한 시민연구자는 “하고 싶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좋은 비밀 언덕이 되어주어서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또 다른 분은 “연구란 나와 전혀 상관없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제대로 상관

있을 줄 몰랐어요”라는 말을 전해 들었거든요. 희망제작소의 작은 시도가 근사한 변화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제작소는 <2019 온갓문제연구-궁금한 김에 연구>를 통해 만든 변화처럼 앞으로도 연구의 의미를 ‘제도권 안의 학습’에서 ‘자유로운 학습’으로 위치를 옮기고, 연구 과정에 소외와 배제가 일어나지 않는 사회를 실현하고자 시민연구자 지원 프로그램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손혜진 정책기획실 연구원



(시민이 참여합니다)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사회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
현장을 누비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희망, (김다빈, 김진호, 이선영) 씨

프로젝트 진행자 김다빈, 김진호, 이선영
세 명의 청소년 다빈, 진호, 선영 씨는 청소년 진로탐색사업
'2019 내-일상상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지역에서 자신만의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면서 '어떤' 즐거움을 느꼈다.

“그냥 뭔가 얻는 게 있어요.”

[인터뷰]



김진호, 이선영, 김다빈(사진 위부터)

'2019 내-일상상프로젝트'의 마무리를 앞둔 한 해의 끝자락, 남원역 근처 한 카페에서 세 청소년을 만났다. 남원 지리산에서 한 해 동안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다빈(인월중학교 1학년), 선영(산내중학교 3학년), 진호(인월중학교 2학년)는 약속이라도 한 듯 조곤조곤한 말투로 서로의 근황을 전했다. 세 사람의 담백한 이야기 속에 지난 프로젝트의 순간순간이 겹겹이 녹아있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요.

10점 만점으로 기분에 점수를 매긴다면요.

진호 7점이요. 시험이 끝나니까 좋기는 한데요. 이제 중3이 되니까 괜히 마음이 좀 그래요.

어떤 게 마음에 걸려요.

진호 뭘 준비해야 하는 건지 모르지만, 고등학교 가려면 뭘가 해야 할 것 같고 그런 기분이 들어서 7점이요.

선영 저는 9.5점. 얼마 전에 산청에 있는 간디학교 계절학교에 참여하고 왔어요. 거기 가서 선배들을 만났는데, '이 학교다' 싶은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급하게 원서 준비하고, 입학까지 하게 됐어요. 이제 중3 마지막 시험 까지 끝나서 조금 훌가분하게 학교 축제 준비하고 있어요.

다빈 전 좀 다른 것 같은데… 평소엔 8점. 드라마 <싸이코패스 다이어리> 볼 땐 10점이요.(웃음) 아직 1학년이어서 그런가. 학교에서도 요샌 주로 놀아요. 학교가 자유학기제라서 시험도 안 보거든요. 다른 학교는 시험 보는 데 암벽 타려 다니기도 하고.

('누구네 자동차인지'까지 알 만큼
가깝고도 가까운 동네)

지금 사는 동네는 어때요.
이런 게 좋거나 아니면 아쉬운 게 있나요.

진호 일단 밤공기가 좋고, 동네가 조용해서 좋아요. 근데 사람이 적으니까 밤에는 좀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한 번은 학교에서 애들끼리 있다가 새벽에 집에 돌아간 적이 있는데, 사람 없는 데서 걷는 것도 무섭고,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까지 고장 나서 완전 소름 끼쳤어요.

선영 남원 자체도 그렇지만 인월면과 산내면은 인구가 정말 적어요. 길 가다 만나는 사람은 거의 다 알아보거든요. 저 차가 누구네 집 차인지 딱 알고, 이름은 잘 몰라도 얼굴 정도는 대충 알죠. 다 알 만한 사람들이라서 편안한 건 있어요.

다빈 저도 남원에서 오래 살아서 유치원 때부터 봤던 친구들이 많아요. 여기는 중학교도 몇 개 없고 고등학교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유치원 때 친구들이 중고등학교까지 계속 이어지거나 만날 수밖에 없거든요. 쭉 같이 알고 지낸다는 게 편해요.

전반적으로 좋다는 거네요. 혹시라도 아쉬운 게 있나요.

다빈 음… 아, 저는 그거. 제가 순대국밥이 먹고 싶어서 혼자 국밥집에서 밥을 먹었던 적이 있는데, 학교 담임 선생님이 딱 들어오시는 거예요. 어색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밥 대충 먹고 나가는데 인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고민하게 되던 거. 그건 아쉽네요. (웃음)

만날 일 없을 것 같았던 우리,
진로탐색 프로젝트로 뭉치다

‘내-일상상프로젝트’에는 어떻게 참여하게 됐어요.

다빈 당시에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게 많았어요. 학교 선생님이 추천해주시길

했는데, 뭔가 의견을 내보고 하고 싶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커어요.

선영 저는 엄마가 먼저 소개해줬는데, 제가 그게 대체 무슨 프로그램이냐고 꼬치꼬치 캐물었거든요.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해 진행한다는 점, 그리고 주제와 내용을 우리가 알아서 만든다는 것에 꽂혀서 해보기로 했어요.

처음에 친구들 만났을 때 어땠어요.

선영 어색했죠. (웃음) 저는 일단 애들이랑 학교가 달랐거든요. 그런데 함께 활동하면서 애들이 의견을 너무 잘 받아줘서 재밌게 한 것 같아요.

다빈 ‘중1이 나밖에 없나’하고 처음에는 조금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합이 잘 맞는 느낌? 길잡이 선생님들이 잘 도와주신 것도 편하고 좋았어요.

학교와 별개로 따로 시간을 내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게 쉽지 않죠.

진호 프로젝트 참여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뭔가 어렵거나 불편한 건 없었어요. 시험 기간은 피해서 일정을 잡고 친구들을 만나기도 했고요.

선영 중3이어서 그런지, 고등학교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항상 약간 불안감이 있긴 했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성적이 높은 편이 아니라서 마음 놓고 했어요.(웃음)

저마다 다른 관심과 진로를
하나의 프로젝트로 엮어보는 경험

다빈과 선영이 함께 한 <퀼트>는 팀 이름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들었어요.

선영 퀼트라는 게 여러 조각을 모아 꿰매 만드는 거잖아요. 처음에 프로젝트

하겠다고 가보니까 좋아하는 것도 관심 있는 것도 너무 다른 사람들이 한 팀에 모인 거예요. 각자 관심 있는 곳 찾아서 팀이 찢어질 수도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각자 다른 의견을 한데 모아서 주제를 가진 하나의 작품 같은 것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싶었어요.

다빈 먼저 서로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포스트잇에 자유롭게 적어봤어요. 그중 영상을 찍어보자는 의견, 굿즈를 제작하자는 의견을 가져와 마을이라는 큰 주제 안에서 두 가지 활동을 만들어보기로 한 거죠.

선영 최대한 크고 다양한 구성품을 활용하고 싶었는데 조립에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더라고요. 한두 번 모이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2분짜리 영상을 만들기 위해 사진도 100장 넘게 촬영하고 밤늦게까지 편집하던 게 기억에 남아요.

<응답하라2005>팀도 못지않게 특이해요.

진호 저희 팀원 7명이 모두 2005년생이거든요. 우리가 지역에 있는 2005년생들 다 모아서 마을 안에서 뭔가 재밌는 일을 작당해보자는 생각으로 시작했어요. 사실 같이 놀기 위해 모인 것이기도 하죠.(웃음)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했나요.

진호 지리산 지역특산물이 사과랑 포도인데, 이걸 홍보하는 방안으로 사과를 골라 잼을 만들었어요. 직접 만들어서 인월시장에 나가서 팔았어요. 잼을 팔아서 번 돈으로는 마을 담벼락에 벽화를 그렸고요. 벽화 그릴 때는 담벼락 주인 할머니가 처음에는 약간 불안해하는 눈치를 보이셨는데, 마지막에 완성된 거 보고 정말 좋아하시며 사진도 찍으시더라고요.

프로젝트 진행하며 정말 힘들거나 어려웠던 순간이 있었나요.

선영 스톱모션 영상 편집하느라 거실 구석에 박혀서 늦게까지 컴퓨터 붙잡고 있었던 것. 진짜 성장판 닫히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영상만 만들었던 시간이었어요.



다빈 프로젝트 하면서 내내 걱정한 건 레고 조립하는 걸 제안한 사람으로서
‘이 레고를 완성하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뿐…

진호 사과쨈 만드는 게 연습할 땐 꽤 잘됐는데 실제로 사과 20kg 박스를 직접
계량하면서 잼을 만드는 게 쉽지 않았고요. 잼을 팔려고 시장상인회에
갔는데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상인회 연락처를 물어보려고 근처 면사
무소에 갔는데, 면장님의 우연히 저희 얘기를 들더니 도와주시겠다는 거
예요. 그래서 면사무소에서 벽화 페인트 140만 원 어치 재료랑 도구까지
지원해주셨어요. 훤히 도와주셔서 놀랐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딱 하나 꼽는다면요.

진호 벽화 그리는 게 진짜 재밌긴 했는데,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을 때라 손도
시리고 귀도 시리고 진짜 추웠거든요. 너무 너무 추웠던 그 날. ‘드디어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다빈 태풍 링링이 와서 비바람이 치던 날, 산내 공간에서 레고를 만들려 가고
있었는데, 잠깐 버스에서 내려서 사 먹은 고구마말랭이가 너무 맛있었어
요.

‘내-일상상프로젝트’에 참여할지 말지 고민하는 친구가
이 인터뷰를 본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나요.

진호 그냥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프로젝트 하면서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고, 면장님도 만나고, 이거 아니었으면 친해지지 않았을 산내 친구
들이랑도 친해졌거든요. 관심 있는 거나 하고 싶은 활동을 다양하게 경
험할 수 있다는 건 분명해요.

선영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무조건 즐겼으면 좋겠어요. 즐겨야 뭐가 되든
되니까!

다빈 진짜 해주고 싶은 말은 ‘무엇이든 얻는 게 있다’라는 것. 그게 뭔지는 각
자 다르겠지만,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지역과 청소년이 함께 성장하는 내-일상상프로젝트를 운영했습니다.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청소년 진로탐
색 지원사업입니다. 기존 직업체험 위주 진로교육에서 탈피해 지역에서 창
의적인 일을 기획하고 실행해보는 것이 프로젝트의 핵심 가치입니다.

희망제작소는 지난 2016~2018년까지 전주, 완주, 장수, 순창, 진안 5개 지
역에서 약 3,400여 명의 청소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3년간의 프로그램
활동을 총화한 진로탐색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19년부터

는 남원과 진주에서 새로운 청소년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의 현황과 청소년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 적용 및 심화, 효과적
인 지역지원 연계를 위해 각 지역의 지역기관과 협업하고 있습니다. 지리산
마을교육공동체(남원 지리산), 춘향골교육공동체(남원 시내), 진주교육공
동체 결(진주)이 지역파트너로서 청소년들의 주체적 활동을 촉진함과 동시
에 지역지원을 발굴해 연결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내-일상상프로젝트’는 크게 세 가지 모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상학교’는
진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세워주는 강연과 다양한 삶의 모습을 스스로 질
문해보는 사림책 활동을 진행합니다. ‘내-일생각워크숍’에서는 일·노동·직
업·지역을 주제로 다양한 워크숍을 통해 욕구와 재능을 탐색하는 한편 지
역 안팎에서 일감을 수행하고 기획합니다. ‘내-일찾기프로젝트’에서는 앞
선 과정을 바탕으로 청소년 스스로가 하고 싶은 일과 지역의 필요를 연결해
직접 팀 프로젝트를 운영합니다.

희망제작소는 내-일상상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청소년
주도 진로 탐색 모델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지역 청소년이
자기주도성을 높이고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함으로써 원하는 미래를 설계
하도록 함과 동시에, 청소년 활동을 매개로 다양한 지역자원을 연결함으로
써 지역과 청소년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가고자 합니다.

이시원 시민주권센터 연구원

홍진욱 뮤직서커스 대표

홍진욱 씨는 음악 콘텐츠 기획, 작곡 아카데미, 중등음악 임용 등
음악 실기 스튜디오 <뮤직 서커스> 대표를 맡고 있으며,
2019년 서울시 시민참여예산학교를 수료했다.

“누구나 쉽게 문화·예술을 즐겼으면”

[인터뷰]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음악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을 3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뮤직 서커스는 평생교육 기관으로 등록돼 있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뮤직 서커스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나요.

주로 임용고시를 앞둔 중등음악 교사 대상으로 실기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요즘 시험 시즌이라 정신없긴 하죠. 또 중학생 대상으로 1인 미디어 혹은 유튜버 관련한 진로교육이나 교원연수, 작곡 아카데미, 음악 콘텐츠 기획, 임용고시 관련 출판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음악교육 분야에서 계속 일하셨나요.

예전에는 음악교육과 전혀 다른 분야에서 일했어요. 일반 회사에 근무하기도, 은행원으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예전부터 엔터테인먼트 경영 쪽에 관심이 있었고, 중학생 대상으로 경제교육 봉사를 하면서 교육 쪽도 쭉 지켜봤는데요. 우연히 음악과 교육을 결합한 에듀테인먼트 분야에서 일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후로 음악교육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19년 서울시 시민참여예산학교를 수료하셨잖아요.
원래 알고 있었나요.

아뇨. 처음 알았어요. (웃음)

그런데 어떻게 참여예산학교를 알고 참여하셨어요.

사실 문자 한 통을 보고 신청했거든요. 서울시평생교육원으로부터 홍보문자를 받았는데요. 문자를 보니까 국가의 예산을 시민이 주도해 의견을 내고 무언가를 만들어간다는 게 참여예산학교의 취지인 것 같던데 거기에 관심이 생기더라

고요. 음악교육 분야와 접목할 수 있고, 이것저것 연결해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일들이 많을 것 같았거든요.

지인이나 주변 분들은 참여예산학교에 관해 알고 계시나요.

아뇨. 거의 몰라요. (웃음) 그래도 제가 참여예산학교 교육에 참여했으니 앞으로 참여예산이 뭔지 알려주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참여예산학교에 참가해보니까 어떠셨어요.

2019년에 처음 참여예산학교에 참여해보니 제가 생각한 것과 실제 교육 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괜찮았어요. 그간 제가 지역사회 내에서 어떤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개인의 참여와 권리를 보호해주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몸소 알게 됐거든요. 큰 틀에서 음악교육 분야에서 제가 하고자 하는 방향과 맥락이 맞닿아 있는 것 같았어요.

참여예산학교 내 참가자를 보면 다양한 분들이 모이잖아요.

첫 만남 어땠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역사회 내 참여의 경험이 적었다면, 참여예산학교 현장에 모인 분들은 달랐어요. 이미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거나 참여예산위원으로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무엇보다 다른 영역에 계신 분들을 만나는 경험이 재미있었어요. 시민사회단체, 주민센터 등에서 일하시는 분, 구체적인 현안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참여한 분들까지 주관이 뚜렷한 각양각색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개인의 참여와 권리를 보호해주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몸소 알게 됐어요.”

참여예산이 익숙하지 않았을 텐데, 교육과정이 어렵지 않았나요.

참여예산학교 교육을 맡은 분들이 워낙 잘 설명해주셔서 내용상 어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참여예산학교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흐름을 이해하기 쉬웠어요. 저는 시민이 스스로 낸 세금의 행방을 찾아보고, 자신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직접 얘기해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시민참여예산이라고 이해했어요.

참여예산학교 과정의 일부로 사업계획을
직접 짜보는 시간을 가졌죠.

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조별 워크숍을 통해 사업제안서를 썼는데요. 참여하는 분들 모두 각자 나름대로 가진 문제나 현안이 있다 보니 이를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수렴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를 조율하느라 시간이 부족했는데요. 추후 진행되는 참여예산학교 과정에서는 주제가 비슷한 분들끼리 묶어서 사업제안서를 작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학교를 수료 후 하고 싶은 지점을 발견했나요.

예전에 마을에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국·영·수 위주가 아닌 예체능을 통해 감성을 추구하는 교육도 필요한 것처럼 삶에서도 누구나 쉽게 문화와 예술을 즐기는 기회를 제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연구하고, 수요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청소년이든, 어른이든 시민참여예산을 통해 음악교육을 접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해보고 싶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신다면요.

그간 진행된 참여예산 사업을 보면, 시니어 관련 사업과 정책은 많이 제안되고 실시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에 반해 대중의 문화예술 향유를 높이는 사업과 정책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컨대 도서 지역이나 저소득계층의 문화예술 향유가 매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개인적으로 시민참여예산 제도는 태동기라고 봐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참여예산을 물어보면 모두가 있다고 하는 단계가 아니니까요. 좋은 사업을 제안하고, 잘 실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생계가 중요하지만, 이 단계를 넘어서면 자아표현의 욕구를 충족하고 싶어 한다고 하잖아요. 시민참여예산을 제도로만 볼 게 아니라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걸 꾸준히 홍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더 많은 시민, 더 열린 참여 서울시 시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했습니다.

참여예산은 시민이 (지방)정부의 재정정책을 결정하는 데 직접 참여할 권리(=권리를 갖는 참여민주주의) 중 하나입니다. 서울시 시민참여예산학교는 참여예산에 대해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교육으로 시민참여예산위원회가 되기 위해서 필수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입니다. 시민참여예산학교는 참여예산 위원으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을 습득하는 교육을 6시간 과정으로 운영하고, 수료자 대상으로 시민참여예산위원회로 추첨될 수 있는 자격과 시민참여예산사업 선정 시민투표 시 10%의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서울시는 시민참여예산학교의 상설 운영 및 심화교육 강화를 위해 직접 운영하는 방식에서 민간전문기관 대행 운영으로 변경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시민참여를 강화한 교육을 설계하고, 청년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당사자의 요구를 반영한 특화교육을 기획하고, 상설 교육장 및 다양한 시간대의 교육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2019년 서울시 시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시민의 관심과 필요에 따른 자기주도적 설계(선택과목 도입)와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교육을 기획했습니다. 시민주권 강화의 측면에서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쉬운 언어로 교육을 구성했으며, 주요 내용을 전달하는 강의형 교육과 시민이 직접 참여해 실습하는 워크숍 방식을 결합했습니다.

청년세대의 낮은 참여 동기와 참여하기 어려운 사회적 환경을 고려해 청년 대상 특화교육을 선보였습니다. 당사자의 요구와 교육수요를 사전에 조사해 교육을 기획하고, 대학과 연계해 찾아가는 교육도 진행했습니다. 특히 청년 정책을 중심으로 교육을 설계해 실질적 변화사례를 공유하고, 참여자간의 상호 컨설팅을 환류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운영했습니다.

장애인의 낮은 정보 접근성과 높은 물리적 장벽을 해소하고 당위성에 기초한 사업제안을 벗어날 수 있도록 장애인 주제 중심의 교육을 마련했습니다. 장애인과 관련 주제에 대해 관심이 있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포용예산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을 새롭게 기획했고, 근거를 중심으로 논리적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참여예산과 같은 기존의 사업뿐만 아니라 시민력을 키우는 다양한 사업을 기획해 시민주권을 향상하는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손정혁 시민주권센터 연구원

희망, (이정원) 씨

이정원 침표영농조합법인 미녀농부 대표 | 농촌 큐레이터
쌀, 잡곡, 콩, 배, 곶감, 사과 등 친자연적인 농업방식으로 농사를 지어
소비자에게 건강한 농산물을 판매할 뿐 아니라 농촌에서 청년과
지역민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고 있다.

“농사를 짓고, 청년을 만나고,
어르신과 함께하고”

[인터뷰]



농사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어요.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상담을 했거든요. 당시엔 일 욕심이 많았고, 일하는 것 자체가 좋고, 즐거웠어요. 그만큼 일도 많이 하고, 대학원도 다니고요.

그런데 어떻게 귀농을 결심했나요.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건강이 너무 나빠졌어요. 검진을 받았는데 ‘껍질만 멀쩡하다’라는 얘길 들을 정도로요. 집에서 쉬는데 ‘꿈이 뭐였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자!’이었는데 정작 ‘잘 먹고’를 한 번도 고민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작게나마 텃밭을 빌렸어요. 맨발로 흙을 밟고, 앉아있는데 바람이 부는 거예요. 처음이었어요. 계절을 알아채거나, 몸으로 바람을 느낀 게요. 그때 결심했던 것 같아요.

생전 처음 농사지은 거네요.

네. 맞아요. 직장 생활하다가 부모님 집에서 요양차 쉬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고, 진짜 농사의 ‘니은’도 모르는데 덜컥 농사에 뛰어들었죠. 땅 1,000평을 빌렸는데 그 땅이 오래된 휴경지라서 다 갈아엎어야 했어요. 그땐 뭘 모르니까 농기계도 없이 오로지 삽으로만 땅을 엊었어요. 일주일 내내 삽으로 땅을 갈아엎었는데 겨우 한 평정도 엊었을까요. 막상 해보니 농사는 절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농사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좀 더 설명해주신다면요.

예전에 품앗이, 두레 등 자주 들어보긴 했는데 몸소 경험해보니 자연스레 공동체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농사를 지으며 겪게 되는 시행착오는 농사 기술에 익숙하지 않았던 탓도 있지만, 공동체에서 살아보는 경험이 부족했던 것도 원인일 수도 있었던 거 같아요. 갈수록 마을 주민이나 함께 배우는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또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한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도 농부로서 자리를 잡았네요.

1,000평 땅에 단호박 4종을 심어 첫 농사를 지었거든요. 그때 농약을 뿌리지 않고 키웠는데 어떤 목적이 있었다기보다 농사에 대해 잘 모르기도 했고, 일손이 부족해 포기한 것도 있었죠. 운 좋게도 당시 잡초에 맷힌 이슬 때문에 가뭄의 영향을 면했어요. 이후 수확 시기에 새벽 4시에 일어나 온종일 일했어요. 화장실이 멀어 물도 마시지 않고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사흘째 정신없이 수확하다가 온라인 판매를 열었는데 완판됐어요. 그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다는 것 자체가 신기했어요.

농사에 그치지 않고, 만산동에 쉽표영농조합법인 건물을 지었죠.

농사를 지을수록 농산물 소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했거든요. 쿠킹(빵/쿠키) 클래스를 열어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카페를 만들어 누구나 올 수 있는 공간을 열면 좋겠다 싶었어요. 물론 이런 클래스를 시내에서 열면 접근성도 높겠죠. 그런데 프랜차이즈도 많은데 굳이 저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만산동이 외진 곳이지만,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사랑방 같은 공간을 찾았고, 지난 2018년에 건물을 지었어요.

만산동 주민분들과의 관계 맺기, 그 시작은 어땠나요.

만산동에 터를 잡고, 대대적으로 공사를 벌여야 했어요. 긴장을 많이 했죠. 원래 혼자 놀고, 혼자 일하고, 애써서 누군가와 친해지려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까 싶었거든요. 설날 즈음 과자나 휴지를 잔뜩 사서 인사드리려 갔는데 오히려 젊은 사람이 와서 좋다고 반겨주셨어요. 이후로도 ‘늘 인사를 잘하자’라고 마음먹었고, 동네에 피해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땐 미리 어르신들께 여쭤보면서 진행하니까 자연스레 친해졌어요.

만산동과 조합 건물의 경계가 희미해요.

만산동 동네 앞길은 동네 주민들이 자기 땅을 조금씩 내놓아 만든 길이에요. 내

땅이니까 내 권리 찾겠다고 하면, 길을 만들 수 없었을 텐데 서로 같이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거죠. 제가 장기 출장 가거나, 이곳에 자주 들르지 못할 땐 “검정집 아가씨 어디갔나”고 찾기도 하시고, 건물 앞 텁밭의 잡초도 뽑아주시고 그래요. 할머니들을 모시고 같이 영화를 보기도 하고 생각했던 사랑방 같은 공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어요.

만산동에 정착하니 눈에 들어오는 지점이 있나요.

제가 잘 몰랐던 이야기가 곳곳에 있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만산동을 ‘안너추리’, ‘바깥너추리’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동네 어귀에 벼락 맞은 큰 나무가 있는데 동네 어르신들은 쉽게 나무를 없애지 않더라고요. 또 농촌에 살다 보면 어르신의 죽음을 흔하게 접하기 마련이잖아요. 이처럼 마을의 숨은 이야기, 어르신의 삶 자체를 기록할 수 있는 기억저장소가 있다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좀 더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역 사회뿐 아니라 농촌 큐레이터로도 활동하고 있죠.

청년들이 농사를 지으려면 땅을 사야 하잖아요. 청년이 후계농 자금을 받아 바로 농사를 지을 수 있지만, 달리 생각하면 20대 초반부터 빚을 안고 시작하는 거예요.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에 관한 고민뿐 아니라 농촌에서 살아가기, 공동체와 함께 만들어가기 등 충분한 고민 없이 뛰어드는 게 안타까웠어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농촌에 살아가는 법을 소개하고 싶었어요. 처음엔 ‘농업 큐레이터’라는 명칭을 사용했는데, 농촌 지역에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농사 짓는 일 말고도 다양한 역할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는 ‘농촌 큐레이터’라는 명칭을 붙여 활동하고 있어요.

상주시 청년 정책을 수립하는데도 참여하셨습니다.

경북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 다른 지역에서 청년과 관련된 또는 가깝게 제가 일하는 회사에 청년들이 많이 일하고 있어요. 이 친구들이 우리 지역 상주에 잘 정착하고 오래 살아가는 환경을 같이 만들어가고 싶었어요. 물



론 저도 쪽 상주에서 결혼하고 내 아이들이 상주에서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은 개인적인 꿈도 개인적인 꿈이 있어서 참여한 것도 있고요. 사실 저는 외부에서 이런저런 이야기할 기회가 많다 보니 주변의 청년들 그리고 후배들이 야기를 청년 정책 수립에 참여하면서 전달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희망제작소와의 협업은 어땠나요.

만약 청년 정책을 지역 주체들만 모여서 논의했다면 한계가 있었을 거예요. 도시와 달리 지역에서는 촘촘한 이해관계나 정서가 깔려있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때가 생기거든요. 이러한 지점을 희망제작소가 지난 1년간 상주시 바깥에서 상주시 청년의 이야기를 정리해 대변해주셨잖아요. 이러한 역할이 향후 행정부문과 소통하는 데 변화의 실마리가 될 수 있으리라 봐요.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나요.

제가 대표로 일하는 쉼표영농조합법인에는 함께 일하는 분들이 계세요. 상주 출신 20~30대 청년들과 평생 자식만 키우며 살아온 여사님들인데요. 쉼표영농조합법인이 이분들과 같이 꿈을 꿀 수 있는 곳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일하고 계신 분들이 창업해도 좋고요. 저와 함께 일하며 뛰든지 작더라도 자신만의 꿈을 꿀 수 있었으면 해요. 그냥 ‘월급 받고 땅’이 아니라 내가 배우고 싶었던 거, 어제보다 나은 무언가를 시도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도록 하고 싶어요. 누구나 내일의 꿈을 품을 수 있는 곳이요.

생산자, 교육자, 청년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개인적 바람이 있다면요.

지역에 살면 ‘멀티적 인간’이 되어야 해요. 다양한 정체성 가운데 어떤 정체성이 나일지 고민하기 마련이죠. 마치 동네에 사는 여성들이 ‘누구네 엄마’, ‘무슨 댁’이라고, 이름 없이 불리고, 여성으로서 어떤 역할을 요구하잖아요. 저는 공적인 공간이든, 사적인 공간이든 ‘이 대표!’라고 불리거든요. 저한테 붙은 수식어와 요구되는 역할을 떠나서 늘 ‘인간 이정원’으로 남고 싶습니다.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상주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연구했습니다.

상주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는 ‘인구 10만 불과’ 위협과 함께 급속한 청년인구 유출로 고심하는 상주시가 청년들이 살만한 곳을 만들고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중장기 정책 비전(2020~2024) 및 추진계획을 마련한 사업입니다. 2018년 11월 의회를 통과한 「상주시 청년 기본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역 청년들이 처한 상황과 욕구를 조사해 정책 수립 기초자료를 확보한 1차 연구(청년도시 육성을 위한 상주시 청년 실태 조사)와 상주형 청년정책을 제시한 2차 연구(상주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로 진행했습니다.

첫 단계인 실태조사에서는 지역 청년 및 이해관계자 568명을 대상으로 분야별(주거, 일자리, 소득, 여가·문화, 교류·관계, 농업 등) 현황을 파악하는 설문조사와 청년들의 욕구를 확인하기 위한 인터뷰(20명)를 진행, 정책 과제 도출에 필요한 시사점을 뽑아냈습니다.

두 번째 단계인 기본계획 수립 연구는 지역 청년들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정책 아이디어를 이야기한 원탁토론회(상주시 청년미래 스케치)를 기초로 진행했습니다.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은 상주시 청년정책위원회 위촉위원을 중심으로 꾸려진 정책자문단의 논의와 여러 차례 걸친 인터뷰를 통해 현실성 있는 정책으로 다듬었습니다.

최종 도출된 정책은 ‘청년과 함께 가는 포용 도시 상주’를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참여기회 및 경협의 부재로 지역 내 정책 추진 주체가 형성되지 못한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청년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민관이 정책 수립의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상주시는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 4대 목표, 8대 핵심전략, 33개 정책과제를 수립했습니다.

대표 정책으로는 ‘(행정 내) 전담부서 설치’, ‘주민참여예산 청년위원회 신설’, ‘청년 친화 기업 인증제 도입’, ‘청년 농업인을 위한 원스톱 지원 데이’, ‘청년 축제 코디네이터 양성’, ‘상주 청년주간 추진’, ‘상주형 청년수당 도입’ 등이 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상주시 청년기본계획 수립 연구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인구 소멸 위험지역’에 특화된 청년 정책에 대한 고민을 다양하게 이어갈 계획입니다.

김현수 대안연구센터 연구원

희망, (이영하) 씨

이영하 치유공간 이웃 대표

세월호 유가족과 안산 시민을 대상으로 심리회복 및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치유공간 이웃’의 대표로 참사 이후 2년간 희생된 아이들에
대한 애도와 유가족 지원에 집중하다, 이후 지역주민으로 대상을
확대하며 유가족과 시민 사이 소통의 폭을 넓히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공동체 회복은 세밀한 아픔을
풀어주는 데서부터”

[인터뷰]



치유공간 ‘이웃’은 어떤 일을 하나요.

치유공간 ‘이웃’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지원 및 일상 지원을 주로 맡고 있습니다. 2014년 설립 후 초기 2년가량 유가족(유가족 부모와 형제자매) 대상을 중심으로 활동했고, 이후로는 직접 피해자 외인 친구를 잊은 아이, 지역 주민, 지역활동가까지 반경을 넓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웃’ 대표가 된 계기는요.

‘이웃’ 설립 전에는 통일 운동 위주의 시민사회 영역에서 줄곧 활동해왔어요. ‘이웃’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을 당시 이명수 선생님이 ‘이웃’ 대표를 지내셨고, 정혜신 선생님은 주로 상담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셨어요. 두 분이 안산에서 활동을 마무리 지으면서 2016년 이후부터 제가 ‘이웃’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이웃’의 대표 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나요.

세월호 유가족 대상으로 진행한 초기와 유가족을 포함한
안산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을 확대한 시기로 나누죠.

초기 1년 반 정도는 유가족 상담과 생일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영화 <생일>에서 아이들 애도 모임이 나오는 그런 모임이요. 이후 간접 피해자(친구) 대상으로 이야기를 듣는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지역주민 대상으로는 ‘누엄필’(‘누구에게나 엄마가 필요하다’: 자신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싶은 주민 누구나 참여해 4명이 한 조가 되어 말과 글로 서로의 마음을 표현하는 치유 프로그램) ‘속 마음 산책’(지역주민과 주민 대상 활동가가 짹을 지어 동네를 산책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치유하는 프로그램), ‘살아있는 책읽기’(세월호 이후 활동한 활동가를 선정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프로그램) 등을 진행했습니다.

‘이웃’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에는 누가 참여하나요.

초기에는 100% 세월호 유가족이었어요. 시간이 흐른 현재는 유가족이 약 30% 정도 차지하고, 활동가, 주민, 친구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데
세월호를 언급하지 않는 게 쉽지 않죠.

세월호 사고 직후 유가족 정점으로 피해지점이 생긴 동시에 지역주민은 친구를 잃은 아이들로 인해 지속적인 2차 피해를 받고 있거든요. 희생자 친구와 부모 사이의 아픔과 상처가 있지만, 유가족 앞에서 말도 꺼내지 못하거나 박탈감을 느낄 때도 생기죠. 이러한 이유로 일부는 유가족을 매도하거나 펌웨하는 쪽으로 흐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세밀한 아픔을 풀어주는 게 회복인데, 유가족 관점으로만 세월호를 언급해선 해소되기 어려운 지점입니다.

유가족과 주민과의 접점을 넓혀가는 활동을 하고 있죠.
사례를 소개해주신다면요.

‘누엄필’은 세월호 자체에 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는 자리이지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은 다 아시죠. 주민들은 세월호 유가족을 위한 공간이라는 걸 인식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공간이 유가족만 이용하는 게 아니구나’, ‘세월호 피해를 본 지역에서 사는 내가 직접 피해자는 아니지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안도감을 얻는 것 같아요. 그분들 중 일부는 자원활동가로 돌아서서 같이 활동하기도 하고요.

‘이웃’ 입장에서 유가족과 주민과 소통을 어떻게 보나요.

유가족들이 현재까지 뜨개 모임을 해오고 있는데요. 2017년에 뜨개 전시를 크게 연 적이 있어요. 엄마들의 슬픔을 뜨개로 달랜 모습을 보여주는 동시에 약 5,000개 뜨개를 지역 모든 활동가에게 선물로 드리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사고 이후 단절된 관계를 개선한다는 게 취지였지만, 2018년에 뜨개 모임을 연구해보니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연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데요.

오히려 유가족들의 관계망이 더 축소됐더라고요. 유가족끼리 관계만 돋독해졌

더라고요. 과거 동문회, 학부모회, 친척과의 관계, 심지어 이웃과의 관계마저 끊어진 경우가 많았어요. 왜 그런가 해서 들여다 봤더니 ‘괜찮아졌다 봐’, ‘좋아 보이네’ 등 가볍게 던지는 한 마디에 큰 상처를 받다 보니 모든 관계가 유가족끼리의 만남으로 대체된 것 같아요. 이러한 이유로 대상이 마구 뒤섞인 프로그램을 구성하지 않고요. 2차 피해받는 것을 예방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세월호 유가족의 아픔을 좀 더 깊이 느낄 기회도 있었나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マイ데이’를 통해 유가족 엄마의 이야기를 듣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요. 사실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인다는 것 자체만으로 자신도 모르게 갖고 있던 억측이나 오해가 상당히 빠르게 풀리며 감정적 화해의 과정을 겪는 것 같아요. 그냥저냥 만나기보다 서로의 입장이나 상황들이 잘 준비된 상태에서 조심스럽게 만남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 상호 간 협력이 높아졌다고 보나요.

아무래도 프로그램을 경험한 분들에 한해서는 분명 높아졌을 것이라 여깁니다.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초기만 해도 애초 공동체가 없는데 무슨 소리냐 하는 논란도 있었는데요. 파편화된 도시였기에 오히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새로이 형성된 공동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월호를 통해서 공동체를 경험하고 동참하는 기회가 주민들에게 주어졌고 그런 부분에서 이바지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은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단체 안에서 활동하는 데 주력하다 보면 제삼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해요. 이번에 희망제작소에서 진행한 안산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연구처럼 여러 피해자(유가족, 형제자매, 주민, 친구 등)가 요구하는 지점이 어떻게 다른지, 서로 어떤 상호관계를 맺고 있는지 연구하는 게 필요해요.

물론 연구라는 게 모든 상황이 지나고 나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정제된 상태로 연구가 진행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2단계(2020-2022)를 앞두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한국사회에서 정말 잊을 수 없는 참사였습니다. 안산이라는 지역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조금이라도 나아진 부분이 있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지점이 있을 거라 봅니다. 예를 들어 갈등 상황을 직면했던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재 상황이 모델링할 정도인 가에 대한 의구심은 있어요. 따라서 공동체 회복이라는 가치 아래 공유나 협력 등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소통의 기회를 더 넓히는 거죠.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방향이 있다면요.

‘이웃’에서 재작년과 작년 한동안 지역 유지와 영향력 있는 분들을 초대해 식사하는 자리를 몇 번 가졌어요. 주로 추모공원을 반대하는 분들이셨는데… 사실 그분들은 세월호 참사 벌어졌을 때 굉장히 열심히 활동했었거든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마지막엔 울음바다가 됐어요. 앞집, 뒷집 모두 사고를 당했는데, 그런 아픔을 뒤로하고 추모공원을 반대하는 자신이 악마처럼 보이기도 한다고요. 그분들도 정신적 피로감이 높아 보였고, 압력밥솥의 압력을 빼듯 표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봐요.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많이 마련해보고 싶습니다.

희망, (정부자) 씨

호성엄마, 정부자 씨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 고 신호성 군의 엄마 정부자 씨는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추모부서장과 4·16재단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별이 된 아이들을 안산에 품는 4·16생명안전공원 조성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통해 한국사회에 생명, 안전의 가치를 정립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누구나 소외되지 않도록,
누구나 안전하도록”

[인터뷰]



어떻게 활동을 시작했나요.

아이를 먼저 보낸 엄마의 가슴 아픈 마음을 치유하고 위로한다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상처받은 마음을 유가족들과 함께 달래는 것이 큰 힘이 되었고, 그렇게 다른 엄마들과 함께 4·16공방 활동을 시작했어요. 저에게는 ‘아이를 떠나보낸 엄마’라는 수식어가 드리워졌고, 많은 이들이 같이 아파하고 안타까워했죠. 그 때는 사람들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워 땅만 보고 걸어 다녔어요. 처음 우리 아이들의 추억이 서려 있는 안산을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죠. 하지만 내 자식의 고향인 안산에서 아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남겨야 하겠다는 마음이 들면서부터 지역사회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2014년 참사 이후에는 거리에서 투쟁을 벌였죠.

당시 광화문을 중심으로 안산 밖 외부 투쟁을 다닐 땐 ‘국가란 무엇인가? 우리를 지켜주는 나라가 있는가?’라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렇게 장시간 지역을 돌아보기보다는 국가를 상대로 싸움만 계속했어요. 그러던 가운데 이웃 주민을 한번 만나게 됐고, 늘 곁에 있던 그분들이 어느 순간 ‘호성 엄마는 우리와 격이 안 맞고 권력 있는 높은 분들만 만난다’, 통장 모임에 갔더니 ‘보상금 받고 집을 고치고 있더라’라는 소문이 무성하더라고요. 그땐 울면서 분노를 표했죠. 정말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지금 돌아보면 빼딱한 마음으로만 모든 걸 받아들였던 거 같아요. 아마 세월호 피로감을 강조하는 언론매체와 정치적인 발언들 때문에 잘못된 정보들이 만들어진 것인데, 주민 모두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오해했던 거 같아요.

안산에서의 첫 활동은 어땠나요.

지역사회에서 세월호 참사 1주기를 계기로 15명 정도 안산지역 내 팀을 꾸렸어요. 참사와 관련해 분노에 차서만 이야기해선 안 되겠다 싶어 희망마을사업추진단 단장님, 안산시 담당 부서 팀장님을 만나서 교육을 받았는데요. 그게 교육이 잘 되질 않더라고요. 이웃을 만나면 눈물부터 나오고 그래서요.

어떤 활동을 했나요.

지역사회로 가봐야겠다 싶어 고잔동에서 ‘엄마와 함께 하는 공방’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요. 엄마들이 직접 강사로 나서 수를 놓거나 가방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열었어요. 아이들의 아픔을 알리고 싶었는데 그 과정에서 주민들을 만나고 또 아이들에게 선생님 소리를 들으니까 조금씩 성취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인가 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산 주민들과 접점을 넓히는 시도를 했습니다.

2016년 외국 사례를 통해 아이들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곳에 두고 추모할 게 아니라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공원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대구 시 지하철 참사 관련해 도심지 내 추모공원 설립을 두고 반대여론이 높았던 것처럼 지역주민의 동의가 필요하겠다 싶었어요. 초기엔 피케팅하고, 서명 캠페인을 벌이며 안산을 돌아다녔다면, 점차 마을 주민과 각을 세우는 방식보다 서로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 소통했어요. 주민들이 처음엔 ‘뭐야’라는 반응을 보이다가 나중에 ‘괜찮아요?’라고 물으시거든요. 천천히 가더라도 잘 가보자라는 마음이죠.

안산 화랑유원지 내 세월호 추모공원(4·16 생명안전공원)을
둘러싸고 갈등이 많았죠.

추모위원회에서 회의할 때마다 지쳤어요. 저도 모르게 말을 쏟아내기도 했는데, 서로가 상처가 되는 말들이 오고 갔죠. 추모공원을 반대하는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 가요. 제가 아이를 먼저 보내지 않았다면 반대할 수도 있겠다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반대하는 분들의 마음을 마땅 정도로 용기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추모공원이 잘 건립되어 안산에 선물 같은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역사회에 서로 만나고자 하는 욕구가 높은 만큼 이 공간이 안산 시민을 지켜주는 공간이 돼야죠.

세월호 가족과 이웃이 함께 만드는 페스티벌

‘엄마랑 함께하장’을 열었죠.

세월호 추모공원이 건립 예정인 안산 화랑유원지가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일부 주민들이 아이들 사진이 있으니 무섭다고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주민 누구나 참여하고, 수익금을 어르신을 지원하는 축제 ‘엄마랑 함께하장’을 열었어요. 안산 주민들도 ‘세월호’로 많이 아팠으니까 굳이 ‘세월호’를 꺼내지 않았어요. 주민들이 모여 자수를 놓고, 파우치, 냄비 받침을 만들었어요. 만들기를 통해서 소통하다 보면 주민 중 일부는 추모공원에 관심을 표하는 분이 생기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인상적인 게 있었나요.

사회에 관심 없었던 평범한 엄마가 사회에 눈을 뜨 것 같아요. ‘세상 바깥에는 아픈 사람이 있구나’, ‘상처가 병이 되어 세상과 닫힌 세계에서 사는 사람이 있구나’ 등 보는 시야가 달라졌어요. 제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다양한 시민들을 만날수록 새로운 걸 봐요. 같이 연대하는 분, 주민들이 먼저 간 우리 아이들 생일 상차림을 할 때 과일이나 조기를 사 오는데 그게 너무 좋아요.

(“사회에 관심 없었던 평범한 엄마가 사회에 눈을 뜨 것 같아요. ‘세상 바깥에는 아픈 사람이 있구나’, ‘상처가 병이 되어 세상과 닫힌 세계에서 사는 사람이 있구나’ 등 보는 시야가 달라졌어요.”)

유가족 입장에서 행정이나 시민사회에 아쉬운 점이 있나요.

세월호 관련해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많이 열리지만, ‘행사성’으로 열리는 경우도 잦아 메시지가 자라 전달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이 개선되면 좋겠고요. 지역사회에 필요한 곳에 돈이 쓰일 수 있도록, 누군가 소외되지 않고, 골고루 프로그램의 취지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특히 안산

시에서도 안산 시민을 두루 살펴 적극적으로 움직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2단계(2020-2022)를 앞두고 있습니다.

바라는 점이 있나요.

공동체 회복이 무엇인지를 공부할 때 다른 국가가 아닌 안산에 가보면 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해요. 고잔동에는 단원고가 있고, 본오동에는 시를 쓰는 아이가, 반월동에는 엄마들이 아이를 봐주는 그런 곳이거든요. 내가 희생자 엄마가 되고 싶어 된 게 아니니까 안산이 아픈 도시가 되지 않고, 우리가 뚫뚫 뭉쳐서 안전한 공동체, 안전한 도시로 나아가는 밑바탕이 되길 바랍니다.

피해자와 시민의 심리적 안정,
공동체 회복을 위한 안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연구했습니다.

안산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대두된 유가족과 주민 간 갈등, 지역 내 유대감 상실 등 공동체 붕괴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안산시가 피해자와 시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한 사업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개발·시행」)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2017년부터 3년간 총 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국내 최초 공동체 치유·회복 프로그램입니다.

추진 주체는 전담기관인 안산시 자치행정과 산하 ‘희망마을사업추진단’이며, 비영리단체, 공익단체, 사회복지기관, 소셜벤처, 주민자치회 등 다양한 지역 단체들이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참여자로서 함께했습니다. 핵심 방향은 ‘이해와 포용성 강화’, ‘대외적 가치 확산’, ‘미래세대 성장 지원’, ‘사회적 갈등 치유’, ‘지속 자립기반 마련’ 등 다섯 가지로, 매년 30여개의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첫해인 2017년은 ‘공동체 회복 기반 마련기’, 2018년은 ‘프로그램 확산 및 주민 소통 확대기’, 2019년을 ‘주체역량 강화 및 성과 분석기’로 각각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세월호 가족의 심리적 회복과 자립을 도운 ‘4·16희망목공소’, ‘세월호 엄마 공방’, 유가족과 주민 간 접점을 확대한 ‘마을공동체 기억찾기 구술사업’, ‘이웃과 함께 밥한끼 합시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또 지역 내 생명·안전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안전교육 활성화 프로그램’, 지역 청소년과 청년을 응원하는 ‘꿈 드림 릴레이 프로젝트’, 주민들의 참여역량을 강화한 ‘주민참여 마을재생 아카데미’ 등도 진행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2019년 안산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방향 수립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과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운영 성과 평가 연구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안산시는 지난 3년의 실행 경험을 기반으로 2020년부터 3년간 2단계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 ‘재난극복 공동체 회복모델 정립’, ‘대외적 확산 및 공론화’를 핵심목표로 삼았습니다.

김현수 대안연구센터 연구원

시민이 함께합니다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일구는 연구와 활동에
크고 작은 힘을 보태며 응원하는
시민들의 후원 스토리를 전합니다.

희망, (김윤정) 씨

김윤정 희망제작소 후원회원

명함에는 공유가치창출(CSV) 디자인 연구소 Plant-D 연구소장
하지만 더 많은 모습은 소셜 플랫폼 기획자, 활동가, 지역기반 연구자,
발달장애인의 엄마, 심리상담사… 그리고 미래의 여행작가.

“카페, 놀이터, 상담, 리빙랩…
뭐 하는 곳이냐고요?”

[인터뷰]



춘천 시내를 10분 정도 벗어나 칠전로의 조용한 마을에 들어서면 카페 <나비>가 보인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밝은 햇살이 내리쬐는 공간에는 책들이 가득 차 있다. 정돈된 서가 옆에는 장난감이 줄지어 서 있는 놀이공간이 눈길을 끈다. 아이들의 심리발달을 돋는 놀이공간이자 상담실이다. 그 옆에는 ‘리빙랩’이라는 팩말도 보인다. 어떤 곳인지 절로 호기심이 생기는 이곳, <나비>를 시작한 분은 바로 김윤정 (주)나비 CSV(공유가치창출) 연구소 소장(희망제작소 후원회원)이다.

비영리와 영리를 어떻게 연결할까

김윤정 씨는 지역에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카페 <나비>를 운영하는 동시에 공유가치창출(CSV) 연구소에서는 지역과 연계해 프로젝트 기획 및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처음부터 비영리 영역에서 활동했던 건 아니다. 오히려 영리와 비영리의 경계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대학 강단에 섰던 경험으로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주로 경영전략 분야의 과목을 강의했는데 어느 순간 불편한 감정이 들었어요. 높은 영업이익을 달성한 기업을 성공사례로 들었는데 ‘오너의 비리, 낙하산 인사 등이 벌어지고 있는데 과연 성공한 기업이라고 가르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김윤정 씨는 고민한 끝에 학생에게 ‘성공’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토론하는 형태로 수업방식을 바꿨다. 돈, 명예 등을 이야기 나누긴 했지만, 이를 넘어서 성공과 행복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중심을 뒀다. 그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에 관해 사례 연구를 하면서 강의하는 재미를 느꼈다. 이 경험이 현재 서 있는 곳으로 이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 경영전략이 필요한지 얘기하는 만큼 ‘나는 현장에서 어떻게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어요. 사회적기업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자연스레 사회적경제를 보게 됐어요. ‘이걸 책이나 공부를 통해서 아는 만큼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을 찾는 과정을 거쳤죠.”

‘커뮤니티’가 문제 해결의 핵심

김윤정 씨가 영리와 비영리 경계를 서성이며 다양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간 모습은 카페 <나비>에서도 엿볼 수 있다. <나비>는 시민 누구나 실험할 수 있는 다양한 정체성을 갖고 있다. 딱 하나로 규정되지 않은 <나비>는 카페 이름처럼 자유롭다.

“사람마다 어떤 모습으로 저희를 보느냐에 따라 공간도 다르게 바라보세요. 이 곳을 ‘리빙랩’, ‘카페’, ‘상담센터’라고 부르는 분도 계시고, 또는 ‘컨설팅을 해’, ‘교육을 해’, ‘커뮤니티 행사를 해’ 등등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보죠.”

<나비>에서는 ‘커뮤니티’ 중심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예컨대 발달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서비스디자인은 최소 단위인 마을, 지역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며 이를 직접 지역에서 실행한다. <나비>에서는 오랜 기간 <나비>의 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았던 장애인들이 직무 경험을 거쳐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

“사람마다 가능한 일의 방식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해요. 서가를 만든 이유도 책을 관리하는 일이 북카페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만약 꽃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면 플랜트 카페를 만들고,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면 음악 선곡하는 일을 만들고. 이런 방식으로 카페 규모를 키우면 열 개가 넘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김윤정 씨는 장애인을 ‘지역 커뮤니티를 위해 역할을 하는 시민’으로 봐야 한다고 말한다. 장애인이 지역 커뮤니티의 구성원으로서, 시민으로서 지역에 스며들 수 있게끔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질문과 답을 통해 만드는 일상의 실험

김윤정 씨는 ‘기회가 되면 해야지’라고 마음먹으면 외려 못하는 것 같다면 끊임 없이 스스로 질문하는 것을 습관화하며, 일상을 즐거운 실험의 연속으로 만들

“지역 내 일자리를 만들고, 그 일자리가 잘되면 지역의 문제 해결에 가까워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목표예요.”



고 있다.

현실적으로 보면 <나비>의 매출 상황이 넉넉하지 않지만, 사업의 30%는 매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아도 지역과 연계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직원들 역시 리빙랩 프로젝트처럼 스스로 실험과 모험에 나서고 있다. 김윤정 씨는 '실험기업'인 지금의 형태가 돈을 떠나서 연구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한다.

"공유가치창출'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하고, 해결할 고민도 많이 남아있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사업도 지역에 필요한 걸 사업화하는 거고, 사업화를 통해 지역 내 일자리를 만들고, 그 일자리가 잘되면 잘될수록 지역의 문제해결에 가까워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연구소의 목표이고 역할이에요."

("정직하게, 바르게 나누고 이웃과 사회와 동료와 웃으면서 살고 싶습니다. 함께 공유하고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삶이요.")

마을 거점마다 위치한 소셜 프랜차이즈

김윤정 씨는 <나비>를 '퍼즐'에 비유하기도 한다. 어떻게 살지에 관한 큰 그림은 하나이지만, 퍼즐의 조각은 각기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금은 퍼즐 조각 조각 만들어가는 과정이지만, 큰 그림은 명확하다.

"지역마다 곳곳에 (<나비>와 같은) 마을 거점의 소통공간이 있고, 배움이 생기고, 마을에 필요한 사업이 주민들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정년과 상관이 없는 지역에 필요한 사회적 일자리가 생겨나고, 마을주민이 항상 어우러지는 것을 꿈꿔요."

그가 말하는 마을을 거점으로 한 심리발달센터와 커뮤니티센터가 있는 구조는 흔치 않다. 상담과 치료가 가장 가까운 단위에서 이뤄져야 하는 만큼 그런 의미

에서 공동체 전체의 나은 삶을 위해 지속가능한 친환경 중심의 생활양식인 로하스(LOHAS) 카페 방식으로 상담의 문턱을 낮추는 게 좋다고 말한다.

"상담센터라고 하면 설불리 가기 어렵지만, 카페라면 가능해요. 우울함은 심각한 사회문제거든요. 심리상담사와 주치의가 항상 자주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좋죠. 단순히 고용을 위한 카페가 아니라 로하스 카페 콘셉으로 앞으로 어떤 생활방식으로 살아야 하는지 질문을 던지고 실험을 하고 참여할 수 있는 허브가 되는 거죠."

<나비>의 장기 목표는 '시민 기업'이다. 기업이 누군가의 소유가 아니라 시민이 기업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김윤정 씨는 <나비>의 실험을 떠올리며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이라고 말끝을 흐리면서도 이내 다른 대답을 덧붙였다. "되게 해야죠!" 김윤정 씨를 통한 변화의 바람이 잔잔하게 불고 있다.

희망, (정영창) 씨

정영창 희망제작소 후원회원 | (주)에드가 대표.
청년, 나눔, 공동체 등에 관한 관심으로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희망제작소 모금전문가학교 수료생으로서
1억 원을 모금하는 성과를 거뒀다.

“나를 깨우쳐 타인을
이롭게 하고 싶어요.”

[인터뷰]



희망제작소는 개교 10주년이 된 한국 최초의 모금가양성기관인 모금전문가학교를 휴먼트리와 함께 운영 중이다. 모금전문가학교는 NPO, NGO, 복지기관, 일반 기업 등 기부문화와 모금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마련하고 있다. 모금 개론, 명분 개발, 그리고 팀별 워크숍을 통한 모금 기획안과 후원 요청서를 작성하며 모금의 ‘맥’을 잡아간다.

그런데 지난 21기 모금전문가학교에 모두를 놀라게 한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 바로 한 수강생이 실습으로 무려 1억 원을 모금했기 때문이다. 주인공은 정영창 (주)에드가 대표. 정영창 씨가 모금한 1억 원은 지역 비영리단체 상근자의 복지와 교육에 사용될 수 있는 종잣돈이 되었다. 정영창 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모금전문가학교를 주최한 희망제작소에 1천만 원을 기부하고, 1004클럽 후원회원이 되었다. 그가 도전하게 된 원동력은 무엇일까.

건설업에 종사하며 눈에 들어온 ‘주거난’

정영창 씨는 모금 혹은 기부와 전혀 상관없는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다. 오랜 시간 건설업계에서 일하다 보니 우리 사회에 얹히고 설친 거주 현실을 자주 목격했다. 그중 서울에서 주거난을 겪고 있는 지역 청년들이 눈에 밟혔다.

“오피스텔, 아파트 등의 시행 사업을 하다가 서울시의 역세권청년주택(이하 청년주택) 사업에 참여하게 됐어요. 사실 사업자 관점에서 청년주택은 매력적이지 않거든요. 임대가 끝나야 투자금을 환수할 수 있거든요. 긴 시간 동안 환수가 어렵다 보니 많은 시행사가 쉽게 도전하지 못하죠.”

서울시 청년주택은 지난 2016년 처음 계획된 이후 시행된 지 3년이 넘었는데도, 실제 사업실적은 목표인 8만 호의 4분의 1 수준인 약 2만 호 선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많은 시행사가 외면하는 상황이지만, 정영창 씨는 청년주택 사업에 도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서울은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요. 아직 기반을 갖추지 못한 청년이 자리 잡기에 어려울 수밖에 없죠. 청년주택은 지하철역에서 350m 이내에 있는데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남매나 친구들도 함께 살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하고 있어요. 청년주택은 일반 신축 건물보다 임대료가 저렴합니다. 필요한 가전, 가구도 갖추고 있어요.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설치해서 들어오고 싶은 집, 살고 싶은 집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하늘의 별 따기인 서울에서 땅 찾기

이미 포화상태인 서울에서 건물을 올릴 부지를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다. (주)에드가는 현재 상계, 쌍문, 천호, 하월곡, 희경 등의 지역에서 청년주택을 짓거나 준비 중이다. 1호인 쌍문 지역의 부지를 찾는 데는 무려 1년 반의 시간이 걸렸다.

“부지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들었어요. 괜찮은 곳을 찾더라도 매입까지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얹혀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관은 물론 지주들과도 여러 차례 만나야 했죠.”

여러 노력 끝에 청년주택은 하나씩 계속해서 층을 올리고 있다. 완공 후에는 SH 서울주택공사(이하 SH공사)에서 우선 모집을 하고, SH공사 임대기간 이후에는 (주)에드가에서 지역 청년을 우선으로 선발해 입주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주거를 넘어 여러 방면에서 청년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청년주택 단지 안에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공간 등을 만들 예정인데요. 이를 통해 청년들의 커뮤니티가 자라나길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 보탬이 되기 위한 또 다른 도전

정영창 씨는 건설업을 통해 청년 문제에 관심을 이어오고 있지만, ‘모금’, ‘기부’로까지 활동 영역을 넓히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고향인 목포에서 사업하면서 전남 서부 복지TV를 몇 년 운영한 적이 있어요. 제도권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또 가정폭력 피해여성

을 지원하는 하누리재단에도 있었어요. 지역에서의 모금은 아무래도 서울보다 어렵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예산으로 운영돼요. 하누리재단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다 재정악화로 해체되었는데, 언젠가 읽었던 박원순 서울시장(전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님의 ‘지역재단’이 떠오르더라고요. 목포에도 그런 재단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는 기부와 모금의 필요성으로 연결됐어요.”

정영창 씨는 모금전문가학교에서도 화제가 됐던 1억 원을 모금할 수 있었던 이유로 교육을 통해 배운 이론과 기술을 꼽았다. 진정성 있는 태도로 기부의 의미를 설명하고, 후원을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기부자가 금액 이상의 가치를 얻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정영창 씨는 모금과 후원 요청을 위해 여러 사람을 만나며 활발하게 모금 활동을 벌였지만, 정작 모금전문가학교 수업이 있는 날마다 부채감에 시달렸다. 희망제작소 사옥 내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1004의 벽’을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한다.

‘1004의 벽’은 모든 시민의 연구와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급여의 일부, 강의료, 출판수익, 십시일반 모은 저축 등 자신만의 기부 이야기로 1,000만 원을 후원한 이들을 새겨놓은 전시물이다. 정영창 씨는 평소 나눔에 관심이 컸던 만큼 후원을 해야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1004클럽 후원회원이 됐다.

자립과 성장의 밑거름을 뿌리는 오늘

“희망제작소에 특별히 바라는 것은 없어요. 지금도 충분히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거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뿌듯합니다. 제 인생의 최대 목표는 ‘나를 깨우쳐서 타인을 이롭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서 함께 살고 있으니까요.”

정영창 씨는 현재 전남 최초의 기부클럽을 만드는 기초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를 통해 고향 목포에서 사정이 어려운 비영리단체의 자립을 돋고 싶다는 마음이 크다. ‘자립과 성장’이라는 모금전문가학교의 취지를 자신만의 영역에서 씨를 뿌리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관심을 쏟고 있는 그의 행보가 기대된다.

희망, (이경란) 씨

이경란 희망제작소 후원회원
모든커뮤니케이션·모든브릿지 대표.
유수의 기업을 비롯해 비영리단체의 홍보·마케팅을 맡고 있다.
더불어 비영리단체 총 7곳을 후원하며 사회의 변화를 일구는
든든한 지지자이다.

“오늘의 삶으로
내일을 기대합니다.”

[인터뷰]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에서는 홍보나 마케팅이 그림의 떡일 때가 많다. 직원들 월급을 챙기다 보면 홍보·마케팅 비용을 책정하거나 전담 직원을 두는 게 쉽지 않아서다. 비영리단체도 마찬가지다. 홍보의 중요성을 알아도 정작 비용 문제로 우선순위에서 미루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그런데 이러한 이들을 위해 팔을 걷어붙인 이가 있다. 이경란 대표(희망제작소 후원회원)는 2009년 회사 설립 이후 1만여 개의 중소기업과 함께했다.

“대학 졸업 후 한 통신사에서 일했어요. 그때 제가 했던 게 당시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생소한 분야기도 한 중소기업을 위한 마케팅컨설팅 사업 분야였는데, 그게 인연이 되었죠. 이후 퇴사하고 중소기업을 전문으로 하는 콘텐츠와 브랜딩을 기반으로 하는 마케팅 회사를 창업했어요. 사실 처음부터 그들을 설득하는 일은 쉽지만은 않았지요.”

말보다 행동으로 책임을 지는 법

이경란 씨는 일할 때 만난 중소기업을 보면 홍보의 중요성을 제대로 절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짚으면서도 성장 가능성을 엿봤다고 한다. 오히려 중소기업과 무언가를 해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말이다. 10년 정도 함께 일하다 보니 홍보·마케팅을 달리 바라보는 변화의 시선도 체감했다.

“중소기업에서는 홍보·마케팅을 전담하는 직원을 두는 경우가 드물었어요. 다른 업무 하는 분이 동시에 홍보·마케팅 업무를 함께 하시더라고요. 10년 정도 시간이 흐르니 중소기업에서도 브랜딩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하청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독립과 자립을 원하는 중소기업의 모습을 보니 열정이 생겼습니다.”

이경란 씨는 중소기업들과 기꺼이 동행하겠다는 마음으로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놓치지 않은 건 ‘책임’이다.

“직원들한테도 그렇고, 거래처에도 그렇고 한 번도 약속을 어겨본 적이 없어요. 말로 약속하는 건 쉬워요. 하지만 그것을 지키기는 쉽지 않죠. 지키려고 노력도

하지만 포기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를 지키고 책임지려는 마음이 모여야 일이 된다고 생각해요.”

교통사고 겪은 후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달라져

앞만 보고 바쁘게 달려가던 이경란 씨의 마음에 ‘비영리’라는 단어가 새겨진 건 예상치 못했던 교통사고를 당하고 나서다. 사람의 생명이 찰나에 뒤바뀔 수 있다는 걸 겪고 나니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다.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고 싶어졌고, 비영리단체가 눈에 들어왔다.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과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새삼 감사함으로 다가온다고 한다.

비영리단체와 함께하다 보니 이경란 씨의 개인적 차원뿐 아니라 자신이 일하고 있는 조직의 비전과 미션에도 변화가 생겼다. 비영리단체에 적극적으로 콘텐츠를 제안하면서 함께 캠페인 등을 진행했다. 굿네이버스, 기아대책, 녹색연합, 메이크어위시재단, 생명의 숲, 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푸르메재단, 한국어린이재단, 한국여성재단 등 많은 비영리단체가 모든커뮤니케이션과 함께했다.

“비영리단체는 투자 대비 성과가 잘 나오더라고요. 우리 사회에 필요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니까요. 다만, 과거보다 모금과 후원 방식이 평이해진 것 같아요. 콘텐츠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콘텐츠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후원을 끌어낼 수 있을지에 관해 비영리단체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바꾸긴 쉽지 않아도 그 순간 노력한다는 것

이경란 씨는 자신의 재능을 비영리단체와 함께 일하는 데 나누는 것뿐 아니라 한 명의 시민이자 후원자로서도 기꺼이 사회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여성인권, 미혼모, 다문화, 장애인, 아프리카 기아 문제 등에 관심이 많다. 그는 현재 희망제작소를 포함해 총 일곱 군데 비영리단체에 후원하고 있다. 세상 전체를 바꾸는 건 쉽지 않아도 그때그때 할 수 있는 만큼 조금씩 바꿔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고 여기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를 보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부터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언젠가부터 해결되지 않으니까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후원도 그런 이유로 시작한 것 같아요. 희망제작소를 보면 동기부여가 돼요. 자신들만의 입장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좋습니다. 저의 어떤 판단기준이나 주관을 잡는 데 많은 도움이 돼요.”

이경란 씨는 모금 공부를 시작하기도 했다. 모금 관련 강의와 컨퍼런스를 찾아다니며 배우고 있는데 모금 동향을 잘 알아야 비영리단체의 홍보·마케팅을 별일 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여겨서다.

“처음 기등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데이터 분석만 제대로 해도 홍보·마케팅 비용의 상당 부분을 줄일 수 있어요. 또 후원자와 후원자를 연결하는 다양한 콘텐츠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단체를 후원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감동하고 배우는 관계 형성이 가능하거든요.”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내일을 기대할 수 있다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냐는 질문에 이경란 씨는 “개인 성향상 혼자는 못 살 것 같다”라며 웃음을 보였다. 좋은 사람들과 만나고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열심히 살고 싶다고 한다.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내일을 기대할 수 있기에 재능, 시간, 마음을 세상에 나누며 살고 싶다고 한다.

“내 것이 아닌 것에 욕심을 부리면 얼굴색부터 달라져요. 정직하고 바르게 나누고 이웃과 사회와 동료와 웃으면서 살고 싶습니다. 사회가 되었던, 조직이 되었던, 가족이 되었던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고민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삶이요.”

희망, (이경하) 씨

이경하 희망제작소 후원회원

희망제작소와 다양한 협업을 통해 인연을 맺어온 후원회원.

환경, 먹거리, 채식, 지속가능성에 관심을 가지며

자신이 서 있는 삶의 반경에서부터 실천하며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작은 실천, 나만의 방식으로
변화를 만들어요.”

[인터뷰]



‘시민연구자’.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단어이지만, 희망제작소는 많은 ‘시민연구자’를 발굴하고, 연결하고, 함께 성장하기 목표로 삼고 있다. 사실 알고보면 ‘시민연구자’는 그리 거창하지 않다. 희망제작소가 내세우는 시민연구자는 ‘좀 더 나은 일상을 만들기 위해 변화를 시도하는 모든 시민’을 일컫는다. 이경하 후원 회원은 자신의 신념, 즉 옳다고 믿는 것을 몸소 자신의 삶에 녹여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일로 만난 사이’, 희망제작소를 경험한다는 것

이경하 씨와 희망제작소의 만남은 ‘일’로 시작됐다. 지난 2019년 희망제작소의 여러 연구 프로젝트에 연구보조원으로서 함께 했다. 희망제작소에 들어설 때마다 늘 밝게 인사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 많은 연구원과 ‘일적인 관계’를 넘어 편안하게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관계로 발전했다.

“제가 여러 조직에서 일해봤는데요. 희망제작소는 조금 독특했어요. 연구원 모든 분이 인간 대 인간으로 서로를 대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한테도 마찬가지셨고요. 어떤 상하관계 없이 모두가 평등하다보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안전지대 같았죠.”

이경하 씨와 함께 일하면서 자연스레 관심사가 무엇인지, 이와 관련해 어떤 활동을 벌이고 있는지를 하나씩 알게 되었다. 무엇보다 경하 씨는 ‘산호뜨개 모임’을 직접 만들어 참여하고 있었다. 산호뜨개 모임이 어떤 모임인지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데, 보이지 않는 바닷 속 산호의 멸종위기를 알리는 일종의 시민 참여형 공동체 아트워크이다.

한 땀, 한 땀 산호뜨개 모임으로 시민을 만나다

실제 산호뜨개 모임은 수학에서 시작되었다. 미국의 한 수학자가 쌍곡기하학의 쌍곡공간의 모형을 코바늘로 구현해 학회에 발표했다. 이러한 방식은 마가렛 웨르타임의 산호뜨개 운동으로 이어졌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에 위치한 지상 최대의 연산호 군락지가 강정 미군 기지 건설로 파괴될 위기에 처하자 이를 알

리기 위해 시작됐다. 삶과 환경에 관심이 커던 이경하 씨의 마음도 동했다.

“예전에는 ‘-운동’, ‘-주의’ 등의 단어를 듣기만 해도 옥죄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 삶과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이었죠. 그런데 환경문제 등을 접하면서 지구상 모든 것들이 이어져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 곁의 다양한 문제를 삶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게 됐어요. 산호뜨개 캠페인도 그 일환으로 참여하게 됐어요.”

희망제작소는 산호뜨개 캠페인의 취지를 널리 알리고,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후원회원 프로그램으로 소개하면 어떨지 제안했다. 자신의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따라 일상에서 실천하고, 모임을 이끄는 이경하 후원회원과 시민과의 만남은 그 자체만으로 특별할 거라 여겨졌기 때문이다. 이경하 씨는 희망제작소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다.

“대학교 졸업 이후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한 건 산호뜨개가 처음이었어요. 많이 긴장했죠.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 또 작지만 실천할 수 있는 것을 나눌 수 있어서 의미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환경보호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건 제한적이잖아요.”

이경하 씨는 산호뜨개로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 이러한 진심이 전해진 건지 지난해 후원회원 뿐 아니라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후원회원 프로그램 ‘하이 후원회원’에 많은 분들의 호응을 얻었다.

일상 속 실천을 통해 나의 가치를 우리의 가치로

이경하 씨는 이날 모임 이후에도 시민들과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산호뜨개가 특정한 모양을 만드는 데 애쓰는 게 아니라 손이 가는 대로 자유롭게 뜨는 것처럼 산호뜨개 모임도 산호뜨개에 공감하는 분들이 자발적이지만 느슨하게 모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모임의 참여자들은 산호뜨개에 사용하는 뜨개실을 기부하거나, 버리는 옷을 잘라서 재활용하고 있다.



“산호뜨개 모임에 오시는 분들이 매번 지인과 함께 오세요. 그러다 보니 모임 때마다 멤버 구성이 달라져요. 저는 저희 모임이 철저히 열린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단 한 번이라도 다양한 사람과 함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한 번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거든요. 희망제작소 후원회원프로그램으로 많은 분이 감명을 받은 것처럼요.”

이후 이경하 씨의 삶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바로 생각만 하던 채식을 실천에 옮긴 것이다. 희망제작소 연구원을 대상으로 두 차례의 파일럿 프로그램과 후원회원을 대상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삶 속에서 실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육식이 환경에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고 해요. 축산업 자체가 온실가스,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을 발생시키기 때문이죠. 사실 산호뜨개가 ‘환경’을 위한 것이잖아요. 이런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한편으로는 육식으로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는 게 스스로 이율배반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채식을 시작하며 자존감도 높일 수 있었다고 말하는 이경하 씨. 삶의 사소한 부분이지만, 먹을거리에 자신이 원하는 가치를 투영하고, 또 그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지만,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인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생활 방식을 바꾸고, 이를 체화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제가 ‘세상의 모든 것은 이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자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관계는 결국 자신을 살리는 방향으로 이어지니까요.”

이경하 씨는 산호뜨개 모임과 채식에 그치지 않고, 작물공동체에도 참여하고 있다. 고구마, 토종콩, 토종오이 등을 경작하고, 토종씨앗수집단 등에 참여해 우리 땅과 생태계를 지키려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과 자연도 마찬가지고요.”

“현재 채식카페를 준비하고 있어요. 채식을 시작하니 메뉴와 식당 선택권이 많이 줄더라고요. 채식주의자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또 제가 먹는 것을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많은 분이 ‘채식은 맛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아니거든요. (웃음) 편견을 깨트리고 싶어요.”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변화를 꿈꾸다

이경하 씨는 희망제작소에서 보조연구원으로 함께하기 전까지 희망제작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정확하게 몰랐지만, 이제 희망제작소의 활동이 더 많은 시민에게 알려지길 바란다.

“실제 희망제작소에서 일하면서 희망제작소가 우리 사회에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게다가 연구원들이 서로를, 시민을, 저를 대하는 태도를 보니 기부를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사실을 더 많은 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최근 이경하 씨는 ‘차별하지 않기 위한 공부’를 시작했다. 우리 사회에는 의도하지 않더라도 ‘모르기 때문에’ 차별하는 경우가 왕왕 벌어지고 있기에, 스스로 배우고 자각하려 노력하다보면 조금씩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믿음이 있어서다.

“앞으로도 제 삶에서 저만의 방식으로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가려고 해요. 이를 통해 제 중심과 가치관을 지키고, 나아가 우리 사회에 조금이나마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제작소에 후원하시는 분은 어떤 사람일까?”

희망제작소에 소중한 마음과 정성을 보내주시는 후원회원님들을 보며 연구원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감사한 마음이 먼저인 것은 물론이지요.) 그래서 더 궁금하고, 더 만나 뵙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2019년에는 다른 해보다 더 많은 후원회원님을 만나려고 노력했습니다. 희망제작소가 만난 후원회원님들은 모두 다른 이야기를 품고 계셨습니다. 사는 곳, 성별, 나이가 다양했고, 각자 하시는 일도 각기 달랐습니다.

하지만 인터뷰하면서 만난 후원회원 분들 모두 희망제작소가 하는 일과 연구원들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품고 계셨습니다. 무엇보다 시민의 일원으로서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고 계셨습니다. 아직 뵙지는 못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망제작소를 후원해주고 계신 후원회원님들도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희망제작소의 연구와 활동은 사실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종종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라는 아쉬운 말씀을 전해듣곤 합니다.

그럼에도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은 힘을냅니다. 시민 참여, 사회 혁신, 지역 혁신 등 단어만 들어도 크게 느껴지는 가치들이 현장에서 잘 녹아들 수 있도록 고민하려고 합니다. 잘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피며, 희망제작소의 속도에 맞춰 손잡고 함께 걸어주시는 후원회원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후원회원님을 만나고 이야기를 경청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희망제작소가 우리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해주시길 바랍니다. 덧붙여 함께 하고픈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희망제작소는 여러분의 고마운 마음을 가슴에 고이 품고 지치지 않고 성실히 나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은영 이음센터 연구원

2019년,
이런 후원회원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1004클럽·HMC 모임)

- 2019년 5월~8월(월1회)
- 1004클럽·HMC 후원회원 56명
- 북한, 사람, 이야기 시리즈 강연, 사회적참사 강연



하이 후원회원

- 2019년 4월, 6월, 8월, 10월
 - 후원회원 및 시민 75명
 - 사회혁신 강연, 공동체 영화상영, 산호뜨개 시민참여워크숍

명사특강

- 2019년 2월, 5월, 7월, 9월
 - 후원회원과 시민 109명
 - 민주주의, 관계, 도시재생 관련 강연



(2019 후원의 밤 '함께 쓰는 희망')

- 2019년 11월 7일
- 1004클럽·HMC·후원회원, 시민 등 170명
- 후원회원, 연구원이 함께한 따뜻한 연말 행사



(문화나눔)

- 2019년 4월~10월
- 후원회원과 지인 307명
- 과윤섭 후원회원의 초대로 진행된 서울 오라토리오 문화나눔 & 영화 상영 문화나눔

(사랑의 연탄나눔)

- 2019년 12월 21일, 도곡동 구룡마을
- 후원회원과 연구원 40명
-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 운동'과 함께한 연탄 배달 봉사

희망제작소와 함께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2019년 후원회원

정기 후원회원

$$(\quad 3,679 \quad) \text{명} \quad (\quad 3,372 \quad) \text{명}$$

신규 정기 후원회원

수시 후원회원

$$(\quad 126 \quad) \text{명} \quad (\quad 116 \quad) \text{명}$$

- 2019년 후원회원 현황은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집계됐습니다.
- 2019년 후원회원 : 기부금영수증이 발행된 모든 후원회원
- 정기 후원회원 : 2019년 후원회원 중 정기 기부회원
- 신규 정기후원회원 : 정기 후원회원 중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첫 후원금을 낸 회원
- 수시 후원회원 : 전체 후원회원 중 정기 후원회원을 제외한 회원

1004클럽

희망제작소 1004클럽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3년 안에 1천만 원을 후원하는 희망제작소의 고액기부자 커뮤니티입니다. 1번부터 1004번까지의 희망번호를 골라, 희망제작소 명예의 전당인 ‘천사의 벽’에 기부스토리와 함께 소개됩니다.

- 희망제작소의 정기 후원회원이 되시면 희망제작소의 각종 강연, 세미나에 초청합니다.
- 희망제작소 빌간도서 구입 및 교육, 강연 수강 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 후원회원을 위한 특별한 회원모임과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희망제작소의 연간 사업 활동을 정리한 애뉴얼리포트를 보내드립니다.

호프메이커스클럽

2009년 4월, 세상의 변화를 꿈꾸며 희망제작소를 응원하는 오피니언리더 모임 호프메이커스클럽(Hope Makers' Club, HMC)이 발족했습니다. HMC 후원회원은 한 달에 10만 원 이상 후원하여 희망제작소에 힘을 보태고 있으며 정기모임, 탐방 프로그램 등을 운영합니다.

희망제작소 후원회원 커뮤니티 강산애

강과 산을 사랑하는 희망제작소 후원회원 모임 ‘강산애’는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는 산행을, 매월 셋째 주 일요일에는 역사문화 탐방과 트레킹을 합니다. 희망제작소 후원회원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후원문의 : 이음센터 02-6395-1415

희망제작소는 지난 2015년 ‘더 나은 삶과 사회를 위한
희망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시민희망지수’
개발 연구에 첫발을 뗐습니다.

2019

시민의 희망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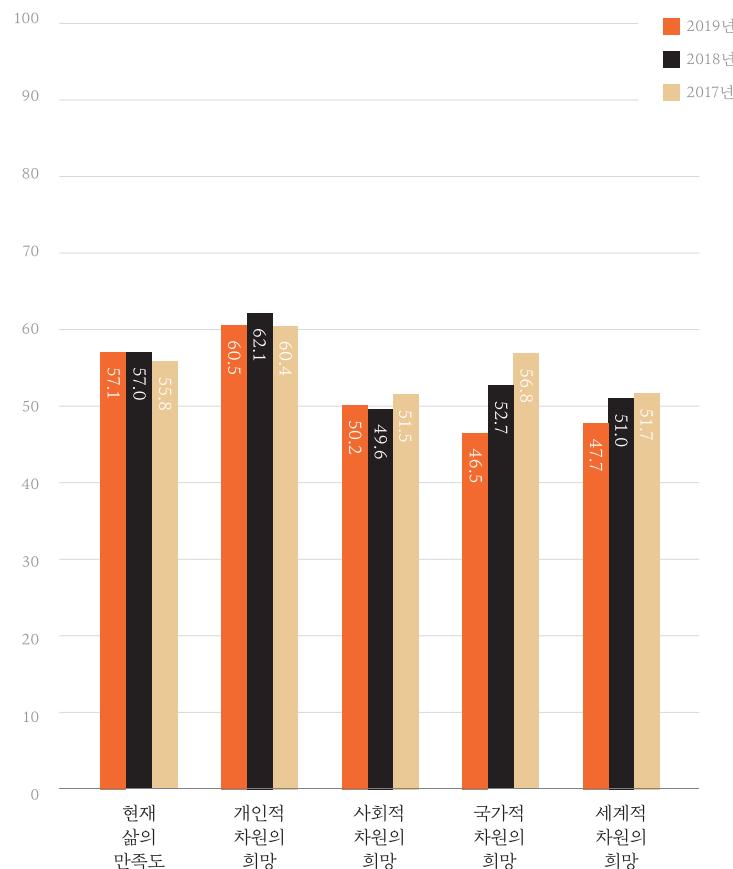
2016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는 ‘시민희망지수’
2019년 시민의 희망을 전합니다.

조사 설계

- 조사대상: 전국 만 15세 이상 남녀
-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조사
- 표본수: 1,000명
- 표본추출: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
- 조사기간: 2019. 11. 6. - 11.14.(총 9일간)
- 조사기관: (주)원지코리아컨설팅

(2019년 시민의 희망은?)

- 현재 삶의 만족도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57.1점
- 국가 차원 희망이 46.5점으로 가장 낮게 평가해
- 정권 출범 이후 기대효과 약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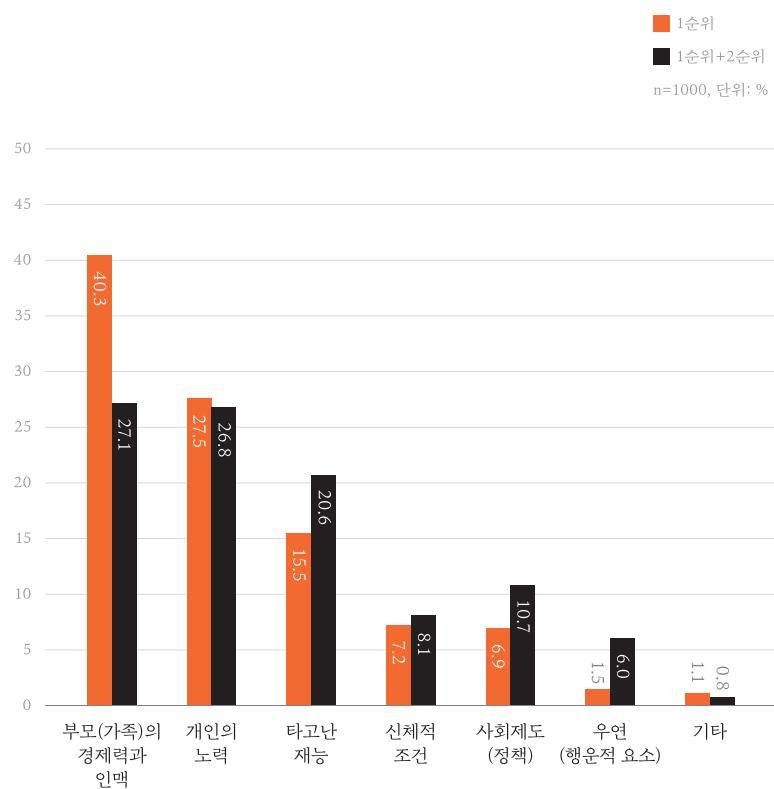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 대한 시민의 의견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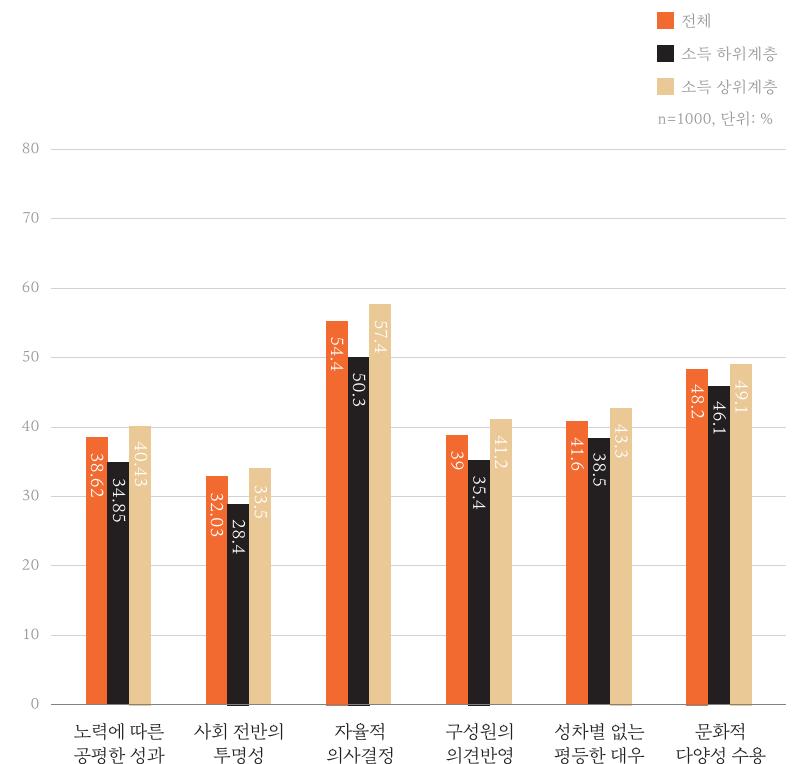
- 20대 국회 평가 점수 100점 만점에 22.6점, 21대 국회 기대 점수는 35.2점
- 시민 10명 중 8명 “못하고 있다”로 ‘밑바닥 수준’
- 시민 10명 중 6명 “21대 국회에 기대하지 않는다”



- 부모의 경제력(40.3%)과 인맥이 개인의 노력(27.5%)보다 더 중요해
- 20대, 30대, 40대 모두 1순위는 부모의 경제력과 인맥
- 그러나 50대 이상은 개인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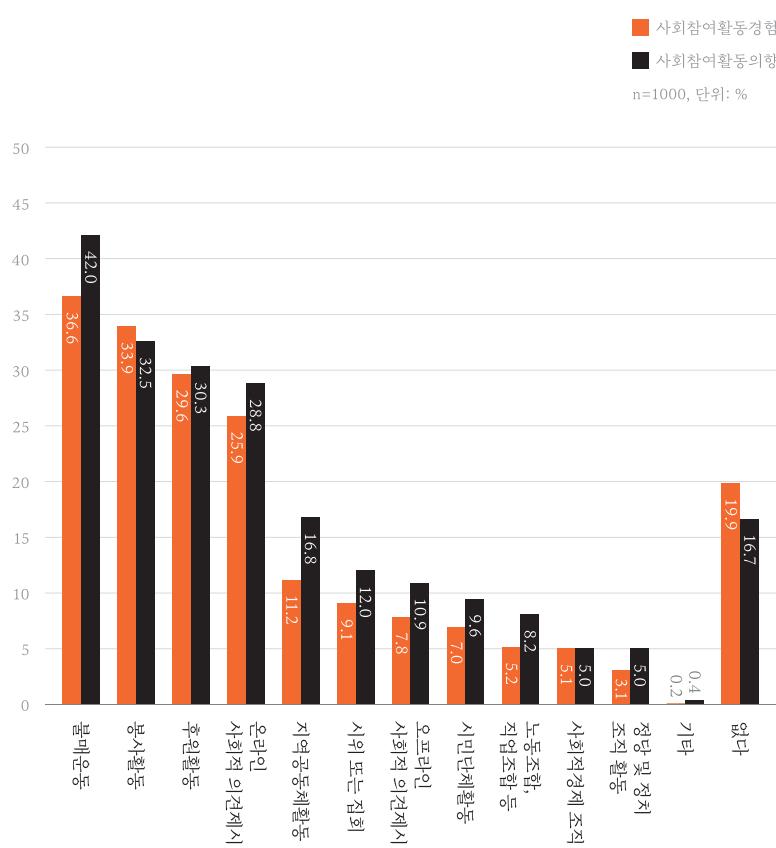
- 자율적 의사결정은 높은 편이나, 공평하지 못한 사회시스템에 대한 문제의식 강해
- 소득 상위/중위 계층 간 인식차 없으나 하위계층은 공평성과 투명성, 성차별에 대한 큰 문제의식 가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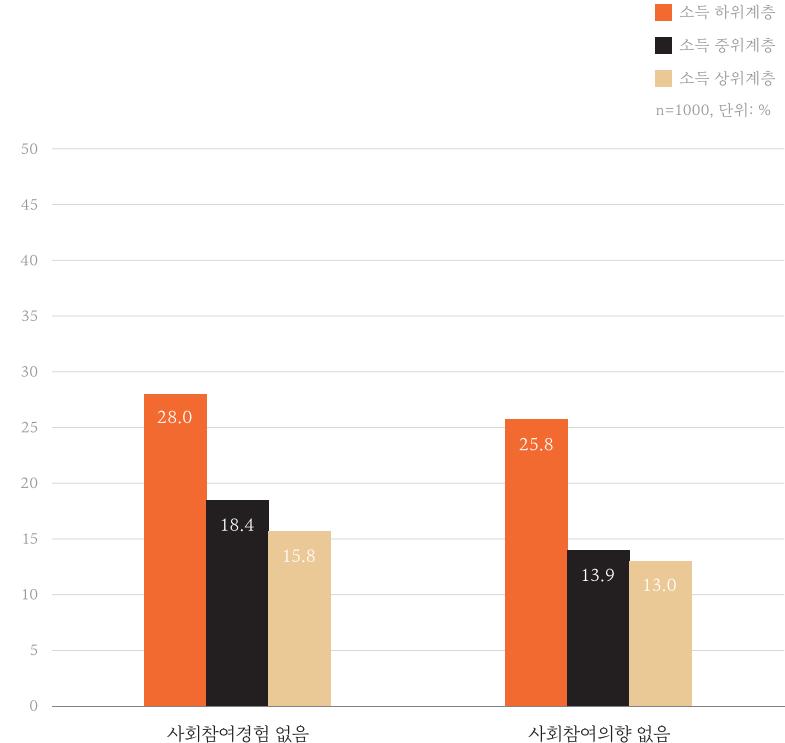
(사회활동 참여에 관한 시민의 의견은?)

○ 투표를 제외한 사회참여 경험 및 사회참여 의향 조사

○ 불매운동 > 후원활동 > 온라인을 통한 사회적 의견 제시순으로 나타나



○ 소득이 낮을수록 사회참여 경험 및 사회참여 의향도 낮아



희망제작소가 함께합니다

시민과 함께 열린 연구, 실천을 지향하는
희망제작소의 사업과 연구, 활동,
그리고 희망제작소 연구원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희망
희망+희망=희망

사업/연구 참여자

목민관클럽 소속단체(지방자치단체)

(5,603) 명 (62) 곳

후원회원

콘텐츠 구독자

(3,679) 명 (25,664) 명

(2019년 12월 31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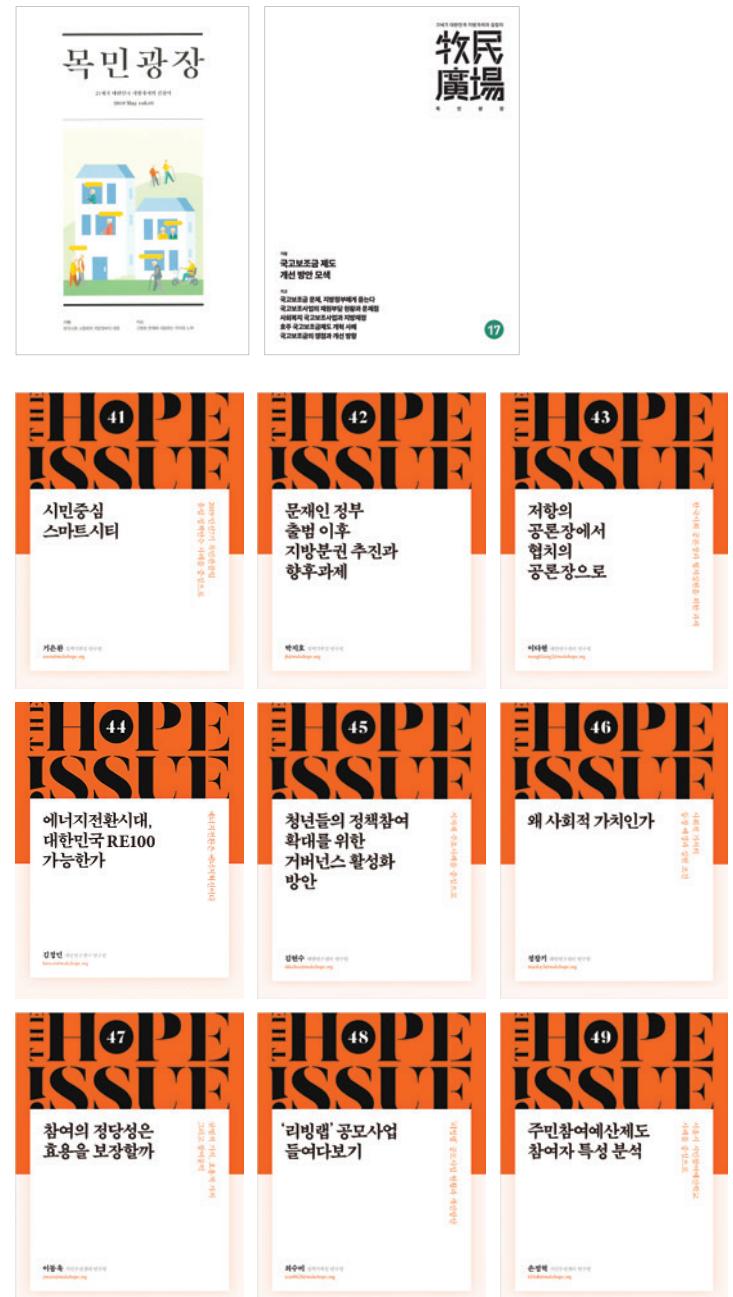
콘텐츠 발행

뉴스레터/희망편지 총 24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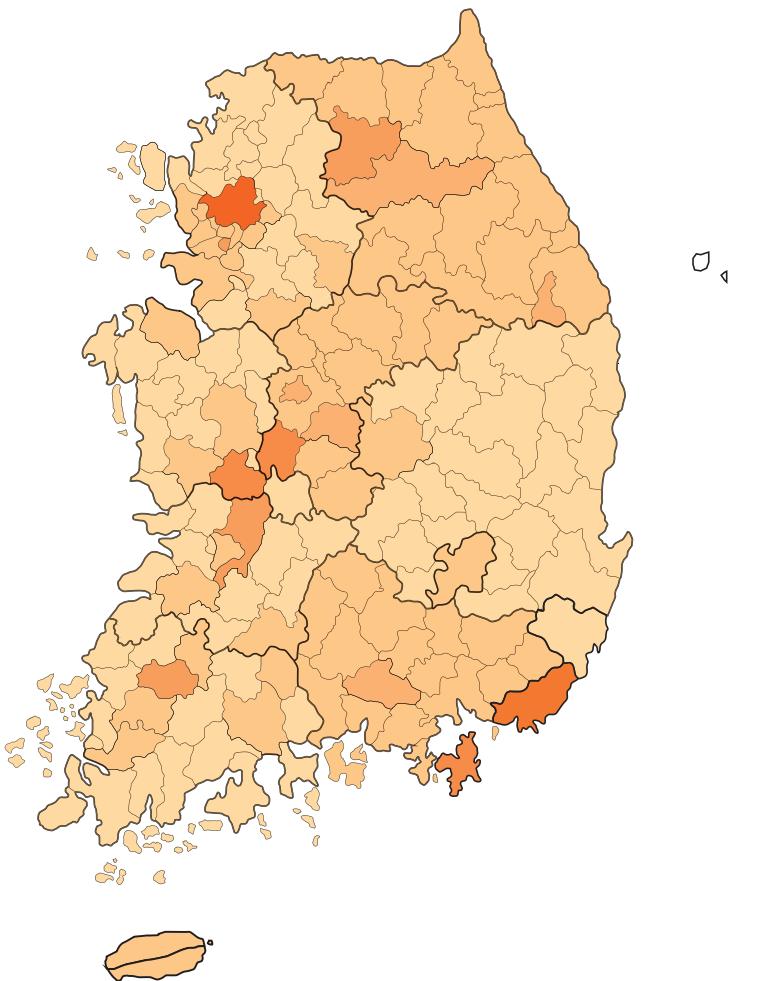
이슈속아보기 총 24회 (* 후원회원 대상 격주 발신되는 뉴스클리핑 서비스)

희망이슈 총 9회

목민광장 총 2회



희망제작소가 2019년 사업 및 연구를 진행한 지역입니다. 해당 지역과의 협업 정도를 색의 채도로 표현해, 협업이 잘을수록 짙게 나타냈습니다.



희망제작소

명사특강, 하이후원회원, 문화나눔
모금전문가학교, 온갓문제연구프로젝트

사회혁신파트너십

지역의 사회혁신플랫폼 모니터링 및 연구
강원, 경남, 광주, 대구, 대전, 충북

한국사회혁신가네트워크

사회혁신가포럼 및 워크숍
서울, 대전, 광주, 청주, 청원, 부산, 제주

연구 및 컨설팅

지역자원에 기초한 조사 및 연구 및 조사
구로구·영등포구(서울시),
부천시·안산시·양평군(경기),
상주시(경북), 완주군(전북)

시민참여예산학교

시민참여형 워크숍 기반 교육 과정 운영
서울시, 시흥시(경기)

민선7기 목민관클럽

정기포럼 및 유럽정책연수
거제시(경남), 광명시(경기),
논산시(충남), 서대문구(서울)

희망찾기 인터뷰

민선7기 목민관클럽 소속 단체장 48명
인터뷰

지역현안조사

17개 광역시도 현안 분석과 상생협력 방안
연구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공무원 및 시민 역량 강화 교육 및 컨설팅

공무원 및 시민 역량 강화 아카데미 운영
광명시, 거제시,
도봉구·양천구·종로구(서울),
완주군(전북), 춘천시

내-일상상상프로젝트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 및 워크숍
남원(전북), 진주(경남), 안성(경기)

유럽정책연수 네덜란드, 독일
시민사회단체정책연수 덴마크, 벨기에,
핀란드
양평군지역공동체활성화사업 일본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목민관클럽

지방자치단체장 정책연구모임인 민선 7기 목민관클럽에서는 자치분권, 유휴공간, 빅데이터를 주제로 총 4차례 정기포럼을 열었고, 유럽 정책연수를 떠나 스마트시티와 지역 재생의 현장(네덜란드, 독일)을 둘러봤습니다. 한국사회의 고령화 문제와 국고보조금을 다루는 <목민광장>(16호/17호)을 펴냈고, 전국 48개 지자체 단체장 인터뷰를 통해 자치분권의 미래를 그렸습니다.



시민연구자를 지원하는 온갖문제연구프로젝트

시민 스스로 궁금증을 탐구로, 탐구에서 기록으로, 연구로 확장하는 <온갖문제 연구프로젝트-궁금한 김에 연구>를 목적사업으로 진행했습니다. 시민연구자 총 68팀이 지원했고, 면접대상자로 선정된 12팀의 시민연구자 간 그룹인터뷰를 거쳐 총 3팀을 선정했습니다. 최대 250만 원 연구비 지원뿐 아니라 워크숍을 통해 시민연구자 간 네트워크를 강화했습니다.



누구나 일상의 문제를 발견해 실험할 수 있는 리빙랩 사회혁신아카데미 ‘해볼라고’ 운영뿐 아니라 서울형 리빙랩 모델 구축을 위한 전략수립을 연구하고, 한국수자원공사의 리빙랩을 컨설팅했습니다. 지역의 사회혁신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사회혁신가포럼 개최를 비롯해 강원, 경남, 광주, 대구, 대전, 충북 등 6개 지역의 사회혁신플랫폼을 모니터링하며 사회혁신플랫폼 평가지표를 도출하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지역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청년, 사회적가치, 공동체 등 주요 의제·정책 대안을 연구했습니다. 구로구·영등포구(서울시), 부천시·안산시·양평군(경기), 상주시(경북), 완주군(전북) 등 지역 자원에 기초해 종합발전계획, 지역사회혁신계획,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해 아파트·공동체, 공동체 회복에 관한 연구·조사를 통해 진행했습니다. 또 17개 광역시도의 지역 현안 분석과 상생협력 방안을 조사·연구했습니다.



시민의 욕구를 반영해 정책을 설계하는 과정이 주목받으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공무원과 주민의 역량 강화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광명시(경기), 거제시(경남), 도봉구·양천구·종로구(서울시), 완주군(전북), 춘천시(강원) 등과 함께 협치, 민주시민 교육, 청년의 시민역량강화 뿐 아니라 공무원이 주민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숙의 및 서비스디자인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이 지원하는 <2019 내-일상상프로젝트>는 남원춘향골교육공동체, 지리산마을교육공동체, 진주교육공동체 결이 함께 했습니다. 청소년이 자신의 재능과 지역의 필요성을 연결해 일을 기획·실천하는 프로젝트로 상상학교, 내-일생각워크숍, 내-일찾기프로젝트 등의 모듈로 진행됐으며, 총 630명이 참여했습니다. 지역기관이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 모듈로 운영하도록 지원했습니다. 경기도 안성에서는 청소년의 욕구에 기초한 진로탐색모델을 직접 실행했습니다.



시민주권을 주체적으로 실현하는 시민참여예산학교

시흥시 참여예산학교를 비롯해 서울시 위탁을 받아 시민참여예산학교 교육내용 및 과정을 재설계할 뿐 아니라 청년, 장애인 특화교육을 진행해 더 많은, 더 다양한 시민의 참여를 위한 새로운 참여 경로를 넓혔습니다.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시민참여예산학교의 교육을 시민참여형 워크숍으로 구성해 총 26기로 교육과정을 운영했으며, 총 1,369명이 참여해 시민의 실질적 권한을 확대하고, 시민주권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했습니다.



시민과 후원회원 누구나 즐기는 교육과 강연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명사특강>을 민주주의, 관계, 사회혁신 등의 주제로 총 4차례 진행했습니다. 후원회원을 직접 만나 소통하는 <1004클럽·호프메이커스 클럽 모임>은 ‘북한, 사람, 이야기’라는 시리즈 강연으로 총 4차례 열렸고, <하이 후원회원>은 공동체 영화상영, 산호뜨개 등 다채로운 소모임으로 구성해 총 4차례 진행됐습니다.



2019년 살림살이 - 재정보고

회망제작소는 ‘투명재정’의 원칙으로 공개·감사·신속·친절·준법을 준수합니다.

2019년 희망제작소 살림살이를 말씀드립니다.

총수입은 약 22억 4천만 원, 총지출은 22억 8천 3백만 원으로
약 4천 3백만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수입 중 후원금 수입이 7억 1천 4백만 원으로 약 32%,
사업수입이 14억 8천 2백만 원으로 67%, 그리고 임대수입이
약 6백만 원입니다.

후원금 수입은 전년 대비 약 1억 3천만 원(15.7%)이 감소하고,
사업수입도 약 9억 7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9년 한 해
후원금과 사업수입의 감소를 줄이고, 최대한 비용을 줄여 적자를
메꾸려 노력했습니다만 적자 폭을 약간 줄이는 데 그쳤습니다.

2020년에는 살림살이를 아끼고, 수지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많은 시민과 함께 우리 사회문제를 고민하고 대안을 찾는
희망제작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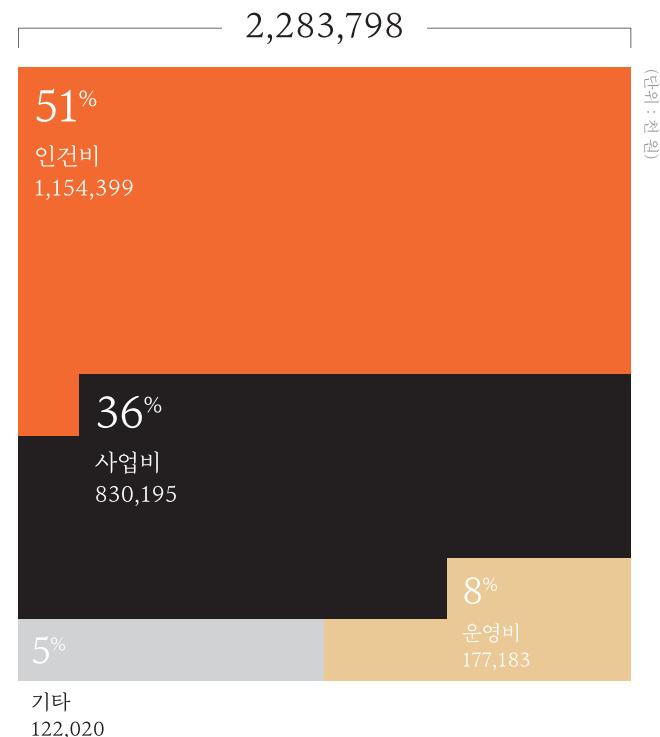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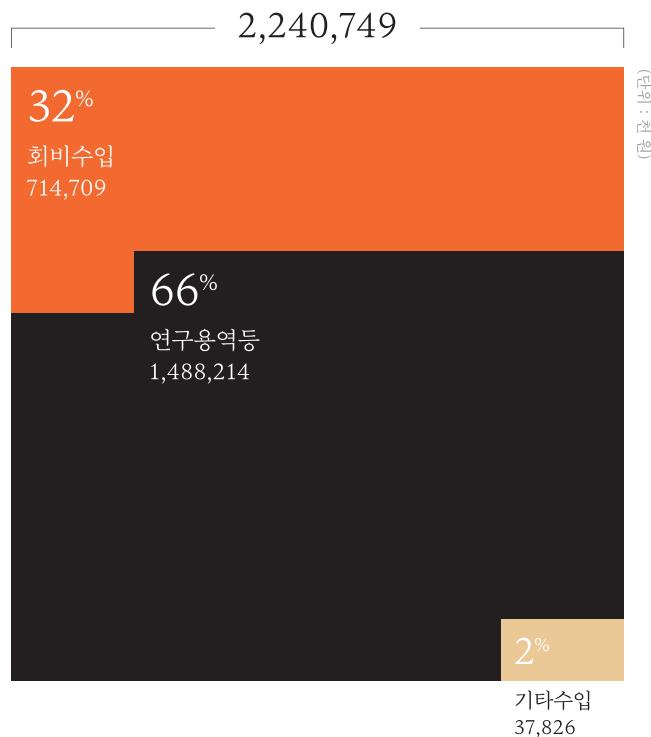
수입

)

(

지출

)





이규리, 허웅, 손혜진, 박선하, 이시원 연구원(사진 왼쪽부터)

희망, (박선하, 손혜진, 이규리,
이시원, 허웅) 씨

2019년부터 희망제작소 연구원으로 일하게 된 연구원 다섯 명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 명의 시민으로서 바
라본 희망제작소와 연구원으로서 일하며 겪은 희망제작소의 모습은 어떻게 다를까요.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활동하고, 정책을 연구하고, 후원회원을 만나는 데 발을 담근 이들의 고민은 무엇일까요. 장장 두 시간에 걸쳐
진행된 박선하, 손혜진, 이규리, 이시원, 허웅 연구원과의 수다를 전합니다.

“서로 다르지만
대화하는 분위기,
그게 좋아요.”

[연구원 집담회]

(희망제작소에서의 2019년
한 명의 시민에서 한 명의 연구원으로)

요즘 어떻게 지내요.

혜진 얼마 전에 계단에서 넘어져 반깁스를 생애 처음 했어요. 뛰어다니고, 놀러 다니길 좋아하는데, 요즘 생각할 시간을 많이 갖게 됐죠. 버스를 타면 양보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가족도 자주 안부 전화를 걸어주고, 친구들도 제 보폭을 맞춰주는 등 꽤 많은 사람의 보살핌을 느끼고 있어요.

시원 집에서 제작소 출퇴근길이 멀었는데, 최근에 이사하면서 편하게 오가고 있어요. 하루를 좀 더 알차게 보내고 있습니다.

선하 저는 일 관련 질문인 줄 알았는데…(웃음) 2020년 사업 관련 자료조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웅 한국에 온 지, 희망제작소에 온지도 석 달 좀 지났는데요. 희망제작소에 출근하는 길이 매일 새롭고 즐거워요.

규리 저는 얼마 전 환경재단에서 주최한 그린보트에 다녀왔어요. 삼시 세끼 주는 대로 먹고, 놀았더니 살이 점점 찌는 느낌이랄까.

희망제작소 연구원으로 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죠.

뭔가 변화가 있나요.

웅 희망제작소의 연구와 활동을 아주 자세히 알고 지원하지 않았는데, 홈페이지를 둘러보면 뭔가 밝은 느낌이 들었어요. 실제 와보니 진짜 재밌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밌는데요?

혜진 (놀란 표정) 어떤 부분이 재미있을까요?

웅 영국에서는 맨날 공부하고, 혼자 있고, 말할 일도 거의 없고 그렇게 지내다가 많은 사람과 지내는 것 자체가 참 좋아요. 다른 직장을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희망제작소 연구원이 선해서 저랑 잘 맞는 것 같고, 재밌어요.



시원 저도 희망제작소가 첫 직장인데요. 이전에 비영리단체라면 으레 어떨 것이라는 분위기 혹은 업무 강도를 걱정했는데, 막상 일해보니까 만족해요. 서로 의견이 다르더라도 대화하는 분위기. 그게 좋아요.

규리 저도 희망제작소 홈페이지를 보면서 활기찬 분위기를 느꼈는데 실제 일해보니 그 활기를 유지하기 위해 매우 바쁘게 일하고 있단 걸 알았죠.(ㅠㅠ)

혜진 아, 이거 어렵네(feat. 펭수) 바깥에서 봤을 때 희망제작소가 굉장히 친숙했는데 실제 사회 논쟁거리에 대해 시민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과정을 도출해내기 위해 연구원들이 회의도 많이 하고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죠.

희망제작소에서 일하며 조직문화도 경험하셨죠.
연구원으로서 일하면서도, 희망제작소의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혜진 참여는 어떤 공간에 간다는 행위만이 아니라 시간과 마음을 내놓아야 하잖아요. 희망제작소에는 여러 위원회가 있고, 많은 구성원이 참여한다는

데 다들 많은 마음을 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건강한’ 갈등을 지향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회가 있다는 걸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원 제가 위원으로 임명되진 않았지만, 각 위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하는 시간이었어요. 개인적으로 어떤 절차나 진행 과정과 관련해 말을 아끼는 것보다 솔직히 말하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요. 위원회마다 어떤 역할과 권한을 줄지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규리 위원회 활동이 일이 되면 힘들 수 있지만, 한편으론 연구원들이 참여하는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적어도 연구원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려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연구하거나 활동하면서 ‘참여’라는 단어 많이 쓰잖아요.

희망제작소에서 일하며 경험한 ‘참여’는 어떤가요.

웅 희망제작소에서 크고 작은 회의나 위원회 활동을 돌아보면 누구든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설사 방향이 달라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고 보기엔 이를 계속 이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희망제작소 내 위원회, 이렇게 열립니다.

희망제작소에서는 혁신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구성원의 자율성, 창의성, 책임감을 바탕으로 다양한 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사 및 채용을 공정하게 시행하기 위한 인사위원회, 희망제작소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장단기 연구 계획 및 연구 결과 평가 등을 심의하는 연구조정심의위원회, 연구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기획 및 진행하는 공육위원회, 징계 사유가 발생 시 논의하는 징계위원회 등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에는 연구원들이 구성원으로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선하 돌이켜보면 희망제작소 내에서 참여 자체가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느끼는데요. 다만, 의사결정 수준이 경영진에서 정해야 하는 몫까지 논할 때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나아간다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고
다양한 관점으로 연구하고, 활동하기

2019년 가장 기억에 남는 연구나 사업이 있다면요.

선하 일종의 수습 기간인 공감 해제 이후 종로행복드림아카데미 2기 운영에 참여했거든요. 종로구에서는 자체적으로 행복지표를 개발했는데, 이번 2기에서는 행복을 어떻게 추구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다양한 대중 강연을 열었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규리 ‘강산애’(강과 산을 사랑하는 희망제작소 후원회원 등산모임) 활동이요. 제가 안전함을 느끼는 그룹이거든요. ‘강산애’에서 만나는 분들은 희망제

작소 후원회원이지만, 동시에 제가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어른들이거든요.

혜진 '강산애'에서 어떤 안전함을 느꼈어요?

규리 '강산애' 구성원은 중장년층이 대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 요즘은 좀 달라졌지만, 대개 어떤 대학 출신인지 물어보는 일이 흔하잖아요. 그런데 '강산애'에서는 그런 질문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시는 것 같아요.

다른 연구원들도 인상 깊은 연구를 소개해주세요.

웅 안산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조사하고, 연구했는데요. 세월호 사고 당시에는 한국에 있었지만, 그해 한국을 떠나면서 가까이서 지켜보지는 못했어요. 외국에서 살아도 항상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관심을 이어왔는데 막상 연구하고, 인터뷰를 해보니까 여전히 갈등이 남아있었고요. 제가 몰랐던 부분을 좀 더 깊게 알게 되었습니다.

혜진 저는 '궁금한 김에 연구'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기은환 연구원과 함께 한 시민연구자 지원사업이에요. 둘이 기획 회의할 때 '우리가 누구를 배제하지 않았는지', '공감을 일으키는 단어를 담았는지'에 관해 고민했어요. 저희 둘만 고군분투한 게 아니라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이 아이디어나 의견을 남겨주셨던지라 더욱 애정을 갖고 진행한 것 같아요.

시원 2019년 한 해 동안 '청소년'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지역과 수도권 각각 진로탐색 사업을 진행하고 운영했거든요. 무엇보다 수도권과 지역 간 기회의 차이를 체감했고요. 개인적으로는 청소년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는 게 필요한 일이라고 보는데, 관련해 향후 연구 역량을 키우고 싶어요.

희망제작소의 든든한 지지자,
후원회원과 관계를 맺고, 소통하기



희망제작소 연구와 사업을 알리며 후원참여를 독려하는 일은 어떤가요.

규리 처음엔 후원회원 부서와 사업 및 연구 부서와의 관계를 크게 의식하지 않았지만 좀 더 긴밀하게 움직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또 시간이 지날수록 후원회원이 참 다양하다고 느껴요. 후원금을 내긴 어려워도, 참여하고 싶은 분, 후원금을 내지만, 단체와 거리를 두고 싶은 분 등 다양한 층위의 시민이 계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희망제작소의 연구와 사업을 후원회원 분들께 잘 알리되 후원회원의 각양각색을 존중하면서 함께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희망제작소 후원회원님의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죠. 혹시 다른 시민사회 단체와 달리 희망제작소 후원회원만의 개성(!)을 발견하셨나요.

규리 희망제작소 후원회원 분들은 스스로 원하는, 혹은 바라는 사회를 만들어 가고 변화를 일구고 싶다는 의지가 강한 분들이라고 느껴요. 단체 채팅 방이 있는데 매일 뉴스 브리핑이나 시의성 있는 현안, 청원 등 다양한 이

야기를 나누며 활발하게 얘기하죠.

웅 환경단체, 인권단체는 비전이나 목적이 뚜렷하잖아요. 그에 반해 희망제작소는 정말 다양한 일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을 후원회원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후원회원 분들이 바라는 걸 모아서 그 방향을 반영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혜진 저도 바깥에선 봤을 때 사회 논쟁거리에 관심 있는 후원회원은 20~30대 일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사업이나 행사 현장에서 주로 젊은 층 위주로 후원참여를 유도했는데, 이제 보니까 너무 쉽게 생각했던 거 같아요. 오히려 후원회원별 다양한 참여 경로를 제공하고, 함께 소통하는 게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2019년 시민희망지수 대한민국의 희망점수, 나의 희망은?

희망제작소에서 매년 시민희망지수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지극히 '주관적으로' 2019년 한국사회 희망 점수(100점)를 매긴다면요.

시원 30점이요. 최근 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관련해 여러 관점으로 해석하는 흐름이 두드러지는 것 같은데요. 목소리의 스펙트럼이 다양해졌지만, 다양한 사람들의 말을 관성적으로 듣고 마는 게 아닌지, 틀 없이 누군가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닫는 것 같아요.

규리 전 60점. 현실적인 부분이지만, 제도 변화에 따라 혜택받은 게 많았거든요. 예컨대 중소기업청년소득세 감면, 희망청년통장, 주 52시간제 등이요.

혜진 마음은 -100점을 주고 싶지만, 30점이요. 주요 관심사가 여성, 노동, 환경, 청년 관련 논쟁거리인데요. 이와 관련해 한국사회가 퇴행하고 있다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주거 공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여기에는 1인 가구, 신혼부부 중심이라 2인 동성 가족 등 조립형 가족이 지원할 수가 없거든요. 한

국사회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활동들이 또 다른 소외를 만드는 걸 경험하며 희망을 보기도 잃기도 한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웅 그런데 우리 한국사회가 그렇게 어렵나요? 제가 너무 밝은 면만 본 건지 80점 정도라고 봤는데. 아무래도 제가 10년가량 해외에서 거주해서 그런가 봐요. 귀국하니까 도시가 세련되게 바뀌었더라고요. 물론 한국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지만, 사회적으로나 시민의식 수준이 발전했다고 느꼈고, 이러한 기대 희망을 포함하면 80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선하 70점이요. 실제 느끼는 점수는 좀 더 낮은데 점수를 높게 줬어요. 개인적으로 2세가 곧 태어나니까 좀 더 희망적인 사회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넣었고요. 또 정권이 교체되면서 누구나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 것 같아요.

2019년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누군가요.

혜진 박봉심 여사님. 어머니요. 행복해지자! 아프지 말고~

규리 저는 한상규 이음센터장 님이 기억에 남아요. 희망제작소로 이직해서 일할 때 제게 많은 위로와 응원의 말씀을 건네주셨어요. 제 마음의 상처를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사회를 위한 2019 시민희망지수

희망제작소는 창립 10주년 기획연구로 2015년부터 시민들과 함께 ‘시민희망지수’를 개발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희망은 있는가?’, ‘더 나은 삶과 사회를 위한 희망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해 시민들이 느끼고 생각하는 우리 사회 희망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시민희망지수’를 개발했습니다.

2019 시민희망지수 조사 결과, 시민들은 ‘현재 삶의 만족도’를 보통(50점) 수준 이상인 57.1점으로 평가했습니다. ‘개인적 차원의 희망’은 60.5점(2018년 62.1점), ‘사회적 차원의 희망’(2018년 50.2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국가적 차원의 희망’은 46.5점으로 2018년보다 6.2점이 하락했고, ‘세계적 차원의 희망’ 점수는 47.7점으로 3.3점 낮게 평가됐습니다.

조사개요

조사대상 전국 만 15세 이상 남녀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조사
표본수 1,000명
표본추출 성/나이/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
조사 기간 2019년 11월 6일~14일 (총 9일간)
조사기관 (주)원지코리아컨설팅



꿰매주고, 고마운 말로 덮어주셨어요.

선하 옆에 계신 허웅 씤. 여러 사회적인 경로를 거쳐왔는데, 오랜만에 동기가 생겨 사적인 이야기도 나누고 좋았어요.

시원 글쎄. 한 사람을 꼽기 어려워요. 오히려 자신에게 많이 집중했어요. 희망 제작소 오기 전에 자존감이 바닥을 친 상태를 경험하기도 했고, 몸과 정신의 리듬을 찾아 열심히 집중했던 거 같아요.

2019년 가장 기억에 남는 단어는요.

옹 시민. 요즘 희망제작소에서 일하면서 매일 ‘시민’이라는 단어를 쓰고, 듣고, 말하거든요. 이전에는 크게 신경 쓴 단어가 아니었고, 책에서만 보던 단어를 일상에서 접하니까 여러 생각거리가 생겼습니다.

시원 희망제작소. 일하게 되었을 때 감사했고, 이러한 자리에 앉아서 상식이 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로 정말 감사합니다.

혜진 유치하고 뾰족하게. 제 삶의 신조예요. 유치한 개그를 정말 좋아하는데 누굴 상처 주는 개그는 싫어해요. 올해처럼 내년에도 배제하거나 소외시키지 않는 뾰족한 시선으로 유치한 순간을 많이 만들고 싶어요. 앞으로 누구를 배제하거나 소외시키는 말을 쓰지 않으면서 유치하고 강한 한 방을 날리고 싶어요.

사업연구 및 협력

희망제작소는 책상이 아닌 현장을 누비며 사람 중심, 지역 중심의 대안을 모색합니다. 협업 혹은 프로젝트 참여를 원한다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02-6395-1414 | hope@makehope.org

기관방문

희망제작소는 연구와 활동이 궁금한 분들을 위해 기관방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 단체, 학교, 지자체 등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 02-3210-0909 | hope@makehope.org

공간대관

희망제작소는 시민이 자유롭게 교류하고 대안을 실험할 수 있도록 시민연구공간 희망모울 및 공간을 대관하고 있습니다.

문의 02-6395-1420 | hope@makehope.org

희망제작소의 활동에 힘을 보태고 싶어요!

희망제작소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꿈꾸는 시민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정기후원 및 1004클럽, 호프메이커스클럽(HMC)으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문의 02-6395-1415 | give@makehope.org

2019년을 마무리하며

닫는 말

희망제작소의 2019년은 변화와 도전의 한 해였습니다.

더 나은 한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작은 변화를 일구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함을 다시 체감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시민이 관객이 아닌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권자로서 삶을 탐구하고,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시민이 가진 힘을 진정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대안연구와 역량 개발에 힘쓰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현장에 있습니다. 새로운 지역혁신 체제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대안을 만들어가겠습니다.

희망제작소 스스로 성장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 연구원들이 독립연구자와 기획자로서 거듭나고, 사회적 의제를 강화하는 데 힘쓰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희망제작소와 함께 고민하고, 흔쾌히 함께 해주신 분들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희망제작소를 응원해주시고 관심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드림

(주)공감만세	법무법인 지평
(주)군포신문사	(주)보잉
(주)나무공작소	비산치과
(주)돌베개	(사)녹색교통운동
(주)모다끄레아	(사)부산시민재단
(주)백도씨	(사)생태지평
(주)백두엔지니어링	(사)환경정의
(주)삼경전설	사회협동조합 혁신청
(주)슬로워크	세무법인 청담
(주)아모레퍼시픽	신토불이 제주
(주)엘지유플러스	아름다운재단
(주)원인농수산	온정약국
(주)유니파티컴퍼니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
(주)인사이드99	유한회사에이랜드
(주)자연인	(재)환경재단
(주)즐거운밥상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주)토리식품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주)현대자동차	(주)에코솔라텍
(주)혜성첨성과	지역활성화센터
(주)호산농산	지오
(주)휴먼트리	지우건설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참여연대
내장산구립공원 백암사무소 현장지원팀	한국가스공사
강원아카이브협동조합	한국생산성본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에이온휴잇컨설팅
기분좋은 안경원	한국여성단체연합
꽃우물오리	한국컴퓨터재생센터
눈비산마을	한살림연합
단디건강운동협의회	함께백년
대한불교조계종 성주사	함께하는시민행동
동작신용협동조합	환경운동연합
뚝섬스타약국	희망주택건축네트워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백제약국	
법무법인 한누리	

가정례	강수미	강호선	고진실	국승용	권진택	김경태	김난영	김동한	김미숙
갈상돈	강수윤	강환복	고진용	국영석	권태승	김경호	김남기	김동현	김미숙
강경근	강숙희	강훈근	고한용	국재민	권택수	김경호	김남연	김동현	김미숙
강귀원	강승구	강희석	고현선	국중창	권혁경	김경화	김남정	김동현	김미숙
강근호	강승민	경규은	고혜경	국지연	권혁세	김경환	김남희	김동호	김미숙
강기석	강신태	계나리	고희범	권건주	권혁순	김경환	김남희	김동훈	김미숙
강나루	강영수	故 김창국	공석범	권경원	권호현	김경희	김남희	김동훈	김미순
강남이	강영은	故 노경래	공양식	권구홍	권희석	김경희	김다슬	김두관	김미아
강대봉	강영혜	故 이영구	공은영	권기태	권희영	김경희	김다영	김두기	김미연
강대성	강유미	故 이창식	공정순	권대현	금철영	김계범	김다이	김두선	김미영
강대현	강윤정	故 하영인	공정이	권명숙	금홍섭	김계숙	김달수	김라온	김미영
강동욱	강은숙	고경희	공진형	권미선	기세정	김계영	김대식	김만일	김미영
강동하	강은엽	고계봉	공홍석	권미혁	기은환	김관용	김대영	김말순	김미정
강두원	강은영	고광민	진화스님	권미혜	기효은	김관철	김대영	김맑음	김미정
강란희	강은주	고광현	곽근식	권민주	길영란	김관호	김대용	김명기	김미정
강명득	강은하	고군순	곽금자	권보미	김가온	김광래	김대준	김명선	김미진
강무석	강은혜	고명섭	곽민경	권상동	김가현	김광명	김대호	김명성	김미현
강미경	강을규	고명옥	곽상옥	권석균	김갑수	김광원	김대호	김명숙	김민
강미선	강인구	고명희	곽소현	권선영	김강수	김광유	김대홍	김명숙	김민기
강미순	강인숙	고미경	곽시영	권성률	김강원	김광진	김덕	김명숙	김민기
강미영	강전희	고민숙	곽영호	권성미	김강표	김광태	김덕창	김명식	김민솔
강미옥	강정미	고민우	곽윤섭	권성하	김강학	김광현	김덕희	김명신	김윤솔
강미정	강정인	고세현	곽자현	권소영	김간엽	김광희	김도균	김명자	김민영
강미혜	강정한	고수경	곽재운	권수현	김건태	김구슬	김도년	김명중	김민영
강민수	강정훈	고순창	곽정서	권숙인	김건호	김귀경	김도빈	김명진	김민우
강민숙	강지선	고승환	곽진훈	권순규	김결	김귀연	김도언	김명학	김민욱
강민아	강진영	고영민	곽현지	권순남	김경남	김귀정	김도영	김명환	김민정
강민재	강창경	고영신	곽혜영	권순중	김경란	김균희	김도영	김명희	김민정
강민철	강창수	고영희	곽효승	권신우	김경미	김근영	김도영	김명희	김민주
강민혜	강천구	고우주	곽호정	권영민	김경보	김금란	김도요	김명희	김민주
강병규	강철성	고윤희	구경완	권영수	김경석	김금우	김도형	김묘경	김민주
강봉근	강춘근	고은호	구도완	권오상	김경숙	김기민	김동기	김문길	김민중
강봉기	강태갑	고재경	구봉주	권오성	김경순	김기윤	김동립	김문성	김민진
강부연	강평석	고재덕	구분임	권오정	김경순	김기중	김동석	김문식	김민철
강석목	강현구	고재원	구설환	권오준	김경양	김기철	김동석	김문정	김민향
강석봉	강현숙	고재은	구영수	권장희	김경원	김기호	김동선	김미경	김민호
강선미	강현숙	고재준	구완희	권정혜	김경일	김길수	김동식	김미경	김백곤
강선임	강현아	고정림	구윤서	권정희	김경철	김나경	김동애	김미경	김범용
강세진	강현오	고정현	구은정	권정희	김경태	김나윤	김동완	김미라	김병곤
강소영	강현주	고제석	구자현	권정희	김경태	김낙빈	김동율	김미리	김병목
강소희	강현직	고준영	구희숙	권중환	김경태	김낙준	김동철	김미숙	김병수

김병완 김선옥 김수길 김영배 김용식 김은경 김재우 김제선 김준호 김찬동
 김병윤 김선우 김수봉 김영석 김용운 김은기 김재원 김종관 김준호 김찬수
 김병희 김선웅 김수연 김영선 김용의 김은미 김재운 김종덕 김지미 김창규
 김보남 김선정 김수열 김영수 김용재 김은민 김재춘 김종범 김지민 김창규
 김보라 김선조 김수영 김영수 김용진 김은숙 김재춘 김종석 김지수 김창민
 김보람 김선창 김수영 김영수 김용진 김은아 김재현 김종성 김지수 김창민
 김보미 김선현 김수영 김영숙 김용찬 김은아 김재현 김종수 김지양 김창범
 김보영 김선호 김수옥 김영숙 김용필 김은영 김재현 김종수 김지우 김창선
 김보영 김선판 김수정 김영순 김용희 김은영 김재현 김종수 김지운 김창주
 김보영 김선판 김수정 김영순 김우용 김은원 김재형 김종식 김지현 김창준
 김복주 김선판 김수철 김영시 김원섭 김은재 김재홍 김종신 김지현 김창집
 김봉석 김설 김수희 김영식 김원용 김은철 김재훈 김종우 김지현 김창현
 김봉선 김성수 김숙자 김영식 김원철 김은하 김전태 김종욱 김지형 김창환
 김봉신 김성숙 김순일 김영실 김원철 김은하 김전호 김종운 김지혜 김창훈
 김봉환 김성식 김순자 김영오 김원호 김은하 김정근 김종원 김지혜 김천애
 김봉희 김성실 김슬기 김영옥 김유경 김은향 김정대 김종율 김지훈 김철
 김부정 김성실 김승주 김영우 김유미 김은회 김정란 김종일 김지희 김철수
 김삼용 김성심 김승현 김영옥 김유선 김은희 김정미 김종일 김진 김철수
 김삼희 김성재 김승환 김영익 김유수 김의인 김정미 김종임 김진경 김철한
 김상만 김선판 김시하 김영일 김유정 김이종 김정민 김종진 김진교 김철호
 김상만 김선판 김신록 김영종 김유진 김익록 김정섭 김종철 김진규 김철호
 김상수 김선판 김신우 김영주 김유진 김익환 김정순 김종필 김진숙 김철홍
 김상원 김선판 김아영 김영준 김유진 김인경 김정엽 김종필 김진선 김춘우
 김상원 김선판 김애선 김영준 김유진 김인규 김정옥 김종하 김진섭 김출호
 김상윤 김세남 김애숙 김영진 김유진 김인규 김정우 김종현 김진섭 김총수
 김상조 김세안 김양수 김영철 김윤 김인도 김정원 김종환 김진수 김충효
 김상주 김세우 김양숙 김영태 김윤기 김인섭 김정은 김종환 김진수 김태동
 김상준 김세중 김양순 김영태 김윤석 김인수 김정은 김종훈 김진숙 김태미
 김상호 김세홍 김양우 김영훈 김윤세 김인수 김정주 김종훈 김진숙 김태선
 김상희 김세훈 김여린 김옥수 김윤수 김인수 김정태 김주연 김진여심 김태엽
 김생기 김선판 김연규 김옥순 김윤식 김인수 김정현 김주현 김진영 김태우
 김석 김소령 김연수 김옥희 김윤식 김인숙 김정현 김주현 김진용 김태일
 김석곤 김소연 김연순 김완수 김윤자 김인자 김정현 김주형 김진우 김태임
 김석란 김소영 김연지 김완준 김윤정 김인호 김정현 김주형 김진숙 김태현
 김석수 김소영 김연진 김왕경 김윤정 김일권 김정혜 김준목 김진주 김태현
 김석웅 김소윤 김연철 김요안 김윤종 김장우 김정호 김준석 김진주 김태훈
 김석환 김소은 김연화 김용관 김윤진 김재민 김정환 김준열 김진하 김택중
 김선 김소진 김영기 김용구 김윤창 김재범 김정훈 김준영 김진호 김판수
 김선경 김송희 김영돈 김용태 김윤희 김재숙 김정희 김준용 김진호 김평만
 김선규 김수경 김영동 김용민 김을 김재승 김정희 김준혁 김진홍 김평우
 김선기 김수근 김영목 김용삼 김은경 김재영 김정희 김준형 김진희 김평화

김학선 김현주 김희태 남원숙 노태균 마장석 문정화 박고운 박명준 박선희
 김학숙 김현중 나기선 남은경 노태영 마주현 문정훈 박광만 박명진 박선희
 김학중 김현중 나기철 남은아 노현송 마현정 문정희 박광석 박미경 박선희
 김한규 김현중 나도남 남인순 노현주 마현철 문진수 박광희 박미라 박설형
 김한나 김형권 나범준 남정섭 노훈영 명은선 문진수 박귀숙 박미라 박성권
 김한미 김형균 나봉임 남정수 노희숙 명인환 문창기 박규민 박미란 박성식
 김한순 김형모 나성곤 남주희 도면회 명재범 문한주 박근로 박미리 박성아
 김한주 김형미 나소열 남중재 도성규 모경숙 문해리 박근영 박미연 박성우
 김해심 김형석 나승대 남춘옥 도은경 모남순 문현성 박근영 박미화 박성우
 김향호 김형성 나승혜 남춘우 도재규 문국현 문혈 박근주 박미희 박성웅
 김향희 김형신 나영재 남중일 도종현 문기수 문혜란 박금례 박민아 박성은
 김혁 김형중 나옹 남태웅 라영수 문나래 문혜숙 박금섭 박민정 박성주
 김현경 김형진 나윤경 남태원 류경기 문내현 문호준 박금연 박민혜 박성진
 김현곤 김형철 나윤희 남현정 류경숙 문덕순 문희숙 박금자 박병순 박성철
 김현미 김형태 나은미 남현우 류근영 문라경 문희현 박기순 박병운 박성호
 김현미 김혜경 나은중 남현주 류대열 문명숙 민미홍 박기원 박병일 박성희
 김현서 김혜경 나인경 남혜정 류동희 문미란 민병덕 박기준 박병조 박세경
 김현석 김혜림 나인호 남홍근 류방란 정미화 민병현 박길수 박병태 박세권
 김현성 김혜빈 나정아 노경미 류봉열 문미정 민보호 박나경 박보건 박세원
 김현수 김혜성 나진희 노경민 류상일 문병체 민복기 박나래 박보경 박세희
 김현수 김혜영 나한영 노경배 류석원 문병현 민상기 박나리 박보영 박소영
 김현숙 김혜장 나혜령 노동섭 류석진 문상효 민성환 박난주 박복영 박수기
 김현숙 김혜정 남경완 노민호 류수정 문석진 민순식 박남영 박사연 박수미
 김현숙 김호경 남경탁 노석양 류수진 문성미 민승현 박노곤 박삼석 박수미
 김현숙 김호석 남경희 노성철 류시정 문성실 민용기 박노규 박상곤 박수선
 김현숙 김호현 남광우 노세호 류은화 문성원 민윤기 박다겸 박상배 박수영
 김현숙 김홍구 남궁경 노수호 류재란 문순현 민은기 박대길 박상옥 박수주
 김현숙 김홍규 남기정 노숙영 류재향 문승국 민은정 박덕동 박상위 박수진
 김현식 김홍기 남미자 노시군 류정열 문승민 민재일 박데레사 박상인 박수진
 김현애 김홍선 남미현 노영선 류제경 문승보 민정희 박동광 박상재 박수진
 김현우 김홍성 남병영 노유진 류지인 문영근 민진희 박동순 박상진 박수천
 김현이 김효곤 남보현 노은별 류지황 문영실 민현범 박동현 박서영 박수한
 김현익 김효근 남봉우 노인선 류한삼 문영주 민형덕 박두규 박서정 박수현
 김현정 김효숙 남상오 노재권 류현수 문영준 박가나 박만순 박석태 박수희
 김현정 김효진 남상진 노정기 류현주 문운 박경수 박말희 박선민 박숙경
 김현정 김홍수 남선옥 노정은 류형주 문인근 박경후 박면하 박선영 박숙정
 김현정 김홍수 남수환 노정혜 류홍번 문일순 박경현 박명남 박선영 박숙희
 김현정 김희근 남승우 노정혜 리화수 문자성 박경호 박명숙 박선우 박순빈
 김현정 김희빈 남안진 노주환 마경숙 문정기 박경화 박명숙 박선주 박순성
 김현정 김희상 남영복 노준식 마경희 문정수 박경희 박명제 박선화 박승록
 김현종 김희순 남옹찬 노진철 마영진 문정순 박계순 박명준 박선후 박승아

박승자	박은미	박종진	박치용	방세근	백명수	서동혁	서현	소천영	송석원
박시연	박은수	박종포	박태수	방순홍	백상현	서명섭	서혜경	손동환	송수진
박시훈	박은영	박종환	박태일	방연주	백서윤	서명희	서혜정	손명숙	송순기
박인수	박은정	박종훈	박태주	방윤규	백석인	서미정	서혜진	손명숙	송순임
박애경	박은주	박주련	박태환	방정균	백송이	서민경	서희용	손민지	송순희
박애자	박은지	박주은	박항기	방정일	백승아	서민태	석기석	손봉희	송아영
박언희	박은하	박주호	박현석	방지현	백승철	서병훈	석락희	손성실	송연희
박언미	박은혜	박주홍	박현수	방지형	백승하	서선영	석승정	손애리	송영선
박언수	박인규	박준빈	박현숙	방호정	백승훈	서성민	석영기	손언희	송예진
박언진	박인기	박준우	박현숙	배국진	백영호	서순현	석춘지	손열	송옥분
박언희	박일준	박준형	박현숙	배규식	백윤애	서슬기	선두남	손영란	송요덕
박영	박재규	박준희	박현숙	배금자	백은옥	서승범	선문숙	손영우	송윤진
박영립	박재석	박중록	박현숙	배문정	백인화	서승욱	선보영	손인권	송은경
박영미	박재송	박중하	박현영	배민경	백정숙	서영태	선윤식	손정혁	송인권
박영섭	박재승	박중현	박현주	배선임	백종학	서왕진	설수정	손정화	송인세
박영수	박재홍	박지숙	박현주	배선화	백해림	서용석	설지원	손제희	송인준
박영수	박재희	박지연	박현호	배성한	백현숙	서용석	설창환	손준혁	송자영
박영신	박전상	박지현	박현희	배성훈	백현주	서용철	설환준	손지열	송자은
박영아	박점배	박지혜	박현희	배소영	백현호	서운석	성갑선	손진영	송장식
박영아	박정규	박지호	박형기	배수연	백혜숙	서원명	성공스님	손진운	송재봉
박영철	박정미	박진교	박형민	배수진	법안스님	서유나	성미령	손창우	송재택
박영혜	박정미	박진도	박형욱	배양숙	변강훈	서윤진	성상희	손태광	송종대
박영혜	박정삼	박진현	박형준	배영민	변경희	서재규	성수경	손혜진	송종호
박영희	박정선	박진형	박혜란	배영욱	변선화	서재철	성수현	송건	송종화
박완규	박정옥	박진호	박혜림	배영진	변성혁	서정범	성순근	송경애	송준아
박용규	박정윤	박진희	박해미	배운기	변장석	서정보	성시경	송귀종	송지나
박용미	박정은	박진희	박혜원	배재환	변재용	서정순	성연수	송금희	송지홍
박용수	박정진	박찬서	박혜은	배정민	변한식	서정호	성외관	송기용	송진선
박우성	박정혜	박찬욱	박호순	배정훈	변형구	서정호	성원선	송기철	송창룡
박우주	박정호	박찬이	박호진	배정훈	복인웅	서정훈	성윤주	송기택	송창석
박우진	박정화	박찬의	박호황	배종현	봉혜영	서정희	성정수	송기호	송창호
박원미	박정희	박창근	박홍규	배지우	부근림	서종근	성종남	송난근	송철호
박원순	박정희	박창기	박홍근	배진희	부윤경	서종식	성지은	송대화	송태준
박원철	박정희	박창원	박효진	배크리-	서경득	서종식	성창민	송동준	송택진
박윤	박제훈	박창조	박훈재	스티나	서경민	서종애	성한표	송미경	송하진
박윤경	박종권	박창주	박홍석	배대영	서경주	서주형	성행자	송미숙	송현우
박윤주	박종락	박채연	박희경	백경미	서기원	서진권	소병훈	송미종	송현준
박윤택	박종서	박철은	박희선	백경호	서기호	서진미	소순일	송미진	송형주
박윤희	박종선	박철훈	반기민	백관숙	서난원	서진원	소영수	송민영	송형진
박윤희	박종연	박춘희	반민규	백낙현	서동명	서충모	소정숙	송민재	송혜섭
박은기	박종정	박춘희	방서은	백대현	서동욱	서한석	소준노	송병주	송혜승

송혜영	신제철	안난숙	안지윤	양인실	염진근	오윤정	우은주	유상훈	유총권
송희진	신종관	안동균	안채운	양재학	염태열	오은경	우지희	유선아	유탁균
신경아	신종태	안명희	안명희	안충환	양정혜	염태영	오은애	우화자	유성일
신경희	신지현	안미숙	안태성	양종희	예병관	오재열	우희창	유승목	유해진
신경희	신진숙	안미영	안현희	양주훈	예종현	오정란	원기준	유승우	유현석
신관섭	신철호	안미희	안형주	양진원	오광진	오정숙	원동희	유승익	유현정
신광수	신태섭	안복님	안혜숙	양진원	오내승	오종혁	원명스님	유승희	유형걸
신국섭	신학재	안상용	안혜신	양진주	오대균	오주평	원명희	유시주	유형준
신권수	신해영	안상현	안혜정	양창영	오덕만	오주현	원삼규	유시춘	유혜원
신기수	신현만	안석민	안혜진	양춘선	오동렬	오준영	원영찬	유양하	유홍숙
신덕순	신현철	안선영	안호영	양춘승	오동운	오지연	원영희,	유연식	유희숙
신동기	신혜진	안성식	안효숙	양택관	오미령	오지은	조순자	유영만	육기승
신동민	신혜진	안성진	양금주	양향숙	오미영	오진락	원유광	유영미	육정화
신동숙	신호선	안성항	양기근	양현준	오민석	오진탁	원윤희	유영민	윤겸모
신동호	신호철	안성호	양길승	양혜란	오상현	오창진	원재희	유영선	윤경자
신만승	심동섭	안세주	양다미	양희진	오석조	오체현	원정연	유영아	윤귀현
신면섭	심석태	안수정	양명균	어수갑	오석호	오철수	원종아	유영준	윤규식
신문경	무구스님	안순억	양명희	어수행	오선아	오충걸	원종철	유영화	윤기훈
신미숙	심수미	안슬기	양문숙	어윤재	오선화	오충근	위길연	유용덕	운다옥
신미숙	심수영	안승봉	양미희	엄경미	오설자	오충섭	위명온	유용문	운덕규
신병철	심영구	안승식	양민승	엄경선	오성문	오치성	위성곤	유윤식	운도현
신보영	심우만	안영도	양민영	엄상현	오세균	오탁근	유전식	유윤희	운미
신봉승	심우영	안영삼	양병찬	엄승용	오세범	오태희	유경숙	유인선	윤미경
신서인	심우중	안영신	양봉숙	엄용태	오세정	오한섭	유경희	유일상	윤미영
신석민	심우진	안영욱	양상철	엄의식	오세희	오현석	유광곤	유재경	윤미정
신성민	심의용	안영주	양성우	엄정미	오수권	오현숙	유광열	유재경	윤상식
신수원	심재복	안영진	양숙자	엄정현	오승렬	오현주	유재민	운서영	
신숙	심재섭	안영환	양승조	엄지선	오승섭	오호진	유난미	유재훈	운석금
신승백	심재엽	안윤경	양승철	엄태주	오승원	옥세진	유다인	유정배	운석인
신아영	심재호	안윤정	양시모	엄현주	오승화	옥진호	유대근	유정수	운석현
신연숙	심정희	안은미	양시원	엄현진	오영수	옹미란	유대기	유정옥	운선규
신영미	심준형	안재기	양여진	엄희선	오영오	왕준연	유덕열	유정현	운성준
신영철	심지혜	안재현	양영희	여수경	오영진	왕지웅	유동걸	유정화	운성옥
신우경	심현정	안재홍	양완범	여태전	오영훈	왕혜정	유동애	유주연	운성혜
신일현	심화섭	안정	양우진	여혜선	오예진	옹윤실	유동열	유준열	운성희
신재민	아영창	안정경	양우혁	여희승	오요환	우성희	유동환	유지근	운소라
신재홍	안강회	안정숙	양원철	연규일	오용주	우연창	유미화	유지숙	운소천
신정민	안계근	안정애	양유라	연성만	오용탁	우영숙	유민석	유진	운숙자
신정민	안관옥	안정화	양은주	염경형	오우식	우영진	유민욱	유진환	운숙자
신정아	안광수	안종기	양은혜	염영하	오유진	우원식	유보성	유창선	운순석
신정자	안광진	안종록	양인수	염영화	오윤영	우원태	유상모	유창진	운순영

윤순진 윤형국 이경찬 이동규 이미정 이상우 이소림 이아영 이용우 이은숙
 윤승민 윤혜숙 이경철 이동섭 이미지 이상욱 이소영 이안교 이용원 이은심
 윤신요 윤화섭 이경하 이동섭 이미희 이상욱 이소원 이양주 이용찬 이은애
 윤아란 윤효기 이경현 이동수 이민선 이상원 이소정 이양희 이용훈 이은영
 윤애숙 윤효식 이경희 이동수 이민숙 이상원 이소현 이여진 이우철 이은영
 윤여원 윤효주 이경희 이동주 이민숙 이상철 이솔 이연 이우호 이은정
 윤영설 윤희운 이계립 이동중 이민아 이상철 이수경 이연수 이육자 이은주
 윤영우 은수진 이계성 이동진 이민아 이상현 이수관 이연숙 이육주 이은주
 윤영주 은영 이국노 이동진 이민아 이상현 이수빈 이연주 이웅희 이은주
 유흥호 은정주 이권의 이동현 이민영 이상현 이수안 이연호 이원근 이은진
 윤오복 은지영 이규리 이동호 이민정 이상현 이수연 이영란 이원목 이은혜
 윤요섭 은탁 이규철 이동호 이민주 이상호 이수정 이영복 이원보 이은혜
 윤용찬 이가람 이근국 이동환 이민진 이상호 이수정 이영선 이원용 이은혜
 윤용출 이갑성 이근규 이동훈 이민진 이상호 이수정 이영완 이원재 이은화
 윤우준 이갑수 이근우 이동훈 이민형 이상호 이숙경 이영욱 이원진 이은희
 윤웅섭 이갑수 이근우 이동희 이범 이상훈 이순녀 이영음 이원진 이응훈
 윤은선 이강산 이근정 이동희 이범석 이상훈 이순녀 이영일 이원혜 이의중
 윤인철 이강일 이금상 이득영 이병관 이상희 이순덕 이영주 이원호 이인규
 윤재연 이강주 이금자 이란이 이병근 이새봄 이순열 이영주 이유빈 이인동
 윤재은 이건웅 이금천 이리나 이병노 이서철 이순자 이영지 이유식 이인석
 윤재훈 이건홍 이기열 이마리아 이병문 이석모 이순자 이영진 이유진 이인선
 윤정선 이경규 이기원 이만성 이병선 이석문 이순향 이영철 이유희 이인식
 윤정용 이경남 이기자 이명곤 이병식 이선미 이순향 이영준 이윤경 이인안
 윤정주 이경란 이기재 이명구 이병찬 이선미 이순희 이영준 이윤구 이일구
 윤정혜 이경미 이기준 이명남 이병화 이선아 이슬 이영택 이윤모 이일숙
 윤제옹 이경미 이기현 이명미 이병훈 이선아 이슬기 이영학 이윤미 이일하
 윤제인 이경미 이길용 이명숙 이보비 이선애 이승민 이영호 이윤배 이임복
 윤종숙 이경민 이나라 이명준 이보연 이선진 이승열 이예소 이윤호 이재갑
 윤종화 이경배 이나미 이명희 이봉금 이선훈 이승용 이육경 이윤환 이재경
 윤주진 이경복 이난수 이명희 이봉용 이선희 이승우 이옥금 이윤희 이재경
 윤주현 이경선 이난숙 이무열 이산 이성 이승재 이옥선 이윤희 이재국
 윤지상 이경수 이남연 이문성 이상규 이성균 이승준 이옥성 이윤희 이재규
 윤지영 이경숙 이남옥 이문자 이상길 이성문 이승철 이옥숙 이은경 이재명
 윤지형 이경숙 이남표 이문재 이상대 이성요 이승철 이왕규 이은경 이재성
 윤진상 이경애 이다솜 이문화 이상림 이성용 이승현 이왕준 이은경 이재수
 윤진수 이경열 이다현 이문화 이상미 이성은 이승호 이용관 이은경 이재승
 윤철원 이경영 이대공 이미경 이상봉 이성은 이승훈 이용규 이은려 이재승
 윤태범 이경우 이덕우 이미란 이상실 이성일 이승훈 이용기 이은상 이재승
 윤한주 이경욱 이덕희 이미애 이상아 이성희 이승훈 이용성 이은석 이재열
 윤현주 이경은 이도찬 이미영 이상연 이세리 이시은 이용수 이은선 이재영
 윤현혜 이경자 이동 이미자 이상엽 이세향 이야기 이용숙 이은선 이재왕

이재용 이정희 이지원 이총엽 이혜경 임대홍 임지연 장복규 장필호 전유미
 이재우 이제경 이지은 이총희 이혜민 임동임 임지회 장복순 장한별 전은자
 이재은 이제명 이지은 이태규 이혜숙 임리준 임진우 장선례 장향자 전인숙
 이재은 이제이 이지은 이태규 이혜숙 임미선 임창주 장선희 장현숙 전일교
 이재천 이제학 이지은 이태성 이혜연 임병석 임채숙 장성한 장현숙 전재은
 이재혁 이조희 이지호 이태성 이혜영 임복철 임채용 장세훈 장현철 전정식
 이재우 이종경 이지훈 이태호 이혜욱 임성규 임체혁 장숙이 장현희 전정연
 이재호 이종문 이지훈 이태환 이혜원 임성미 임철진 장여름 장혜경 전조민
 이재호 이종봉 이진 이태희 이혜정 임성주 임행미 장연정 장혜정 전종우
 이재화 이종아 이진경 이택환 이혜진 임세혁 임현규 장영덕 장혜지 전준형
 이재훈 이종욱 이진선 이판도 이호경 임수진 임현석 장영란 장홍근 전중호
 이전영 이종찬 이진순 이하영 이호군 임승국 임현정 장완익 장홍석 전지영
 이점호 이종찬 이진여 이하주 이호규 혼고스님 임현정 장우연 장훈열 전지은
 이정국 이종학 이진영 이하진 이호섭 임승철 임현정 장원홍 장희영 전진
 이정국 이종혁 이진영 이학노 이호원 임영신 임현주 장유림 장희욱 전진
 이정규 이종현 이진우 이학희 이호진 임영일 임형식 장유식 장희정 전진석
 이정기 이주식 이진주 이한복 이호혁 임예원 임형주 장윤정 전거성 전태운
 이정례 이주연 이진홍 이한성 이화영 임예지 임형칠 장윤주 전귀정 전평
 이정미 이주연 이진홍 이한진 이화영 임오승 임호수 장윤희 전금 전하얀
 이정미 이주한 이진화 이해란 이화철 임완숙 임호택 장은미 전금석 전형준
 이정민 이주현 이진희 이해식 이환열 임용환 임홍탁 장이규 전기택 전혜경
 이정민 이지숙 이찬우 이해영 이황 임우진 임희경 장재섭 전달래 전혜원
 이정민 이준범 이찬우 이해완 이효상 임원영 임희경 장재성 전대석 전홍식
 이정민 이준범 이찬희 이향립 이희걸 임윤경 임희정 장재익 전대우 전환주
 이정선 이준복 이창국 이혁성 이희경 임윤서 장경우 장재형 전대진 전희준
 이정숙 이준식 이창준 이혁우 이희경 임윤진 장규성 장재환 전명국 정건화
 이정실 이준옥 이창준 이현경 이희석 임용순 장근수 장정민 전문주 정경미
 이정애 이준행 이창한 이현규 이희성 임인규 장근화 장정우 전미진 정경숙
 이정연 이준호 이창현 이현숙 이희성 임인자 장금순 장정희 전민주 정경아
 이정우 이준호 이창환 이현숙 이희영 임자인 장다영 장종욱 전봉석 정경원
 이정우 이준호 이체연 이현정 이희정 임재실 장대도 장종혁 전상호 정경희
 이정은 이중숙 이체옹 이현정 이희정 임재연 장동일 장종호 전선녀 정광숙
 이정찬 이지민 이철 이현주 이희정 임정미 장동잔 장준화 전성환 정광식
 이정천 이지수 이철구 이현주 이희중 임정숙 장미옥 장지연 전세웅 정광임
 이정철 이지연 이철범 이현주 인성분 임정택 장미정 장진기 전수영 정광필
 이정한 이지연 이철수 이현준 인은숙 임종진 장미희 장진영 전순림 정광희
 이정화 이지연 이철원 이현진 인현주 임종혁 장민경 장진원 전승완 정귀옥
 이정훈 이지연 이철호 이형범 임경택 임종호 장민석 장진주 전영원 정근철
 이정훈 이지영 이춘삼 이형범 임국진 임주환 장병영 장진호 전예진 정기욱
 이정희 이지영 이춘섭 이형숙 임근래 임준엽 장병학 장재순 전옥경 정기웅
 이정희 이지원 이총로 이형주 임준형 임대홍 장태영 전옥진 정기일

정기재	정선화	정용우	정재혁	정현모	조규주	조용경	조현희	진해성	천희진
정낙섭	정성국	정용욱	정성훈	정현미	조나영	조용언	조혜련	차경천	최갑선
정낙식	정성념	정용운	정제봉	정현숙	조남석	조용진	조혜련	차국린	최강현
정남선	정성만	정용재	정제억	정현욱	조달순	조원봉	조호상	차다은	최경련
정다영	정성섭	정용호	정종경	정현주	조동희	조원필	조호수	차명례	최경식
정다운	정성용	정우용	정종일	정현진	조두현	조은영	조효진	차명준	최경실
정대동	정성우	정운봉	정종혁	정현철	조명진	조은정	조희정	차민경	최경아
정대이	정성원	정원모	정주량	정현태	조미정	조은주	종인선	차병률	최경화
정대화	정성일	정원일	정주형	정형자	조민	조은하	주경신	차선주	최광필
정동욱	정성한	정유락	정준용	정혜숙	조병일	조이숙	주나영	차성수	최국모
정동준	정성희	정유석	정지강	정혜영	조봉연	조장래	주다영	차성현	최기배
정라온	정세균	정유진	정지선	정호영	조상민	조재범	주다온	차수옥	최남준
정만순	정세영	정유화	정지선	정화영	조선희	조재원	주민하	차순덕	최달옹
정명훈	정세영	정윤모	정지연	정환수	조성갑	조재화	주범수	차승현	최덕호
정명희	정세용	정윤미	정지영	정환훈	조성국	조정민	주석주	차영준	최데이빗
정문모	정셀리스	정은	정지영	정회업	조성오	조정숙	주성현	차윤호	최동식
정문식	정수진	정은경	정지영	정효숙	조성임	조정식	주성희	차철육	최명철
정미경	정수진	정은경	정지영	정효주	조성재	조정윤	주영애	차태정	최문성
정미선	정순자	정은혁	정지영	정홍락	조성전	조정화	주은수	차혜란	최문자
정미선	정순혁	정은화	정지영	정희옥	조성전	조정훈	주재록	차희석	최문정
정미셸	정순호	정을호	정지원	광용스님	조성주	조정희	주중연	채광선	최미숙
정미숙	정승우	정의숙	정지훈	정희정	조성형	조정희	주창호	채미경	최미옥
정미영	정양심	정의진	정진수	제미경	조세연	조주연	주형선	채미경	최미옥
정민성	정연수	정의진	정진영	제민준	조세진	조준우	주혜경	채범진	최미은
정민우	정연호	정익교	정진우	제윤경	조소정	조준행	지관근	채상우	최민규
정민재	정영기	정의기	정진철	제종길	조수영	조준형	지덕근	채수덕	최병수
정병성	정영배	정인숙	정진행	제희원	조수현	조지형	지선경	채영수	최병일
정병오	정영수	정인숙	정창교	조강주	조숙영	조진원	지선명	채옥경	최병주
정병호	정영숙	정인조	정창기	조경래	조숙임	조진현	지선영	채준호	최보경
정보배	정영아	정인택	정창남	조경숙	조순동	조창현	지정구	채효정	최보순
정보영	정영오	정일영	정창섭	조경실	조승연	조천수	지정배	채희경	최본
정삼숙	정영옥	정자원	정철현	조경아	조아라	조춘원	지정순	채희령	최봉주
정상규	정영이	정재규	정철호	조경오	조아영	조태민	진규엽	천경송	최부휴
정상섭	정영일	정재도	정태욱	조경현	조아진	조태진	진명희	천경희	최상순
정상오	정영창	정재선	정태흠	조계숙	조연미	조태훈	진수경	천관희	최상용
정상혁	정영택	정재승	정택동	조계현	조연옥	조한종	진수현	천서영	최상원
정상훈	정영희	정재식	정필홍	조관연	조연주	조현경	진신정	천원주	최상호
정새롬	정예진	정재우	정하섭	조광모	조영관	조현상	진안민	천장호	최서영
정서영	정옥희	정재윤	정한수	조광연	조영중	조현재	진우삼	천재박	최석구
정선영	정완숙	정재정	정해경	조규선	조예진	조현중	진재선	천하람	최석호
정선옥	정용선	정재철	정현곤	조규영	조용건	조현진	진하늘	천홍주	최선아

최선희	최용관	최지선	하가은	한상철	한홍태	홍경숙	홍향표	황정우
최선희	최용극	최지영	하동구	한상현	한희숙	홍규창	홍현주	황정환
최성범	최용대	최지희	하상영	한성규	함식	홍명근	홍혜련	황정희
최성복	최용수	최진	하성자	한성주	함오연	홍명자	홍혜숙	황진선
최성신	최용환	최진규	하성주	한성철	함은희	홍민선	황광석	황춘우
최성원	최옥	최진옥	하수영	한성희	함지훈	홍봉선	황광연	황춘원
최성종	최운열	최진주	하승창	한소연	허병욱	홍사여리	황남희	황혜란
최성준	최원호	최진화	하영석	한송희	허병철	홍샘	황대식	황호명
최성희	최웬디	최진희	하영숙	한송희	허새나	홍선경	황명선	황효진
최세문	최유라	최진희	하용식	한수정	허성식	홍선미	황명화	황희두
최세영	최유선	최진희	하은혜	한수정	허성훈	홍선미	황미연	효진
최세정	최유재	최창숙	하재천	한수현	허세기	홍선주	황민령	
최소연	최유진	최철수	하재훈	한순인	허식	홍선희	황병민	
최소영	최윤규	최춘식	하정관	한승자	허신용	홍성대	황상철	
최수미	최윤석	최태림	하주미	한연규	허안숙	홍성범	황상훈	
최수미	최은석	최태영	하진규	한연주	허영진	홍성완	황서현	
최수아	최은아	최하나	하창용	한영미	허용권	홍성진	황선봉	
최수정	최은영	최한나	하태훈	한영순	허윤정	홍수연	황선영	
최승국	최은영	최한석	하현	한영주	허은영	홍순명	황선우	
최승철	최은영	최현	한전희	한영희	허의	홍순미	황선중	
최시안	최은하	최현미	한경아	한우정	허인	홍순애	황성주	
최앤	최의성	최현정	한경진	한원복	허정도	홍순정	황세원	
최연서	최이성	최현주	한경혜	한원식	허정미	홍순장	황순구	
최영	최인욱	최형열	한경희	한윤주	허정숙	홍승기	황순복	
최영동	최재복	최형우	한광수	한재복	허주형	홍승현	황영수	
최영미	최재식	최혜숙	한금희	한재우	허준연	홍영기	황영숙	
최영수	최재영	최혜자	한기성	한재은	허지연	홍왕문	황영주	
최영숙	최재원	최혜정	한나	한정태	허진란	홍윤비	황영철	
최영숙	최재정	최호연	한대상	한정훈	허진영	홍윤석	황옥란	
최영애	최정심	최호열	한동열	한준택	허태욱	홍은영	황용운	
최영옥	최정아	최환규	한만호	한지나	허호	홍인영	황운택	
최영주	최정현	최희천	한명선	한진경	허홍열	홍정립	황은자	
최영주	최정현	추노을	한명자	한진우	현경미	홍정표	황은하	
최영준	최정혜	탁나영	한명희	한창석	현사회치	홍제남	황은희	
최영호	최정희	탁석한	한미자	한철수	현상진	홍주의	황의훈	
최영환	최종철	탁수진	한병철	한평수	현승자	홍준희	황인숙	
최영훈	최주영	탁율민	한상국	한현수	현승훈	홍순범	황인철	
최영희	최준용	탁주영	한상규	한현숙	현우택	홍지애	황인희	
최예경	최준혁	탁현민	한상엽	한현주	현진호	홍지연	황재순	
최옥녀	최준혁	편정자	한상욱	한호	형성철	홍지영	황재천	
최요셉	최지미	표혜정	한상원	한호정	홍갑선	홍태철	황재희	

(희망제작소 사람들)

이사회 (2019년 기준)	정지강 이사장(대한기독교서회 명예사장) 윤석인 부이사장(희망제작소 전 소장) 권희석 이사(하나투어 수석부회장) 법안 이사(금산사 주지) 유시주 이사(희망제작소 전 소장) 윤순진 이사(서울대학교 교수) 이호혁 이사(NHN위투 대표) 정건화 이사(한신대학교 교수) 김제선 이사(희망제작소 소장) 심재엽 감사(회계법인 이상 회계사) 이소영 감사(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대안연구센터 정창기 센터장 mayday3@makehope.org 김창민 팀장 kimcm@makehope.org 김현수 연구원 ddackue@makehope.org 이규홍 연구원 diltramesh@makehope.org 이다현 연구원 mangkkong2@makehope.org 허웅 연구원 woong@makehope.org
소장단	김제선 소장 옥세진 부소장	자치분권센터 송정복 센터장 wolstar@makehope.org 박선하 연구원 lea@makehope.org 손혜진 연구원 raha@makehope.org
경영지원실	김홍수 실장 hsk1999@makehope.org 한현숙 팀장 ssunday@makehope.org 권성하 연구원 shya@makehope.org 윤은선 연구원 yes@makehope.org 최수미 연구원 ican6028@makehope.org	이음센터 한상규 센터장 thomashan@makehope.org 유다인 팀장 yoodain@makehope.org 이규리 연구원 kyouri@makehope.org 최은영 연구원 bliss@makehope.org
시민주권센터	오지은 센터장 agnes@makehope.org 유진 팀장 jinryu@makehope.org 기은환 연구원 teum@makehope.org 손정혁 연구원 kfclub@makehope.org 이동욱 연구원 ymarx@makehope.org 이시원 연구원 lsw@makehope.org	미디어센터 안영삼 센터장 sam@makehope.org 방연주 팀장 yj@makehope.org 오승화 연구원 uncia@makehope.org 조현상 연구원 bombam@makehope.org
		기획팀 박지호 팀장 jh@makehope.org 육아휴직 중, 희망을 키우고 있어요! 박다겸 연구원
		위탁운영 서대문50플러스센터 수원시평생학습관



삼성 제트의 필터과학으로
오늘을 지키세요

댕댕이와 신나게
뛰놀고 들어온 날에도

삼성 제트만의
99.999% 미세먼지 배출 차단 기술과
청정스테이션이 우리집 공기를
언제나 깨끗하게 지켜주니까



발행처	희망제작소
발행일	2020년 3월
발행인	정지강
기획편집	미디어센터 방연주
디자인	더디앤씨 www.thednc.co.kr
주소	03978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92 (성산동 114-14)
전화	02-3210-0909
팩스	02-3210-0126
메일	hope@makehope.org

www.makehope.org
facebook.com/hopeinstitute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활동을 기준으로 구성 및 작성되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 일부 또는 전부를 재사용하려면 반드시 희망제작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